

신약
1

BELIEVER'S BIBLE COMMENTARY
MATTHEW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마태복음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마태복음

정 병 은 옮김

BELIEVER'S BIBLE COMMENTARY
BY
WILLIAM MACDONALD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BELIEVER'S BIBLE COMMENTARY

MATTHEW

WILLIAM MACDONALD

THOMAS NELSON PUBLISHERS

Nashville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410-8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233-4
전화: (031) 914-2732, 팩스: (031) 917-4520

Evangelical Publication Inc.

1233-4, Jeongbalsan-dong,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410-828, KOREA

차 례

약어표	5
저자 서언	7
편집자 서언	9
신약성경 개론	13
복음서 서론	20
마태복음	31
마태복음 서론	32
1. 메시아-왕의 계보와 출생(1장)	39
2. 메시아-왕의 어린 시절(2장)	47
3. 메시아의 사역을 위한 준비와 메시아의 공적 출현(3-4장)	55
천국 / 57	
복음 / 72	
4. 왕국의 법도(5-7장)	75
신자와 율법과의 관계 / 83	
이혼과 결혼 / 90	
금식 / 102	
5. 메시아의 능력과 은혜의 기적들, 그리고 그에 대한 다양한 반응(8:1-9:34)	119
6. 이스라엘에게 파송된 메시아-왕의 사도들(9:35-10:45)	141

7. 증대하는 반대와 거절(11-12장).....	158
안식일 / 173	
8. 이스라엘의 거절로 인한 왕국의 임시 형태 선언(13장).....	190
9. 고조되는 적대감에 직면한 메시아의 다함없는 은혜(14:1-	
16:12)	210
10. 왕이 제자들을 준비시키심(16:13-17:27).....]	228
11. 왕이 제자들을 가르치심(18-20장)	245
12. 왕의 나타남과 거절당함(21-23장)	273
13. 왕의 감람산 강화(24-25장)	305
14. 왕의 수난과 죽음(26-27장)	328
15. 왕의 승리(28장).....	363
참고 문헌.....	370

약어표

- ASV-미국 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FWG-그란트의 숫자 성경(F.W. Grant's *Numerical Bible*)
JND-다아비의 새번역(John Nelson Darby's *New Translation*)
JBP-필립의 의역본(J.B. Phillips' Paraphrase)
KJV-흠정역(King James Version)
KSW-(Kenneth S. Wuest's *An Expanded Translation*)
LB-현대어 성경(Living Bible)
NASB-새 미국 표준역 성경(New American Standard Bible)
NEB-새 영어성경(New English Bible)
NIV-새 국제역 성경(New International Version)
NKJV-새 흠정역(New King James Version)
RSV-개정 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RV-개정역(Revised Version<England>)
A.D-주후(主後;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B.C-주전(主前; Before Christ)
NU-가장 오래된 헬라어 비평 사본

저자 서언

“신자 성경 주석”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진지한 학도가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되었다. 그러나 어떤 주석도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주석이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은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준 다음 보다 깊은 연구를 하도록 독자를 성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본 주석은 쉽고 비전문적인 언어로 집필되었으며, 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인상을 풍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신구약 성경의 원어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때문에 말씀의 실질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성경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딤후 2:15).

본 주석의 논조는 간결명료하므로 독자는 어떤 구절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여러 쪽에 걸친 설명을 애써 다 읽어볼 필요는 없다. 분주히 돌아가는 현대생활은 진리가 짧고 간결하게 제시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구절들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다. 많은 경우에 다양한 설명들을 소개함으로 독자로 하여금 어떤 설명이 문맥과 나머지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부합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말씀을 삶에 실제로 적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주석은 어떻게 성경본문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만일 본서가 목적 그 자체로 사용된다면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덧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본서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일을 독려하고 주님의 교훈에 대한 순종심을 일깨우는데 사용된다면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다.

모쪼록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독자의 마음에 빛을 비취 주시기를 바란다.

편집자 서언

“주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1950년대 후반에 어떤 성경교사가 엠마오 성경학교(지금의 엠마오 성경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던진 충고였다. 그 중 적어도 한 학생이 지난 30년 동안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 그 교사는 본 “신자 성경 주석”의 저자인 윌리엄 맥도날드였고, 그 학생은 당시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었던 본 편집자 아더 화스타드(Arthur Farstad)였다. 그는 평생에 단 한 권의 주석만 보았는데 헤리 A. 아이언사이드의 에베소서 강해서인 “하늘에 속한”(In the Heavenly)이 그것이었다. 10대 시절 어느 해 여름에 그 책을 숙독한 후에 아더 화스타드는 주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1. 주석이란?

주석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우리는 주석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가? 최근에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 발행인이 성경에 관계된 책을 15가지로 분류했다. 따라서 혹 어떤 이들이 정확히 어떻게 주석이 스테디바이블이나 심지어 성구사전, 성경지도, 성경사전 등과도 다른지를 알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전혀 놀랄 일이 못된다.

주석은 절별 혹은 단락별로 성경 본문에 대해 “논평을 하거

나”(comments) 도움을 줄만한 언급을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석을 저만치 제껴두며 “저는 단지 강단의 말씀을 듣고 성경 자체만 읽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제법 경건한 말처럼 들리나 그렇지 않다. 주석은 단지 최선의(그리고 가장 어려운) 형태의 성경강해-하나님의 말씀을 절별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를 문자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떤 주석들(가령 아이언사이드 주석)은 설교를 그대로 책으로 출간했다. 게다가 모든 시대 모든 언어로 된 유명한 성경강해서들이 영어로 보급된 실정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강해서들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로서는 절망할 정도는 아니라 해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까닭에 이 “신자 성경 주석”이 간행된 것이다.

2. 주석의 종류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주석을 집필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주석은 매우 개방적인 것에서 매우 보수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본 “신자 성경 주석”은 성경을 신앙과 삶 모두에 절대 충분한 영감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매우 보수적인 주석이다.

주석은 매우 전문적인 것(예를 들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구문에 대해서까지 세세한 설명을 가한 것)에서 매우 간략한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범위가 넓은데 본 주석은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다. 전문적인 설명은 주로 각주로 돌렸으나 본문 해설에 관한 한은 난이도에 관계없이 대충 얼버무림 없이 충실히 다루었다.

맥도날드 형제님의 글은 “강해가 풍부하다.” 형제님의 글의 목적

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돕는데 있다.

주석은 또한 신학적인 진영에 따라서 보수적인 것과 자유주의적인 것, 개신교적인 것과 로마 카톨릭적인 것, 전천년적인 것과 무천년적인 것 등으로 나뉘는데 본 주석은 보수적이며 개신교적이며 그리고 전천년적이다.

3. 본서를 사용하는 방법

본 주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다음 순서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1) 대강 훑어봄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좋아하거나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여기저기 조금씩 읽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특정 구절에 대한 참조

어떤 구절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경우 여러분은 해당 구절이나 문맥에 대한 설명을 찾아봄으로써 분명 적절한 자료를 얻게 될 것이다.

(3) 교리에 대한 연구

안식일, 침례, 선택, 삼위일체 등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주제를 다루는 구절들을 찾아보라.

(4) 책별 연구

만일 성인 주일학교나 정규집회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매주 해당 본문을 미리 공부해 뒀으로써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토론을 하면 더 큰 유익이 있다). (물론, 만일 인도자도 본서를 주요 참고서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은 다른 주석을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

(5) 성경 전체에 대한 연구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 전체”를 상고해야 한다. 성경 전체에는 난해한 본문이 흩어져 있으며 본서와 같은 주의 깊고 보수적인 책이 당신의 성경공부를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성경공부는 광활한 사막을 여행하듯이 그 출발이 막막하고 아득하지만 조금씩 진보하면서 꿀맛과 같이 달콤한 시간이 된다.

맥도날드 형제님은 30년 전에 제게 “주석을 무시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신바 있다. 새 흠정역본(New King James text)에 맞춰 편집을 하면서 이 성경주석을 매우 주의 깊게 연구해 봄으로써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주석을 즐겨 사용하라!”는 충고를 독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다.

신약성경 서론

“이 신약성경 책들의 역사적, 영적인 면에서의 가치는 그 책들의 수나 양에 도저히 비견되지 않으며, 그 책들이 삶과 역사에 미친 영향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여기 에덴에서 동이 뜨기 시작한 시대의 정점이 있다. 구약의 예언의 그리스도는 복음서의 역사의 그리스도요, 서신서의 경험의 그리스도와, 계시록의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신다.”-W. 그레햄 스크로기

1. “신약”의 뜻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깊은 바다, 혹은 그 중 한 책을 연구하는 비교적 작은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기 전에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책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사실을 간략히 개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약속”(testament)과 “언약”(covenant)은 둘 다 동일한 헬라어 단어(*타테케*)를 옮긴 것이며, 히브리어로는 한 두 곳에서 어떤 번역이 더 나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독교 성경상의 용어로는 “언약”이란 의미가 확실히 더 낮게 여겨지는데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하나의 협정, 맹약, 혹은 “언약”을 이루기 때문이다.

기독교 성경은 옛(혹은 “오랜”) 약속과 대조해서 “새” 약속(혹은 언약)으로 불리운다.

두 약속 모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으며, 따라서 모든 그리

스도인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자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특히 우리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 대해, 또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해 말씀하는 성경의 그 부분에 보다 종종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어거스틴에 의해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표현된바 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 드러나 있다.”

2. 신약성경 정경

“정경”(canon, 헬-카논)이란, 어떤 사물을 측정 내지 평가하는 “기준”(rule)을 가리킨다. 신약성경의 정경은 영감 받은 책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그러면, 이 책들만이 정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혹은 이 27권의 책 모두가 정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독교 초기부터 여타 기독교 서신 및 문헌들(이단적인 것을 포함해서)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책들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종종 주장하기를 A. D 3세기 후반에 한 교회회의가 정경목록을 정비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그 책들은 기록된 즉시 “정경적이었다.” 경건하고 분별력 있는 제자들은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들을 인정했듯이(벧후 3:15-16) 처음부터 영감 받은 성경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교회들에서는 한동안 일부 성경(유다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어떤 책이 마태나 베드로, 요한, 혹은 바울, 혹은 마가나 누가와 같은 사도의 범주에 드는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을 경우

에는 그 책의 정경성에 대해 아무 의문이 없었다.

신약성경 정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회회의는 사실 여러 해 동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말하자면 교회회의는 책들의 “영감된 목록”을 정비한 것이 아니라 “영감된 책들”의 목록을 정비한 것이었다.

3. 저자 문제

신약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야고보, 베드로, 유다 및 히브리서의 익명의 저자(히브리서 서론 참조)를 감동하사 집필하도록 하셨다. 신약성경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최선의 정확한 이론은 “이중 저작권”이다. 신약성경은 부분적으로는 인간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신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적인 동시에 전적으로 신적인 것이다. 신적인 요소가 인간적인 요소로 하여금 아무 실수도 범하지 않게 했다. 그 결과 원본상 무오무류한 책이 나오게 되었다.

이 기록된 말씀에 비견되는 유용한 유추는 살아있는 말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속성이다. 그분은 부분적으로는 인간이고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희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신적인 속성이 인간적인 속성으로 하여금 여하한 과오나 죄를 범하지 못하게 했다.

4. 연대 문제

약 1천년이 걸쳐 완성된 구약성경(BC 1400-400)과는 달리 신약성경

은 불과 반세기만에(A.D 50-100) 집필되었다.

신약성경의 현재 순서는 모든 시대 교회를 위해 매우 적합한 순서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애로 시작하여 교회를 말하고 그런 다음 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끝으로 교회와 세상의 장래를 밝힌다. 그러나 이 책들은 집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다. 이 책들은 필요가 발생하는 대로 집필된 것이다.

초기의 책들은 필립스(Phillips)가 부르는 대로 “어린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이다.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등이 기독교 첫 세기 중반에 기록된 최초의 신약성경들일 것이다.

복음서들은 그 다음에 기록되었는데 마태나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 다음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순으로 기록되었다. 끝으로 아마도 1세기 끝 무렵에 계시록이 기록되었다.

5. 분류

신약성경은 내용상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역사서-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바울 서신, 공동 서신

예언서-요한계시록

이 책들에 대한 적절한 통찰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히 구비하게” 될 것이다.

많은 신자들로 하여금 바로 그런 자질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본 주석을 펴내는 우리의 바람이다.

6. 언어

신약성경은 “일상 언어”(“코이네”, 혹은 “일상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영어만큼이나 잘 알려지고 널리 사용된 1세기 당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 제2의 언어였다.

히브리어의 정감 있고 다채로운 표현법이 구약성경의 예언과 시 및 일반 해설에 꼭 알맞듯이 헬라어는 신약성경을 위해 섭리적으로 예비된 놀라운 표현 도구였다. 헬라어는 알렉산더 대제의 정복 활동을 통해 널리 보급되었으며 그의 군대는 대중을 위해 헬라어를 단순화 내지 대중화시켰다.

헬라어는 동사의 시제, 격, 어휘 및 기타 요소들의 정밀성으로 인해 서신서(특히 로마서와 같은 책)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교리적인 진리들을 표현하는데 적격이었다.

“코이네” 헬라어는 지식층을 위한 문학적인 언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속 언어”(street language)나 조악(粗惡)한 헬라어도 아니다. 신약성경의 일부분(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은 거의 문학적인 수준에 이른다. 또한 누가는 때때로 고전적인 기법을 사용하며 바울도 때로는(고전 13,15장 등)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법을 동원한다.

7. 번역

영어는 많은(아마도 너무 많은) 역본을 지니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들은 다음의 네 가지 일반적인 유형으로 분류된다.

(1) 문자적인 번역

J. N. 다비역, 영어 개정역(English Revised Version, 1881)과 그 미국판, 미국 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1901) 등의 역본은 지나치게 문자적이다. 이것은 그 역본들로 하여금 연구를 위해서는 유용하지만 예배나 공중 성경공부나 암기를 위해서는 취약하다. 흠정역(KJV)은 위의 역본들에 비해 그 위엄과 미려함이 뛰어난데 그런 까닭에 많은 그리스도인 회중들은 흠정역을 선호해 왔다.

(2) 완전 직역(Complete Equivalence)

매우 문자적이며, 영어어법이 허락할 경우 히브리어나 헬라이어 표현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동시에, 좋은 표현법이나 속어가 필요할 때는 보다 자유로운 번역을 시도한 역본들이 있는데 흠정역(KJV), 개정 표준역(RSV), 새 미국 표준 성경(NASB), 새 흠정역(NKJV) 등이 거기에 속한다. 불행히도 개정 표준역(RSV)은 신약은 대체로 믿을만 하나 구약의 경우 많은 메시아 예언들을 가볍게 다루는 과오를 범했다. 오늘날 심지어 전에는 건전했던 몇몇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위험한 경향이 엿보인다. 본 “신자 성경 주석”은 새 흠정역(NKJV)에 맞춰 편집을 했는데, 새 흠정역(NKJV)은 고어체 대명사(*thee*와 *thou*)를 사용하지 않은 채 미려한(그러나 고풍적인) 흠정역(KJV)과 현대 영어 사이에서 가장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대부분 현대어 성경에는 빠져있는 많은 동사와 단어들을 내포하고 있다(본 주석의 해설란에서 그 실례들을 볼 수 있다).

(3) 탄력적인 직역(Dynamic Equivalence)

이 유형의 번역은 완전 직역보다는 자유로운 번역으로써 때로는

독자가 그것을 인식하는 한 유효한 기술인 의역(意譯, paraphrase)을 사용한다. 모팻역, 새 영어 성경(NEB), 새 국제역 성경(NIV), 예루살렘 성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역본들은 요한과 바울이 만일 오늘날, 그것도 영어로 집필한다면 사용했을 만한 구조로 전체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시도했다. 이러한 방법론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취해질 경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4) 의역(Paraphrase)

의역이란 본문을 개념 단위로(thought by thought) 의미를 전달하는 번역 방법을 말하는데 이 번역은 종종 자료를 “추가”하는데 많은 자유를 누린다. 이것은 어휘 선택에 있어 원문을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항상 “지나치게 장황한 번역”이 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현대어 성경(Living Bible)은 복음적이긴 하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석상의 문제점들을 많이 내포한다.

J.B. 필립스의 의역본(그는 그것을 역본으로 부른다)은 문자적인 관점에서 매우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그는 거기서 베드로와 바울이 “그들의” 어휘로 의미했다고 믿는 것을 “그의” 어휘로 말하고 있다.

위의 네 유형 중 적어도 세 유형의 역본을 소유하는 것이 비교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에는 완전 직역본이 본 주석에서 제시되는 것과 같은 세세한 성경연구를 위해 가장 안전한 역본이라 믿어진다.

복음서 서론

“복음서는 모든 저작의 첫 열매이다.”-오리겐

1. 우리의 영광스런 복음서

문학을 공부하는 모든 이는 이야기, 소설, 연극, 시, 전기 등 여러 형태의 문학에 친숙해 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전혀 새로운 범주의 문학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복음서이다. 복음서는 비록 전기적(傳記的)인 요소가 강하지만 전기가 아니다. 그것은 어떤 문학작품에 나오는 이야기보다도 흥미가 뒤지지 않는 탕자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비유들을 담고 있지만 이야기가 아니다. 어떤 비유들은 소설이나 단편 이야기의 소재로 이용되기도 했다. 복음서는 분명 우리 주님의 많은 대화와 강화들에 대한 기사를 담고 있지만 역사적인 보고서가 아니다.

“복음서”는 독특한 문학적인 범주일 뿐만 아니라, 네 복음서 기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후에는 정경의 형태가 깨져버렸다. 네 복음서, 아니 그 네 가지만이 약 2천 년 간 정통 기독교인들에 의해 인정되어 왔다. 여러 이단들이 자칭 복음서라 하는 책들을 기록했으나 그것들은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교리를 퍼뜨리는 해롭기 짝이 없는 작품들이었다.

그러나 왜 4복음서인가? 왜 모세오경의 수에 맞춰 기독교 오경을 이루도록 5복음서가 되지 않았는가? 혹은 왜 반복되는 부분을 모두 생략하고 보다 많은 기적과 비유를 수록할 수 있도록 한 권의 긴 복음서가 되지 않았는가?

사실 이미 2세기경부터 이 4복음서를 “조화” 내지 한데 결합시키려는 노력이 시도되어 “디아테싸론”(4권 전체란 뜻의 헬라어)이란 작품이 나오기도 했다.

이레니우스는 사(4)가 동서남북으로 이뤄진 우주의 수이므로 그 수에 맞춰 4복음서가 존재한다고 이론을 폈다.

2. 네 상징

많은 사람, 특히 예술적인 감각을 지닌 사람들은 4복음서와, 에스겔과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상징물(사자, 소, 사람, 독수리)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상징물들은 보는 이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복음서와 비교되어 왔다.

만일 위에서 주장되는 대로 그러한 상징물들이 그런 의미를 지닌다면, 사자는 유다 지파의 사자의 왕적인 복음인 마태복음에 가장 적합할 것이고, 무거운 짐을 지는 짐승인 소는 종의 복음인 마가복음에 잘 어울릴 것이고, 사람은 인자의 복음인 누가복음을 상징하는 것임이 분명할 것이다. 그리고 “동역어, 반의어 및 전치사 표준사전”에도 표현되기를, “독수리는 드높은 영적인 환상을 상징하는 성 요한을 가리키는 상징물이다”라고 했다.¹⁾

1) James C. fernald, ed., “Emblem,” *Funk & Wagnalls Standard Handbook of Synonymy, Antonyms, and Prepositions*, P. 175

3. 네 지도력

아마 4복음서의 존재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성령께서 상이한 네 부류의 사람들(오늘날도 여전히 그렇게 분류되는 고대인의 네 부류)에게 접근하기를 원하셨다는 설명일 것이다.

모든 사람은 마태복음이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라는데 동의한다. 구약 인용문들, 상세한 강화, 우리 주님의 계보, 일반적인 썬족의 논조 등은 마태복음을 처음 대하는 독자들의 눈에도 쉽게 띈다.

아마 제국의 수도에서 집필한 듯한 마가는 로마인들과, 그리고 로마인들처럼 사고보다는 행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겨냥했다. 그의 복음서는 따라서 기적들은 많으나 비유는 적다. 이 복음서는 아무런 계보도 없는데 그것은 로마인들이 능동적인 종의 유대적인 계보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은 분명히 헬라인들과, 헬라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고 탐구하는 많은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미(美)와 인간과 문화와 문화의 가치를 사랑한다. 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준다. 헬라인과 가장 비견되는 현대인은 프랑스인인데, 누가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말한 사람이 프랑스인이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누가복음 서론 참조).

요한은 누구를 염두에 두었는가?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우주적인 복음서이다. 그것은 복음적이면서도(20:30-31), 생각이 깊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마 요한은 “제3의 인종”(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교도들이 부른 이름)을 염두에 둔 듯하다.

4. 기타 4중적인 상징들

구약에는 4복음서의 강조점들과 아름답게 일치되는 다른 4중적인 상징들이 있다.

(1) “가지”

우리 주님에 대한 칭호로 다음 문맥에서 나온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렘 23:5-6).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슥 3:8).

“...순이라 하는 사람이…”(슥 6:12).

“...여호와와의 짝이…”(사 4:2).

(2) “보라”

구약에는 복음서의 주요 주제와 꼭 일치되는 네 차례의 “보라”가 나온다.

“보라 네 왕이…”(슥 9:9).

“나의 종…을 보라”(사 42:1).

“보라…사람이…”(슥 6:12).

“너희 하나님을 보라”(사 40:9).

(3) 성막

마지막 상징물은 다소 덜 분명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끼쳐 온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성막 재료의 네 색깔도 우리 주님의 속성에 대한 복음서 기자들의 4중적인 묘사와 부합하는 듯 보

인다.

“자색”은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에 부합된다. 사사기 8:26은 이 색깔의 왕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홍색” 염료는 고대에 연지벌레를 짜서 만든 것으로 이 색깔은 “벌레요 사람이 아닌” 종(시 22:6)의 복음인 마가복음을 말해준다.

“흰색”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말해주는데(계 19:8)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강조한다.

“청색”은 우리가 하늘이라 부르는 청옥색 공창(출 24:10)을 말해주며 이것은 요한복음의 주요 주제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훌륭하게 묘사해 준다.

5. 기록된 순서와 강조점

복음서에서 우리는 사건들이 항상 발생한 순서대로 기록되지는 않았음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종 사건들을 그 도덕적인 가르침을 따라 한데 묶으셨다는 것을 처음부터 아는 것이 필요하다. 윌리엄 켈리(William Kelly)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누가복음은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순서로 엮어져 있으며, 누가는 우리 주님에 대한 사실과 주님의 대화와 질문, 답변 및 강화들을 단순히 발생한 사건 순이 아닌 그 내적인 관련성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은 사실 가장 영성하고 가장 초보적인 기록 형태이다. 반면에 사건들을 그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그 도덕적인 순서대로 한데 묶는 것은 단순한 연대기와 구분되는 역사가에게 주어지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사용하여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게 하실 수 있으셨다.”²⁾

이러한 상이한 강조점과 접근은 복음서의 다양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공관복음”(Synoptics; “같은 관점을 취하다”는 뜻)으로 불리우는 앞의 세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접근에 있어 유사하나 요한복음은 다르다. 요한은 후에 기록했으며 이미 잘 다뤄진 내용을 반복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의 복음서는 우리 주님의 생애와 말씀을 한결 회고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제시해 준다.

6. 공관복음 문제

앞의 세 복음서 간에는 왜 많은 “유사점”(심지어 비교적 긴 단락의 내용 뿐 아니라 어순까지도 거의 같을 정도로)이 있으면서 많은 “상이점”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리켜 흔히 “공관복음 문제”라 부른다. 이것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더욱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복잡한 이론들이 제시되었는데 개중에는 사본상에 아무 흔적도 없는 자료가 분실된 이론들도 있다. 어떤 것들은 누가복음 1장 1절의 기록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통주의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가능한” 이론들이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1세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화들”을 수집했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이른다. 이들 소위 “양식비평” 이론이 드러내는 모든 기독교 성경과 교회 역사에 대한 불신앙적인 면은 제쳐두고라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이론 중 어느 하나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아무 문헌상의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공관복음을 어떻게 나누고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들 사이에 아무런 의

2) William Kelly, *An Exposition of the Gospel of Luke*, P. 16

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공관복음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적절한 방법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주님의 말씀에 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에는 마태와 요한이 직접 목격한 기억들과, 교회 역사가 증거하는 대로 아마 마가(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그가 기록했다는 가정에서)의 기록도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성령계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도움에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언급된 기록된 자료들과 셈족의 놀랄 만한 정확한 “구전”(口傳)을 추가해 보라. 그러면 공관복음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한 자료들을 뛰어넘는 일체의 요긴한 진리들과 세부 사항 혹은 해석들은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직접적으로 밝혀졌을 수 있다(고전 2:13).

따라서 어떤 “명백한” 불일치나 세부적인 차이를 발견할 경우에는 “왜 ‘이’ 복음서가 ‘이’ 사건 혹은 말을 생략하거나 포함하거나 강조하는가?”라고 묻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마태는 두 사람이 치료 받은(소경과 귀신들림으로부터) 사실을 두 번 기록하는데 비해 마가와 누가는 한 사람만 언급한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모순으로 본다. 그러나 유대적인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율법이 “두세 사람의 증거”를 요구하는 까닭에 두 사람 모두를 언급한 반면에 다른 복음서들은 대표적인 인물로 “이름이 밝혀진” 사람만을(소경 바디메오) 언급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에 소개하는 실례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외관상의 중복기사가들이 사실은 중요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1) 누가복음 6장 20-23절은 산상수훈의 중복으로 보이나 사실이 교훈은 들에서 한 설교이다(눅 6:17).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강화는 왕국의 이상적인 시민의 성품을 묘사하는데 반해 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2) 누가복음 6장 40절은 마태복음 10장 24절과 동일한 말씀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인데 비해, 누가복음에서는 훈련시키는 자가 주인이고 그가 가르치는 자가 제자이다.

(3) 마태복음 7장 22절은 왕에 대한 봉사를 강조하는데 반해 누가복음 13장 25-27절은 주인과의 사귀를 묘사한다.

(4) 누가복음 15장 4-7절은 바리새인의 가시 돋친 비난인데 비해 마태복음 18장 12-13절은 자녀들과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있다.

(5) 세례 요한은 신자들만 있을 때는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고 말한 반면에(막 1:8; 요 1:33), 특히 바리새인을 포함한 혼합된 무리가 있을 때는 “그는 성령과 불(심판)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라고 말했다(마 3:11; 눅 3:16).

(6)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란 표현은 마태복음 7장 2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판단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반면에,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는 우리의 “말씀에 대한 주의력”을, 그

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우리의 “관대함”을 가리킨다.

요컨대 이러한 차이들은 모순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으로, 사려 깊은 신자에게 신령한 묵상의 소재를 제공해 준다.

7. 저자 문제

복음서(사실 모든 성경)를 누가 기록했느냐는 문제를 다룰 때는 그 증거들을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로 나눠 생각해 보는 것이 관례이다. 이러한 방법은 신약성경 27권 모두에 적용해 보는 것이 좋다. “외적인” 증거 아래서는 성경시대 가까이에 살았던 작가들(보통 2-3세기의 “교부들”과 몇몇 이단 혹은 거짓 교사들)이 검토된다. 이들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성경과 기자들에 대해 직간접적인, 혹은 특별한 언급을 해준다. 예를 들어 로마의 클레멘트는 1세기 말경에 고린도전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따라서 고린도전서는 2세기에 바울의 이름으로 조작된 가짜 서신일리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내적인” 증거 아래서는 문체, 어휘, 역사 및 내용을 통해서 어떤 책이 외부의 문헌과 저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는지 혹은 상충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문체는 저자가 식견있는 이방인 의사라는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

많은 책에는 2세기의 이단자 마르시온의 인정된 책들의 “정경” 혹은 목록이 인용되어 있다. 그는 누가복음의 기본판(strippeddown edition)과 바울 서신서 중 열 편만 인정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당시 어떤 책들이 표준이었던가에 대한 유익한 증거를 남겨 준다. 무라토리 정경(그 문서를 발견한 이탈리아인 카디널 무라토리의 이름을 따

라 명명됨)은 때때로 단편적이긴 하지만 기독교 정경에 대한 정통 목록으로 인정된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서론

“개념의 장려함에 있어, 그리고 엄청난 양의 자료들을 중대한 사상들에 복속시키는 그 위력에 있어 역사적인 주제를 다루는 신구약의 어떤 성경도 마태복음과 비교될 수 없다”-데오도르 잔.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마태복음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잇는 완전한 가교이다. 마태복음의 첫 서두는 하나님의 구약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위대한” 왕 다윗에게로 우리를 인도한다. 강한 유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 논조와 히브리어 성경을 많이 인용한 점, 그리고 신약성경의 서두에 위치한 점 등에 있어서 마태복음은 세상을 향한 기독교 메시지의 첫자리에 놓일 만하다.

마태복음은 오랫동안 4복음서의 순서상에 이 첫 자리를 차지해 왔다. 이는 최근까지 마태복음이 “기록된” 첫 번째 복음서로 보편적으로 믿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그 선명하고 질서정연한 문체로 인해 마태복음은 공중 성경강독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은 가장 인기 있는 복음서였으며, 때로는 요한복음과 그 자리를 다투기도 했다.

마태복음이 정통이 되기 위해 기록된 첫 번째 복음서였다고 믿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적인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기자

레위라고도 하는 세리 마태가 이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외적인 증거”는 그 연대가 오래고 또 널리 분포되어 있다. 그는 사도 중에 두드러진 일원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만일 그가 이 복음서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이 첫째 복음서를 그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디다케”(열두 사도의 가르침, “12사도 교훈집”으로 불리움)로 알려진 고대 문헌 외에, 저스틴 마터, 고린도의 디오니시우스, 안디옥의 데오필루스, 아테네인 아테나고라스 등이 이 복음서를 권위있는 책으로 인용한다. 교회사가(敎會史家) 유세비우스는, 파피아(Papias)가 “마태는 ‘로기아’(logia;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들)를 히브리어로 정리했으며 사람들마다 자기 능력대로 그것을 옮겼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이레니우스, 판테누스, 오리젠 등은 기본적으로 그 사실에 동의한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는 우리 주님 당시에 히브리인들에 의해 사용된 아람 방언을 뜻하는 것으로 널리 인정되며, 이 언어가 신약성경에 사용되어 있다. 그러나 “로기아”는 무엇을 말하는가? 일반적으로 이 헬라어 단어는 구약성경이 하나님의 “신탁”을 포함하듯이 “신탁”을 의미한다. 그것은 파피아가 말하는 그런 뜻일 리가 없다. 파피아의 진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다:

(1) 그것은 바로 마태의 “복음서”를 가리킨다. 즉, 마태는 특히 유

대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의 복음서의 아람어판을 기록했으며, 나중에서야 헬라이어판이 나온 것이다.

(2)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만을 가리키며, 후에 그것은 그의 복음서에 통합되게 되었다.

(3) 그것은 “예증”(例證), 즉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 구약성경을 인용한 것을 가리킨다.

견해 1과 2가 견해 3보다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마태복음의 헬라이어는 단순한 번역처럼 쓰여 있지 않다. 그러한 널리 유포된 전승(아무런 초기 반대도 없는)은 어떤 사실적인 근거를 지녀야 한다. 전승에 의하면 마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5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외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다고 한다. 아마 AD 45년경에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을 위해 아람어로 된 그의 복음서 초판(혹은 그리스도의 “강화록”)을 낸 다음 후에 “보편적인” 사용을 위해 “헬라이어” 판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 마태와 동시대 사람인 유세비우스도 그런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유대인 역사가는 그의 “유대 전쟁사”의 아람어 초판을 낸 다음 후에 헬라이어로 된 완결판을 내었다.

이 첫 번째 복음서에 대한 “내적 증거”는 구약성경을 사랑하고 주의 깊은 작가와 편집자로서의 재능을 부여받은 경건한 유대인 마태와 꼭 부합한다. 로마의 공복(公僕)으로서 마태는 그의 백성의 언어(아람어)와 당국의 언어 모두에 유능해야만 했을 것이다. (로마인은 근동에서는 라틴어가 아니라 헬리아어를 사용했다). 수효에 대한 자세한 기록, 돈에 대한 비유들, 금전적인 용어들 등 모든 것이 세리와 어울린다. 세세하고 질서정연한 문체 또한 그러하다. 비보수적인 학자인 굿스

피드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확증적인 내적 증거를 통해 이 복음서의 마태 저작권을 인정했다.

이러한 보편적인 외증 및 적절한 내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비보수적인 학자들은 세리 마태가 이 책을 기록했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거절하는데”, 그들이 그런 입장을 취하는 주요 근거는 다음 두 가지이다.

먼저, 마가복음이 “기록된” 첫 번째 복음서(오늘날 많은 곳에서 “복음 진리”로 가르쳐지는)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사도이자 목격자 되는 사람이 마가의 자료를 그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었을까? (마가복음의 93%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온다). 이에 대한 답으로 무엇보다도,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 고대의 증거는 마태복음이 첫 번째였다고 말하며,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었던 점으로 보아 그 증거가 일리 있어 보인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른바 마가복음 우위설을 받아들인다 해도(많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마태는 마가의 작품이 초대 교회 전승이 주장하듯이(마가복음 서론을 보라) 주로 마태의 동료사도인 시몬 베드로의 기억에 의존했음을 알아챘을 가능성이 있다.

이 책이 마태(혹은 다른 어떤 증인)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반박하는 두 번째 논거는 당시 상황에 대한 세세한 기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목격했다고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 마가는 자신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생동감 넘치는 기록들을 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직접 목격한 사도가 그렇게 담담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것은 세리로서의 마태의 차분하고 냉정한 성품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는 우리 주님의 강화에 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기 위해 불필요한 세부사항들을 줄였을 것이다.

이것은 마가가 먼저 기록을 했고 마태는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기억들을 좋은 자료로 간주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특히 더 그러할 것이다.

3. 연대

만일 마태가 그의 복음서(혹은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들)의 아람어 초판을 펴냈다는 널리 인정된 견해가 옳다면, 예수님의 승천 후 15년인 AD 45년이 고대 전승과 부합할 것이다. 마태는 50년 내지 55년, 혹은 그 후에 헬라어로 된 보다 완전한 정경적인 복음서를 펴냈을 것이다.

이 복음서가 예루살렘의 멸망(AD 70년) 이후에 기록되었음이 “분명하다”는 견해는 주로 그러한 미래 사건을 자세히 예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불신과, 성경의 영감성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여타 합리적인 이론들에 의존한다.

4. 배경 및 주제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젊은 청년이었다. 유대인 태생에 세관의 교육과 경력을 쌓은 그는 그리스도를 좇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러한 희생에 대한 보상 중 하나는 열두 사도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첫째 복음서로 알고 있는 책의 기자로 택함을 받는 것이었다. 마태가 레위와 동일 인물이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막 2:14; 눅 5:27).

그의 복음서에서 마태는 예수께서 오랫동안 고대하던 이스라엘

의 메시아, 즉 다윗의 위에 오를 유일한 합법적인 분임을 밝히 보여 준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완전한 해설서로 자처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분의 계보와 어린 시절로 시작하여 30세 즈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던 일로 경중 건너뛴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태는 구주의 생애와 사역 중에서 그분을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이런 뜻임)로 입증하는 측면들을 선정한다. 이 책은 절정을 향해, 즉 주 예수님의 시련과 죽음, 장사됨,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물론 그러한 절정에 인간의 구원의 기초가 놓여 있다. 그런 까닭에 이 책은 복음서로 불리운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복음서로 불리우는 것은 그것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는 구원을 가능하게 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역을 묘사하기 때문인 것이다.

본 “신자 성경 주석”은 철저한 혹은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연구와 묵상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자의 마음에 왕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뜨거운 열망을 일깨우는데 목적이 있다.

“더욱 불타는 마음으로
더욱 벅차오르는 소망으로
오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그 시간을 고대하며
그분의 불꽃같은 발아래 엎드릴
그 시간을 갈망하네!”

5. 개 요

1. 메시아-왕의 계보와 출생(1장)
2. 메시아-왕의 어린 시절(2장)
3. 메시아의 사역을 위한 준비와 메시아의 공적 출현(3-4장)
4. 왕국의 법도(5-7장)
5. 메시아의 능력과 은혜의 기적들, 그리고 그에 대한 다양한 반응(8:1-9:34)
6. 이스라엘에게 파송된 메시아-왕의 사도들(9:35-10:45)
7. 증대하는 반대와 거절(11-12장)
8. 이스라엘의 거절로 인한 왕국의 임시 형태 선언(13장)
9. 고조되는 적대감에 직면한 메시아의 다함없는 은혜(14:1-16:12)
10. 왕이 제자들을 준비시키심(16:13-17:27)
11. 왕이 제자들을 가르치심(18-20장)
12. 왕의 나타남과 거절당함(21-~23장)
13. 왕의 감람산 강화(24-25장)
14. 왕의 수난과 죽음(26-27장)
15. 왕의 승리(28장)

1. 왕의 계보와 출생(1장)

(1)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1:1-17)

신약성경을 대충 훑어본 사람은 으레 왜 그것이 족보와 같이 지루한 내용으로 시작하는지 의아해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명부에서는 중요한 교훈을 끌어낼 수 없다고 단정을 내리고 행동이 시작되는 곳으로 건너뛰기가 쉽다.

그러나 이 계보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 그것은 이어지는 모든 내용의 기초가 된다. 만일 예수께서 왕의 가문을 통한 다윗의 합법적인 후손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왕임을 증명할 수 없게 된다. 마태는 예수께서 그분의 의붓아버지인 요셉을 통해서 다윗의 위를 이을 합법적인 권리를 상속했다는 문헌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의 기사를 시작한다.

이 계보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법적인” 혈통을 추적하는데 비해, 누가복음의 계보는 다윗의 아들로서의 그분의 “직계” 혈통을 추적한다. 마태의 계보는 “왕”의 가문을 좇아 다윗에게서 다음 왕인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는데 반해, 누가의 계보는 “혈통”을 좇아 다윗에게서 그의 다른 아들인 나단으로 이어진다. 이 계보는 예수께서 그의 “입양된” 아들이신 요셉으로 끝나는데 비해, 누

가복음 3장의 계보는 예수께서 그의 “실제” 아들이신 마리아의 선조를 추적하는 듯 보인다.

1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속될 나라와 영원히 다스릴 왕가를 약속하는 무조건적인 약속을 다윗과 더불어 맺으신바 있다(시 89:4,36,37). 그 언약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분은 요셉을 통해서는 다윗의 위를 이을 합법적인 상속자요 마리아를 통해서는 다윗의 실제 후손이시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므로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그분은 다윗의 더 큰 아들이로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를 주장할 그 둘 뿐인 근거(법적인 근거와 혈통적인 근거)를 그분의 위(位) 안에서 연합시켰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므로 그러한 권리를 요구하는 다른 아무 주장자도 있을 수 없다.

1: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문구는 창세기 5장 1절의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는 표현과 유사하다. 창세기는 첫째 아담을 소개하고 마태복음은 마지막 아담을 소개한다. 첫째 아담은 첫째 혹은 물리적인 창조의 머리였고,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새로운 혹은 영적인 창조의 머리이시다.

이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란 이름을 그분을 여호와-구원자¹⁾로 제시하며, “그리스도”(기름부음 받은)란 칭호는 그분을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제시한다.

“다윗의 자손”이란 칭호는 구약의 메시아와 왕, 그 둘의 역할과 관계가 있다.

1) (1:1) “여호와”는 전통적으로 “주”로 옮겨지는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영어화된 형태이다. “예수아”라는 히브리어의 영어화된 형태가 “예수”인 점과 비교해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칭호는 우리 주님을, 히브리 백성의 선조와 맺은 약속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신 분으로 제시한다.

1:2-15 이 계보는 아브라함에서 이새까지, 다윗에서 요시아까지, 그리고 여고냐에서 요셉까지 세 역사적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부분은 다윗까지의 계보를 보여주고, 둘째 부분은 왕정기간을 망라하며, 셋째 부분은 바벨론 포로(B.C 586년) 이후에 왕의 가문이 보존된 역사를 보여준다.

이 기록에는 많은 흥미로운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밧세바)” 등 네 여인이 언급된 것을 볼 수 있다. 동양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다가 그 중 둘은 창기였고(다말과 라합), 하나는 간음을 범했고(밧세바), 그리고 또 둘은 이방인(라합과 룻)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여인들이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놀랍기만 하다. 그들이 이 마태복음의 도입부분에 포함된 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오심이 죄인들에게 구원을, 이방인에게 은혜를 가져다 줄 것과, 그분 안에서 인종과 성별의 장벽이 무너질 것임을 던지시 암시해주는 듯하다.

“여고냐”란 이름의 왕에 대한 언급 또한 흥미롭다. 예레미야 22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저주를 선포하셨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만일 예수님이 요셉의 “실제” 아들이었다면 그분은 이 저주 아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다윗의 위를 이을 권리를 상속하기

위해 요셉의 법적인 아들이 되셔야 했다. 이 문제는 동정녀 출생의 기적을 통해서 해결되었다.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는 그 위를 이을 “법적인” 상속자였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는 다윗의 “실제” 아들이셨다. 여고냐에 대한 저주는 마리아나 그녀의 자녀에게는 임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녀가 여고냐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1:16 “of whom”은 요셉과 마리아 둘다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whom”이 여성단수형이며 이는 예수께서 “요셉”이 아닌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말해준다(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음-역주). 이 계보에는 위와 같은 흥미로운 사실들 뿐만 아니라 난해한 면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1:17 마태는 각기 “14세대”로 된 세 부분이 있다는 사실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름들이 이 목록에 빠져 있음을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요람과 웃시야 사이에 (8절)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야가 왕으로 통치한 사실을 들 수 있다(왕하 8-14장; 대하 21-25장).

마태와 누가의 계보는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이란 두 이름을 언급함에 있어 중간에 이름을 빠트린 듯하다(마 1:12-13; 눅 3:27). 요셉과 마리아의 선조가 이 두 사람에게서 나타났다가 다시 분리된다는 것이 이상하다. 게다가 이 두 복음서는 에스라 3장 2절을 따라 스룹바벨을 스알디엘의 아들로 기록하는데 반해, 역대상 3장 19절에서는 그가 브다야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난점은 더욱 증가된다.

세 번째 난점은, 마태는 다윗에서 예수님에게까지 27세대를 제시

하는데 비해 누가는 42세대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비록 복음서 기자들 간에 서로 다른 족보를 개관해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세대의 수에 있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상하게 보인다.

이러한 난점과 모순처럼 보이는 면들에 대해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확고부동한 전제 위에 서야 한다. 따라서 성경은 오류를 포함할 수 없다.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반영하기 때문에 무한하다. 우리는 말씀의 근본적인 진리들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안에 내포된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요컨대, 이러한 난점들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문제는 성경의 오류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 부족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성경의 문제점들은 우리로 그 해답을 연구하고 찾도록 도전을 주어야 한다.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잠 25:2).

역사가들의 주의 깊은 연구나 고고학자들의 탐사나 모두 성경의 진술이 그릇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었다. 난점과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들은 한결같이 타당한 설명이 가능하며, 그 설명들은 영적인 의미와 유익으로 가득하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나시다(1:18-25)

1: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 계보에 언급된 어떤 출생과도 달랐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반복된 문구를 발견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인간 부친이 없는 출생에 대한 기록을 대한다. 이 기적적인 잉태를 둘러싼 사실들은 엄위하고도 단순하게

진술되어 있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나 혼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신약시대에는 약혼이 오늘날의 그것보다 구속력이 더 강했으며 이혼으로만 파기될 수 있었다. 그래서 약혼한 두 사람이 혼인예식을 치를 때까지 같이 기거하지 않았다 해도 어느 한 편이 그 약속에 충실하지 않으면 간음으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약혼 기간에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의 기적을 통해 잉태하게 되었다. 천사가 일찍이 이 신비로운 사건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눅 1:35). 의문과 추문의 구름이 마리아를 덮었다. 인간 역사상 처녀 출생이란 것은 없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면 거기에는 한 가지 설명만이 가능했다.

1:19 “요셉”도 아직 마리아의 일의 진상을 알지 못했다. 그는 두 가지 면에서 그의 약혼녀에게 분개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그녀가 그에게 충실하지 못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비록 그녀가 아무 잘못이 없다 해도 그 자신이 그 일에 연루된 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에 대한 사랑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바램에서 조용히 이혼함으로써 약혼을 파기하기로 작정했다. 그는 그 불미스런 일을 공개적으로 처리하기를 원치 않았다.

1:20 이 인자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마리아를 보호할 생각에 잠겼을 때 “주의 사자가 꿈에 그에게 나타났다.” “다윗의 자손 요셉

아”라는 인사말은 그의 왕적인 계보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왕의 비범한 출현에 대비하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는 “마리아”와 결혼하는데 대해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순결에 관한 어떤 의문도 사실무근이었다. 그녀의 잉태는 “성령”의 기적이었다.

1:21 천사는 이어서 태어날 아이의 성별, 이름 및 사명을 알려주었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예수”(‘여호와’는 구원이다, 혹은 ‘여호와’, ‘구원자’란 뜻)라 해야 했다. 그의 이름에 부합하게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운명 지어진 아이는 죄의 형벌과 죄의 세력과 결국에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찾아오시는 여호와 자신이었다.

1:22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밝아왔음을 깨달았다. 오랫동안 동면(冬眠)을 취하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이제 소생함을 입었다. 이사야의 비밀스런 예언이 이제 마리아의 아이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의 영감성을 주장했는데,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적어도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었다.

1:23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은 아이의 독특한 출생(“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의 성(性,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이의 이름(“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등에 대한 예언을 포함했다. 마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란 뜻이란 설명을 덧붙인다. 그리스

도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은 “임마누엘”로 불리운 기록이 전혀 없다. 그분은 항상 “예수”로 불리었다. 그러나 “예수”란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란 뜻을 암시한다. 임마누엘은 또한 그분의 재림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사용될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일 수도 있다.

1:24 천사가 그 일에 개입한 결과 요셉은 마리아와 이혼하려는 계획을 포기했다. 그는 예수께서 출생할 때까지 그들의 약혼관계를 지키다가 그 후에 그녀와 혼인을 했다.

1:25 마리아가 평생 동안 처녀로 지냈다는 가르침은 그들의 혼인성사를 언급하는 본절에 의해 기각된다. 마리아가 요셉을 통해 아이를 가졌음을 암시하는 구절은 이밖에 여러 군데가 있다(마 12:46; 13: 55-56; 막 6:3; 요 7:3,5; 행 1:14; 고전 9:5; 갈 1:19).

마리아를 아내로 취함으로써 요셉은 그녀의 아이도 그의 양자로 취했다. 이것이 예수께서 다윗의 위를 이을 법적인 상속자가 되신 경위이다. 그는 천사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왕께서 태어나셨다. 영원하신 분께서 시간 안에 들어오셨다. 전능하신 분께서 유약한 아이가 되셨다. 영광의 주께서 인간의 몸 안에 그 영광을 가리우셨으며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골 2:9).

2.

메시아-왕의 어린 시절(2장)

(1) 박사들이 왕께 경배하러 오다(2:1-12)

2:1-1 그리스도의 출생을 둘러싼 사건들은 그 연대에 있어 혼동을 일으키기가 쉽다. 1절을 보면 헤롯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처럼 생각되기 쉬운데, 사실 자료를 종합해 보면 그 때가 예수께서 출생한 1-2년 후임을 알 수 있다. 마태는 11절에서 박사들이 집에서 아기를 보았다고 말한다. 두 살 아래 되는 모든 사내아이를 죽이라는 헤롯의 명령도(16절) 왕이 출생한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음을 암시해 준다.

헤롯 대왕은 예서의 후손이었고 따라서 유대인의 전통적인 대적이었다. 그는 유대교로 개종했으나 그의 개종은 정치적인 동기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것은 헤롯 통치 말엽이었다. 이 박사들은 자연물을 중심으로 의식을 행하던 이교 사제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해박한 지식과 예언능력 까닭에 종종 왕의 모사로 선임되었다. 우리는 그들이 동방 어디 출신이며 몇 명이며 얼마나 긴 여행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어쨌든 그들은 “동방의 별”을 보고 한 “왕”의 출생을 간파하고

“그에게 경배하러 온” 것이다. 아마 그들은 메시야의 출현에 관한 구약 예언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발람의 예언(민 24:17)을 숙지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초림 시기를 예고한 70이레의 예언(단 9:24-25)과 연관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초자연적으로 그러한 지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 별을 해명하기 위해 여러 과학적인 설명이 제시되었다. 가령 어떤 이들은 그것이 행성의 결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별의 행로는 매우 불규칙했다. 즉, 그 별은 박사들 앞서 진행하다가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계시던 집으로 인도한 다음(9절) 그 자리에 멈추었다. 사실 그것은 너무 비범한 사건이기에 기적으로 밖에는 달리 설명될 수 없다.

2:3 헤롯왕은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소동했다.” 그러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의 불안한 통치의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온 예루살렘”이 그와 더불어 “소동했다.” 그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도성이 혼란스런 상황을 야기시키거나, 저 증오하는 로마 통치자들의 심기를 자극할 만한 일로 인해 당황해 했다.

2:4-6 헤롯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보았다. “대제사장들”은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그리고 아마도 그의 집의 다른 가족들)을 가리키며, “백성의 서기관들”은 모세 율법에 정통한 일부 평민들을 가리킨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쳤으며 산헤드린 공회의 판관으로 봉직했다.

이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왕의 출생지로 “유다 베들레헴”을 지칭한 미가 5장 2절을 신속하게 인용했다. 그 미가서 본문에 의하면 그 도성을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지칭했다. 팔레스타인에는 베들레헴이란 마을이 두 곳 이상이었으므로 유다 지경 내의 에브라다에 위치한 베들레헴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2:7-8 헤롯왕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물었다. 이러한 은밀함은 그의 잔혹한 동기를 반증해 주었다. 그는 자신이 그 아기가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는 얻고자 했다. 그는 본심을 숨긴 채 박사들을 가던 길로 보내며 일의 결과를 나중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2:9 박사들이 다시 길을 떠나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 이것은 그 별이 동방에서부터 내내 그들을 인도하지는 않았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제 그 별은 그들을 “아기 있는” 집으로 인도했다.

2:10 박사들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 지방인들은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찾은 반면에, 헤롯은 그분을 죽이려 모의했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직은) 무관심했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소동했다. 이러한 일련의 태도들은 메시아가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표들이었다.

2:11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값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이 예수께서 그 모친과 함께 계신 것을 보았다는 표현을 주목하라. 일반적으로는 모친이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아기가 언급되어야 하나 이 아기는 특별하여 첫 자리에 와야 했다(13,14,20절 참조). 박사들은 마리아나 요셉이 아닌 예수께 경배했다. (요셉은 여기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는 곧 이 복음서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이는 마리아나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들은 중요한 사실들을 일깨워 준다. “황금”은 신성과 영광의 상징으로써 주님의 거룩한 위(位)의 찬란한 온전함을 말해준다. “유향”은 기름이나 향료를 가리키며 무죄한 온전한 삶의 향기를 말해준다. “몰약”은 쓴 식물로써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실 때 감당하실 고난을 예시해 준다.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져온 것은 이사야 60장 6절의 표현을 상기시킨다. 이사야는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메시아에게 나올 것을 예언했으나 금과 유향 둘만을 언급했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왜 몰약이 빠졌는가? 그것은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재림, 즉 그분의 권능과 큰 영광중의 오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에는 그분께서 고난을 당하시지 않을 것이므로 몰약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에는 그분의 초림을 말하는 까닭에 몰약이 포함되어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하는 반면에 이 이사야 구절에서는 다가올 영광들을 대하게 된다.

2:12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다른 길을 이용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

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같은 길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분과의 진실한 만남은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2)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다(2:13-15)

2:13-14 유아기 때부터 우리 주님에게는 죽음의 위협이 덮쳐왔다. 분명 그분은 죽기 위해 나셨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일이 끝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했다. 헤롯이 “찾아 죽이려고” 곧 들이닥칠 상황이었다. 그의 가족은 헤롯의 진노를 피하는 피난민이 되었다. 그들이 애굽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헤롯의 죽음은 그들이 고국에 돌아올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2:15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구약 예언이 새로운 의미로 덧입혀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일찌기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고 말씀하신바 있었다(호 11:1). 그 말씀이 증거되던 상황에서는 이것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일을 가리켰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했는데, 사실 메시아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애 안에서 성취되었다.

주님께서 의로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애굽은 천년왕국의

축복들에 참여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다(사 19:21-25; 습 3:9-10; 시 68:31).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대적인 그 민족이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가? 그것은 애굽이 주 예수님께 피난처를 제공해준데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 아닐는지?

(3) 헤롯이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학살하다(2:16-18)

2:16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헤롯은 그 어린 왕이 있는 곳을 알려진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신이 “속은 줄을” 깨달았다. 이성을 잃은 상태로 그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두 살 아래의 사내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을 내렸다. 죽임당한 아이들의 수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학자는 26명 정도로 추정한다. 아마 수백 명에 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17-18 유아 살해가 불러온 “통곡소리”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을 성취시켰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렘 31:15).

이 예언에서 “라헬”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슬픔은 “라마”(유아 살육이 일어난 베들레헴 근처)에서 문힌 라헬에 기인한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그녀의 무덤을 지날 때 그녀는 그들과 함께 “애곡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헤롯은 이 어린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통해서 악행의 계보에 불명예스레 오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4) 요셉, 마리아, 예수님의 나사렛 정착(2:19-23)

2:19-23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제 돌아가도 된다고 일러주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이르자 헤롯의 아들 “아겔라오”가 부친을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요셉은 유대로 들어가기를 꺼려했으며,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북방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에 정착했다.

본장에서 네 번째로 마태는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는 “선지자들”(영어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음-역주)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다만 그들이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예언한 사실만을 밝힌다. 구약의 어떤 구절도 이렇게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많은 학자들은 마태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한 이사야 11장 1절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싹”으로 옮겨진 히브리어 단어는 “네제르”인데 이것은 본문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보다 한결 가능한 설명은, 다른 백성들에게 경멸을 받던 나사렛 마을에 거하는 사람을 묘사하는데 “나사렛 사람”이란 칭호가 쓰였다는 것이다.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격언적인 질문을 통해 이 사실을 표현한다(요 1:46). 이 “중요치 않은” 마을에게 쏟아 부어진 경멸이 그 거민들에게도 부어졌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23절의 의미는 그분이 경멸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비록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칭하리라는 예언은 발견할 수 없지만 그분이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바” 될 것이라는 예언은 발견할 수 있다(사 53:3). 또 다른 예언은 그분이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휘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

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시 22:6). 선지자들이 비록 정확한 표현은 쓰지 않았으나 여러 예언들에는 바로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에게 그러한 능욕의 칭호가 주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분을 좇는 사람들은 그분의 능욕에 동참할 특권이 주어져 있다(히 13:13).

3. 메시아의 사역을 위한 준비와 그분의 출현(3-4장)

(1) 세레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다(3:1-12)

2장과 3장 사이에는 마태가 언급하지 않은 28-29년의 공백 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나사렛에 거하시며 장래의 사역을 준비하셨다. 그 기간은 그분께서 아무 기적도 보이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기쁨을 발견하신 기간이었다(마 3:17). 본장에서 우리는 그분의 공사역의 시발점에 이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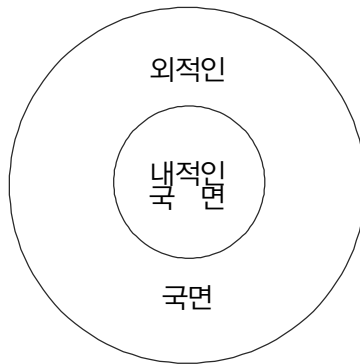
3:1-2 세레 요한은 그의 사촌 형제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눅 1:26,36). 그는 이스라엘의 왕을 위한 선구자 역할을 하기 위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 그의 일터는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에 이르는 건조지역인 “유대 광야”였다.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었다. 왕이 곧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를 고집하는 자들은 다스릴 수도 없고 또 다스리려 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백성들은 그들의 길을 돌이키고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두움의 나라에서 “하늘나라”로 부르고 계셨다.

☞ 천국

2절에서 우리는 천국이란 문구가 처음 언급된 것을 대하는데 이 문구는 마태복음에서 32회 사용되었다. 이 개념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마태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영역을 말한다. “하늘”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이것은 다니엘 4:25에 나타나 있는데 거기서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나라를 다스리신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는 “하늘”(난하주 참조—역주)이 다스린다고 말한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곳마다 거기에 천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천국에는 두 국면이 있다. 천국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이를 포함하며, 좁은 의미로는 진실로 “구원받은” 자들만 포함한다.



큰 원은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의 영역으로 여기에는 왕의 참된 종들만 포함될 뿐 아니라 그분께 입술로만 충성을 고백하는 자들도

포함된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마 13:3-9), 겨자씨(마 13:31-32), 누룩(마 13:33)의 비유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작은 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만을 포함한다. 그 내적인 국면상의 천국은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마 18:3).

성경에 나오는 그 나라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그 역사적인 발전상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단계로 추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그 나라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다.” 다니엘은 멸망하지도 않고 그 주권을 다른 백성에게 넘겨주지도 않을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했다(단 2:44). 또한 그는 우주적이고 영원한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견했다(단 7:13-14; 렘 23:5-6 참조).

둘째로, 그 나라는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열 두 제자에 의해 “임박한” 것으로 묘사되었다(마 3:2; 4:17; 10:7).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 나라는 왕의 위(位) 안에 존재했다.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란 표현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

셋째로, 그 나라는 “임시적인”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절을 당하신 후에 하늘로 돌아가셨다. 왕국은 현재 왕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는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포함해서 왕국의 도덕적, 윤리적 원칙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 왕국의 임시적

인 국면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묘사되어 있다.

왕국의 네 번째 국면은 왕국의 “현시”(顯示)로 불리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 미래 통치의 영광중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변화에 의해 묘사된 그리스도의 천년 지상통치이다(마 17:1-8).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고 하신 것이 이 국면을 가리킨 말씀이다.

왕국의 마지막 형태는 “영원한” 왕국일 것이다. 그것은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묘사되어 있다.

“천국”이란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만 발견되나 “하나님의 나라”란 표현은 4복음서 모두에서 발견된다. 실질적인 면에서는 이 둘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으며 동일한 사실들이 그 둘에 대해 동일하게 언급된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10:23)과 누가복음(18:24)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 사실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한다(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여 유사한 적언을 하시는 대목도 살펴보라.)

우리는 앞서 천국이 외적인 면과 내적인 실재가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우에도 같은 사실이 적용된다는 것은 그 두 용어가 같은 것을 가리킨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참 것과 거짓 것을 포함한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눅 8:4-10), 겨자씨(눅 13:18-19), 누룩(13:20)의 비유에 나타나 있다. 그 진정한, 내적인 실재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요 3:3,5).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는 왕국은 교회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시작된 반면에, 교회는 오순절 날에 시작되었다(행 2장). 왕국은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이 땅에 존속할 것이나 교회는 휴거(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 이뤄지는, 교회가 이 땅에서 끌어올려지는 사건-살전 4:13-18)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신랑 되신 그분과 함께 다스리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할 것이다. 현재에 그 진정하고 내적인 실재에 있어서의 왕국 안에 있는 자들은 또한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

3:3 마태복음 3장의 주해로 돌아와서, 세례 요한의 예비적인 사역은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 예언되었음을 주목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40:3).

세례 요한이 “그 소리”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말해서 건조하고 황량한 “광야”였다. 요한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버림으로써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완전한 지배권을 방해할 만한 것들을 그들의 삶에서 제거함으로써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백성들에게 촉구했다.

3:4 세례 요한의 옷은 “약대털”(오늘날과 같은 부드럽고 값진 털이 아니라 거칠고 역센 털)로 만들어졌다. 그것은 엘리야의 옷과 동일했으며(왕하 1:8), 아마 요한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 간의 유사성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일깨워 주는데 기여했을 것이다(말 4:5; 눅 1:17; 마 11:14;

17:10-12).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사명에 깊이 사로잡힌 나머지 일상적인 안락과 즐거움마저 멀리 했음을 보여준다.

요한(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구하며 사는 것들을 일절 돌아보지 않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분명 도전과 찢림을 받는 경험이었을 것이다. 영적인 실재들로 충만한 그의 모습은 사람들로 자신의 영적인 빈곤을 절감하게 했을 것이다. 그의 철저한 자기부인의 본은 그 당시의 세속성을 신랄히 꾸짖었다.

3:5-6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동편으로부터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들으러 몰려들었다. 어떤 이들은 그의 메시지에 반응하여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장차 올 왕에게 온전한 충성과 복종을 나타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3:7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얘기가 달랐다. 그들이 그의 메시지를 들으러 오자 요한은 그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들의 진정한 속성을 알았다. 즉,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헌신을 고백했으나 내면적으로는 부패하고 분파적이고 위선적이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사두개인들”은 사회적으로 귀족계층으로서 몸의 부활, 천사의 존재, 영혼의 불멸성, 영원한 심판 등과 같은 근본적인 교리들을 부인하는 종교적인 회의론자들이었다. 따라서 그는 그 두 분파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는 체하지만 실상은 진정한 회개의 아무 징표도 보여주지 않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했다.

3:8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들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라고 그들에게 도전했다. “약간의 눈물과 후회와 두려움의 눈빛만으로는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가 누워치고 있는 죄를 떠나서 새롭고 깨끗한 거룩함의 길로 행해야 한다”고 J. R. 밀러는 말한다.

3:9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됨을 천국 통행권으로 간주하기를 멈춰야 한다. 구원의 은혜는 자연적인 출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접근 방법보다 덜 잘못된 방법을 통해 요단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셨다.

3:10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 곧 시작될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 땅에 계심이 모든 사람을 시험할 것이다. 열매 없는 자들로 발견된 자들은 열매 없는 나무가 “찍어 불에 던져”지듯이 멸망에 처할 것이다.

3:11-12 7-10절에서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만 말했으나(7절을 보라) 이제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포함한 모든 청중에게 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는 자신의 사역과 곧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었는데, “물”은 의식적인 것으로 아무 정화력이 없었으며 “회개” 역시 진실한 것이라 해도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요한은 그의 사역을 예비적이고 부분적인 것으로 보았다. 메시아는 요한을 완전히 압도할 것이다. 그분은 “능력이 더 많고”

보다 뛰어나며, 그분의 사역은 훨씬 영향력이 커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 세례”는 “불세례”와 구분된다. 전자는 축복의 세례이나 후자는 심판의 세례이다. 전자는 오순절에 일어났으나 후자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다. 전자는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 의해 경험되나 후자는 모든 불신자들의 운명이 될 것이다. 전자는 그 세례가 내적인 회개에 대한 외적인 증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나, 후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진정한 회개의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다.

어떤 이들은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동일한 사건이라고 가르친다. 그들은 불세례가 오순절 성령 강림시에 나타난 불의 혀를 가리킨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불과 심판을 동일시하는 12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요한은 불세례를 언급한 직후에 심판에 대해 말한다. 주님께서 키를 사용하여 곡식을 타작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알곡”(참 신자들은) 그대로 남아 “곳간에” 옮겨지고, “쭉정이”(불신자들은) 바람에 저만치 날린 다음에 한데 모여져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 12절의 불은 심판을 의미하고 이 12절은 11절의 연장이므로 불세례는 심판의 세례를 가리킨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2)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다(3:13-17)

3:13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약 60마일을 내려오셨다. 이것은 그분이 이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보여주는 한편, 오늘날 그분의 제자들에게 세례가

지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3:14-15 예수께서 아무 회개할 죄가 없음을 알고 요한은 그분께 세례 베풀기를 꺼려했다. 그는 참된 본성에 자극되어 예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주시는 것이 합당한 순서라고 제안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견해를 부인하지 않고 다만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합당한” 방법이므로 세례를 베풀라고 재차 요구하셨다. 그분은 세례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느끼셨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분에게 있어 세례는 그분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충족시킬 방법을 상징하는 하나의 의식이었다.

그분의 침수는 그분께서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물에 잠길 것을 나타내 주었다. 그분의 물에서 나오심은 그분의 부활을 예표했다.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요구들을 만족시키고 죄인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의로운 근거를 제공해 주실 것이다.

3:16-17 물에서 올라오시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셨다. 구약의 사람과 사물이 “거룩한 기름부음”에 의해서 거룩한 목적에 바쳐졌듯이(출 30:25-30) 그분은 성령에 의해 메시아로 기름부음을 받았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 전체가 나타나신 지극히 엄위한 사건이었다. “사랑하는 아들”께서 거기 계셨다. “성령”께서 비둘기 형태로 거기

계셨다.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축복을 선포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다. 그것은 기념할 만한 사건이었는데 이는 성경을 인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시 2:7) 내 기뻐하는 자라(사 42:1).”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기쁨으로 인정하면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세 경우 중 하나이다(다른 두 곳은 마태복음 17:5과 요한복음 12:28).

(3) 예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다(4:1-11)

4:1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왜 성령께서 그분을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셨을까? 그 답인즉, 이 시험은 그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인 그 일을 행하기에 도덕적으로 적합하시다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첫째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적을 만났을 때 그를 이기는데 부적합했음을 드러내었다. 여기 마지막 아담께서 사단과 정면으로 대면하여 아무 상처도 입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시험하다” 혹은 “유혹하다”로 옮겨진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시험’ 혹은 ‘증명하다’는 뜻이고(요 6:6; 고후 13:5; 히 11:17) 하나는 ‘죄를 짓도록 유인하다’는 뜻이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시험 혹은 증명하셨으나 사단은 악을 행하도록 그분을 유인하고자 했다.

우리 주님의 시험에는 깊은 신비가 담겨 있다. “그분께서 죄를 범하실 수 있었겠는가?” 만일 “범하실 수 없었다”고 답한다면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한 시험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다음 질문을 받게 된다. 반면에 “범하실 수 있었다”고 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죄를 범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죄를 범하실 수 없음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그분은 또한 인간이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죄를 범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 없이 논리를 펴는 것이다. 신약의 기자들은 여러 대목에서 그리스도의 무죄성에 대해 기록했다. 바울은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고 했으며(고후 3:21) 베드로는 그분이 “죄를 범치 않으셨다”(벧전 2:22), 그리고 요한은 “그에게는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한다(요일 3:5).

우리와 같이 예수님은 외부로부터 시험을 받을 수 있으셨다.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제안을 가지고 그분께로 왔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그분은 내부로부터는 시험을 받을 수 없으셨다. 그분 안에는 어떤 죄악 된 욕망이나 정욕이 일어날 수 없었다. 더더욱 그분 안에는 사단의 유혹에 반응할 아무것도 없었다(요 14:30).

예수께서 이렇듯 죄를 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매우 실제적이었다. 그분이 죄의 유혹에 직면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그분이 그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분은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본 것만을 행할 수 있었으며(요 5:19) 그분이 아버지께서 죄를 범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분은 그 자신의 권위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으며(요 5:30) 아버지께서는 그분에게 시험에 굴복할 권위를 허락하실 리 만무했다.

이 시험의 목적은 그분이 죄를 범하실지 여부를 알아보는데 있지 않고 극심한 압박 아래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음을 드러내는데 있었다.

만일 예수께서 한 인간으로서 죄를 범할 수 있으셨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여전히 하늘에서 한 인간으로 계신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분이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당치도 않는 말이다.

4:2-3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굶주리셨다. (성경에서 40이란 수는 종종 시험 혹은 증명과 관련된 문맥에서 사용된다.) 이 자연적인 욕구가 “시험하는 자”에게, 그 자신이 많은 사람에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는 예수께서 그 기적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광야의 “돌들”로 “떡”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란 조건문은 의심을 내포하지 않는다. 사단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아버지께서 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말씀을 던지시 비추고 있다. 그는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하는 헬라이어 구조를 사용하여²⁾, 그 능력을 행사하여 굶주림을 채우라고 예수께 요청한다.

사단의 독촉에 순응하여,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자연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불순종이다. 사단의 제안 뒤에 숨은 동기는 창세기 3장 6절의 그것이다(“먹음직도 하고”). 요한은 이러한 유혹을 “육신의 정욕”으로 분류한다(요일 2:16). 이에 상응하는 현대의 시험으로는 자연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기보다 인락한 삶을 선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사단은 말한다. “당신은 살아가야 해, 그렇지 않은가?”

2) (4:2,3) “에이”(ei)를 직설법 동사형과 함께 사용했다. 이것은 “만일, 나는 인정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혹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라고 풀어 쓸 수 있다.

4:4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에 대답하셨다. 우리 주님의 본은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떡을 얻는 것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돌로 떡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은바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굶주림이 심하다 해도 그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또 그로써 사단에게 복종하려 하시지 않았다.

4:5-6 두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일어났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놀랍게 입증하는 일로 아래로 떨어져 보라고 예수께 도전했다. 다시금 “만일”이란 말은 의심을 내포하지 않는데, 이는 시편 91편 11-12절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약속하신 보호를 사단이 인용한데서 알 수 있다.

이 시험은 놀라운 묘기를 선보임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었다. 그분은 고난 없이 영광을 성취할 수 있으셨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나치고 왕위에 도달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었다. 요한은 이러한 호소를 “이생의 자랑”이라고 묘사한다(요일 2:16). 그것은 에덴동산에 있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를 닮았는데(창 3:6),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개인의 영광을 성취하는 수단이었다. 이러한 시험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떠나 종교적인 명성을 얻으려는 욕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큰일을 추구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달아나고 숨어버린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 자신을 높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

4:7 다시 한 번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여 적의 공격에 대항하셨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신 6:16)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호하겠다고 일찍이 약속하셨지만 그러한 보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전제로 했다. 불순종의 행위를 보이면서 약속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나타나실 때가 올 것이나 그러나 십자가가 먼저 와야 한다. 희생 제단이 왕위에 앞서야 한다. 가시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에 앞서야 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셨다.

4:8-9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제안했다. 이 시험은 비록 “경배”(혹은 “예배”), 즉 영혼의 연단과 관계가 있었지만 그것은 사단에게 경배함으로 온 세상을 장악해 보라는 유인책이었다. 그 보상으로 제안된 “천하만국”은 “안목의 정욕”에 호소했다(요일 2:16).

어떤 의미에서 세상 나라들은 현재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는 “이 세상 신”으로 불리우며(고후 4:4), 요한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말해준다(요일 5:19). 예수께서 재림시에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실 때(계 19:6) 그 때 “이 세상 나라들”은 그분의 것이 된다(계 11:15).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범하기를 원치 않으셨으며 사단에게 경배하기를 결코 원치 않으셨다!

우리에게 이 시험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세상 헛된 영광을 위해 우리의 영적인 생득권을 파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4:10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을 인용하여 시험에 대항하셨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와 경배에서 흘러나오는 섬김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다.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은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등하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시험의 순서는 누가복음의 그것(4:1-13)과 다르다.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의 순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직면한 시험들의 순서(출 16,17,32장)에 맞춘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수님은 시련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셨다.

4:11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물리치시자 마귀가 그분을 떠나갔다. 시험은 조용히 찾아오기보다는 격랑 이는 물결처럼 거세게 몰아쳐온다. “적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 여호와와 신이 적을 향해 군기를 세우실 것이라”(사 59:19, 영어성경의 표현임-역주). 하나님의 시험받는 성도들에게 이 얼마나 놀라운 격려의 말씀인지!

여기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초자연적인 조력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다. 아마 그것은 그분께서 사단에게서 받기를 거절하신 그 물질적인 도움을 천사들이 그분께 제공한 것을 가리킬 것이다.

예수님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마귀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하는 자들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4)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다(4:12-17)

거의 1년간 지속된 예수님의 유대 사역은 마태에 의해서는 논의

되지 않았다. 그 1년의 기간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마태복음 4장 11절과 12절 사이에 해당한다. 마태는 우리를 시험에서 곧바로 갈릴리 사역으로 인도한다.

4:12 세레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은 그것이 그 자신이 거절당할 것에 대한 하나의 징조임을 간파하셨다. 왕의 선구자를 거절함으로써 백성들은 모든 실질적인 의미에서 왕 또한 거절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분을 북쪽 갈릴리로 쫓아낸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사실 그분은 방금 요한을 옥에 가둔 그 왕인 헤롯의 왕국 핵심부로 향하고 계셨다. 이방인의 갈릴리로 향하시면서 그분은 유대인에 의한 그분의 거절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보여주고 계셨다.

4:13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한 까닭에 백성들이 그분을 죽이려 할 때까지(눅 4:16-30) 나사렛에 머물러 계셨다. 이어서 그분은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그곳은 본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경이었다. 이때부터 가버나움이 그분의 거처가 되었다.

4:14-16 예수님의 갈릴리 이주는 이사야 9장 1-2절의 성취였다. 갈릴리에 사는 무지하고 미신적인 이방인들이 큰 빛(세상의 빛인 그리스도)을 보았다.

4:17 이때부터 예수님은 요한이 전파한 메시지를 떠맡으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은 그분의 나라를 대비하여

도덕적인 소생을 호소한 것이었다. 왕이 임하셨다는 의미에서 그 나라가 임박했던 것이다.

(5) 예수께서 네 어부를 부르시다(4:18-22)

4:18-19 이것은 사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두 번째 경우이다. 요한복음 1장 35-42절에서 그들은 구원의 초청을 받았으나 여기서는 봉사의 초청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초청은 유대에서 있었고 두 번째 초청은 갈릴리에서 있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 그들의 책임은 그리스도를 좇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분의 책임은 그들을 성공적인 어부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좇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상을 의미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것을 포함했다. 그들의 사역은 성품의 사역이 되어야 했다. 그들의 성품이 그들의 말이나 일보다 더 중요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경우처럼 우리는 유창함, 개성, 언변 등으로 참된 영성을 대치하려는 유혹을 피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좇는 과정에서 제자는 고기가 있는 곳을 찾고 알맞은 미끼를 사용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오래 참는 법을 배운다.

4:20 베드로와 안드레는 초청을 듣고 즉시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진실한 믿음으로 그들의 그물을 버렸다. 그리고 진실한 헌신과 의뢰 가운데 예수님을 좇았다.

4:21-22 그리고 초청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어졌다. 그들도

즉시로 제자가 되었다. 그들은 생계수단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친도 버려둠으로써 예수께서 지상의 모든 얽매는 것에 우선함을 인정했다.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함으로써 이들 어부들은 세계 복음화에 있어 주요 인물들이 되었다. 만일 그들이 그물 곁에 머물러 있었다면 결코 우리는 그들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6) 예수께서 허다한 무리를 고치시다(4:23-25)

주 예수님의 사역은 삼중적이었다. 즉, 그분은 “회당에서” 하나님 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신 한 가지 목적은 그분의 영광과 사역을 입증하는 것이었다(히 2:3-4). 5-7장은 그분의 가르침 사역의 실례이며 8-9장은 그분의 기적을 묘사해 준다.

4:23 신약에서 “복음”이란 말이 처음 사용된 구절이다. 이 단어는 “구원의 좋은 소식”이란 뜻이다. 세계 역사상 오직 하나의 복음만이, 하나의 구원 방법만이 존재한다.

☐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원을 둔다(엡 2:8).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영생을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다(고전 15:1-4). 우리

구주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사 하나님께서 믿는 죄인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게 하셨다. 구약의 신자들은 그것이 미래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 그들은 메시아에 관해 많이 알지 못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치를 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키셨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외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그 사역이 이미 완성되었다.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진다(엡 2:8).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이 시대에는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신 그분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요일 5:11-12).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이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그러했듯이(히 11:10,14-16)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후 5:6-10).

복음은 오직 하나뿐인 반면에 각 시대마다 복음의 여러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왕국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간에는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 왕국복음은 “회개하고 메시아를 영접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 그것에 세워질 때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비해, 은혜의 복음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하면 그분을 만나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 휴거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둘은 근본적으로는 같은 복음(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세대적인 목적에 따라 복음을 달리 적용시킨 것이다.

예수께서 왕국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그분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을 선언하고 자신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설

명하신 것이다. 그분의 기적은 왕국의 건강한 성격을 보여주었다.³⁾



4:24-25 그분의 명성이 온 수리아(이스라엘 북부 및 북동부 지역)에 퍼졌다. 모든 병든 자와 귀신들린 자들이 그분께 고침을 받았다. 갈릴리와 데기볼리(북동부 팔레스타인에 있는 열개의 이방인 성읍의 연맹체), 예루살렘, 유대 및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이 그분께로 모여들었다. B. B. 워필드의 기록대로 “얼마 동안은 그 지역에서 질병과 죽음이 거의 제거되었음이 분명하다.” 대중은 갈릴리에서 전해지는 소식에 몹시 놀랐을 것이다.

3) “세대”는 관리 혹은 청지기직을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어느 특별한 때에 인류를 다루는데 사용하시는 방법을 묘사한다. 그 단어 자체는 시간상의 기간을 의미하지 않고 어느 시대 동안의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한다. 레이건 행정부라는 표현을 그와 유사한 경우로 들 수 있는데 그 말은 레이건 대통령이 그의 재임 기간에 추구한 정책들을 가리킨다.

4. 왕국의 규범(5-7장)

산상수훈이 신약성경 서두 부근에 위치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위치는 그 중요성을 암시한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왕은 자신의 신복들에게 기대하는 성품과 행동을 요약해 보인다.

이 설교는 구원의 계획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며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을 위한 가르침도 아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전해졌으며 (5:1-2), 그분의 통치 동안 왕의 신복들을 다스릴 법 제도로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것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직접 적용되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스리는 동안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끝으로 대환난과 그분의 지상통치 동안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행동강령이 될 것이다.

이 설교는 공회(즉, 산헤드린 공회-5:22), 제단(5:23-24), 예루살렘(5:35) 등에 대한 언급으로 보아 분명히 유대적인 분위기를 띤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과거나 미래의 믿는 이스라엘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1) 8복 강화(5:1-12)

5:1-2 이 설교는 8복 강화(the Beatitudes)로 시작된다. 이 강화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이상적인 시민상(象)을 묘사해 준다. 여기에 묘사되고 인정된 자질들은 세상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자질들과 정반대된다. A. W. 토저는 이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인간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인간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보여주려면, 이 8복 강화의 내용을 거꾸로 설명해 주면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면 될 것이다.”

5:3 이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었다. 이것은 자연적인 성향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도적인 선택과 훈련을 가리킨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의식하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공급되는 것을 발견한다. “천국”(자기만족이나 자기 과시가 인정받을 여지가 없는 곳)은 그러한 자들의 것이다.

5: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는 위로의 날이 그들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삶의 애환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주 예수님과과의 사귄으로 인해 겪는 슬픔이다. 그것은 세상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나눠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만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된 상태와 구주를 거절하는 모습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거절하는 자들이 처할 운명에 대한 슬픔을 포함한다.

이들 애통하는 자들은 장차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그 날에(계 21:4)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은 모든 슬픔이 이생에 국한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현재의 슬픔이 영원한 슬픔의 전조에 불과하다.

5:5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에게 선포된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본성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거칠고 난폭하고 쉽게 흥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취함으로써 “온유하게” 혹은 인자하게 된다(마 11:29). 온유하다는 것은 낮은 위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나 다른 이들을 방어해 주는 데는 사자 같을지라도 자기 일에는 부드럽고 유순하다. 온유한 자는 현재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 대신 박대와 탈취를 당한다. 그러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평화와 번영 가운데 천년 동안 다스리실 때는 문자 그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5:6 이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 대해 복이 선포된다. 이들에게는 만족이 약속된다. 이들은 그 삶 속에 “의에 대한” 열정이 있다. 그들은 사회에서 정직과 진실과 공의를 보기 원한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실질적인 거룩을 고대한다. 가말리엘 브레드포드의 글에 묘사된 사람들처럼 그들은 “지상의 어떤 강물도 채울 수 없는 갈증과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주림”을 지닌다. 이들은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풍성히 채워질 것이다. 의가 다스리고 부패는 지극히 높은 도덕적 표준에게 자리를 내줄 것이기에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5:7 우리 주님의 왕국에서는 “공홀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홀히 여긴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정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형벌을 받아 마땅한 범죄자들에게서 형벌을 면해주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찌질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당연히 받아야 할 심판에서 우리를 살려두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심으로써 공홀을 베풀어 주셨다. 동정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된다.

공홀히 여기는 자는 “공홀히 여김을 받게 된다.” 여기서 예수님은 믿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자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자비는 인간의 자비로움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값없는 무조건적인 선물이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매일의 “자비”와 우리의 일이 평가를 받을 그 미래의 날(고전 3:12-15)의 “자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만일 어떤 이가 공홀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는 공홀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즉 그의 상급이 자연 감소되는 것이다.

5:8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그 동기가 순수하고 그 생각이 거룩하고 그 양심이 깨끗한 사람을 말한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란 표현은 여러 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의 사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둘째로, 그들은 때때로 환상 등의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보기도 한다. 셋째로,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

실 때 그분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넷째로 그들은 영원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5:9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선언된다. 주님께서는 화평한 기질의 소유자나 화평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주목하라. 그분은 화평케 하는 일에 적극 중재에 나서는 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혹 모욕과 욕설을 당한다 하더라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만 가능하다(요 1:12). 믿는 자들은 화평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며”, 훗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분을 닮은 자들로 인정하실 것이다.

5:10 다음 복은 그들의 악행 때문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들과 관계가 있다. 의를 행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신자들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 그들의 정직성은 불경건한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의 적의감을 일으킨다.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의 불의함을 폭로하는 까닭에 의로운 삶을 증오한다.

5:11 마지막 복은 앞의 복의 반복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다. 앞 절에서는 의로 인한 핍박이 주제였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이 주제이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까닭에 박해를 당할 것을 아셨다. 역사가 이 사실을 확증해 준다. 세상은 예수님을 좇는 자들을 처음부터 핍박하고 감금하고 살해했다.

5:12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은 기쁨을 가져오는 특권이 다. 그렇게 함으로 환란을 당한 “선지자들”의 동료가 되는 자들에게는 “큰 상”이 기다린다. 하나님을 위한 그 구약의 대변자들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웠다. 그들의 충성된 용기를 본받는 모든 이들은 현재의 큰 기쁨과 미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이 8복 강화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이상적인 시민상(象)을 보여준다. “의”(6절)와 “화평”(혹은 “평강”, 9절)과 “희락”(12절)을 강조한 점을 주목하라.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할 때 이 구절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2) 믿는 자들은 소금과 빛이다(5:13-16)

5:13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소금”에 비유했다. 그들은 소금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것같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했다.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갈증을 일으키고, 향기를 낸다. 것처럼 그분의 제자들은 인간 사회에 풍미를 더해주고 방부제 역할을 하고 사람들로 앞 구절에서 묘사된 의(義)를 갈망하게 한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그 짠맛을 회복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본래의 자연스런 맛을 회복할 길이 없다. 소금은 일단

그 맛을 잃게 되면 “아무 쓸데없다.” 그것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알버트 반즈는 본문에 대해 이렇게 적절히 설명한다.

“오늘날 식용으로 사용되는 소금은 화학적인 혼합물이다. 그리고 만일 ‘염기’가 없어지거나 ‘짠맛’을 잃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남게 된다. 그러나 고대 근동지역에서 사용되던 소금은 잡초와 흙이 섞여 있어서 염기를 잃을 경우 상당량의 맛을 잃은 소금덩어리가 남게 된다. 이것은 길에 자갈처럼 깔아놓는 경우 외에는 아무 쓸모도 없었다.”⁴⁾

제자는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8복 강화와 나머지 설교에 언급된 제자도의 원리를 실천함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다. 만일 그가 이러한 영적인 실재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그의 증거를 밟아버릴 것이다. 헌신되지 않은 신자에게 세상은 경멸만을 쏟을 뿐이다.

5:14 예수님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신다. 그분은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요 8:12; 12:35,36,46). 이 두 말씀의 관계인즉,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빛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기능은 달이 해의 영광을 반영하듯이 그분을 위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산 위에 있는 동리”와도 같다. 그것은 주위 환경 위에 위치하여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춘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어퍼함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은 “숨기우지 못한다.”

5:15-16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 대신 그

4) (5:13) Albert Barnes, *Notes on the New Testament, Matthew and Mark*, P. 47.

들은 그것을 등경 위에 두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한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의 빛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간직해두기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들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있다.

그리스도의 어떠한 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은 말의 설득보다 훨씬 효력이 있다.

(3)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다(5:17-20)

5:17-18 대부분의 혁신적인 지도자들은 과거와의 모든 연대를 끊어버리고 전통적인 기존의 질서를 거부한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모세 율법을 옹호하셨으며 그것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것이다.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뤄질 것이라고 그분은 분명히 주장하셨다. “일점”(“*요드*”)은 히브리 철자 중에 가장 작은 것이며, “일획”은 대문자 E의 하단 획(劃)이 그것을 대문자 F와 구분 짓는 것처럼, 한 문자를 다른 문자와 구분 짓는 역할을 하는 작은 표시이다. 예수님은 성경의 문자적인 영감성을 믿되 극히 사소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믿으셨다. 성경에는 가장 작은 점이라 해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께서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주목하라. 그분은 율법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는

다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신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신자와 율법과의 관계는 다소 복잡하므로 여기에 얼마간 지면을 할애하여 이 주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신자와 율법과의 관계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법 체계이다. 율법의 전체 체계는 출애굽기 20-31장, 레위기 및 신명기에서 발견되며 그 핵심 사상은 물론 십계명 안에 구현되어 있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행 13:39; 롬 3:20; 갈 2:16,21; 3:11).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성을 보여주고(롬 3:20; 5:20; 7:7; 고전 15:56; 갈 3:19) 그런 다음 그들을 그분의 은혜로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율법은 비록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유효한 도덕적인 원리들을 담고 있지만(롬 2:14-15)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한 표본으로서 이스라엘을 율법 아래서 시험하셨으며 이스라엘의 유죄는 세상의 유죄를 입증했다(롬 3:19).

율법은 죽음의 형벌을 내포했으며(갈 3:10) 한 가지 계명을 범하면 모든 계명을 범한 셈이 되었다(약 2:10). 사람들은 율법을 범했으므로 죽음의 저주 아래 처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은 그 대가가 지불될 것을 요구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런 목적(죽음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에서였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었으나 율법을 범한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죽으셨다. 그분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죽음으로써 율법의 엄격한 요구를 성취함으로써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충족시키신 것이다. 따라서 복음은 율법

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높이며,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었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롬 6:14).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의 형벌은 단번에 지불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신자는 그것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 빛을 잃은 것이다(고후 3:7-11).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몽학선생이었으나 구원이 임한 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몽학선생이 필요치 않다(갈 3:24-25).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해서 그가 무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법아래 있는 까닭에 더 강한 결속에 매인 것이다(고전 9:21). 그의 행동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구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의 규범이 되신 것이다(요 13:15; 15:12; 엡 5:1-2; 요일 2:6; 3:16).

신자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 흔히 제기되는 문제는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 답은, 율법에 내포된 어떤 원리들은 영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도적질하는 것, 탐내는 것, 살인하는 것 등은 언제나 나쁜 일이다. 십계명 중 아홉 가지가 신약에 비중 있게 언급되었는데 그것은 형벌이 규정된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에 이르는 훈련으로서다(딤후 3:16). 신약에 언급되지 않은 한 가지 계명은 안식일 규제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안식일(제7일 토요일)을 지키라는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한편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율법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

았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딤후 1:8).

율법에 의해 요구된 의(義)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자들 안에서 성취된다(롬 8:4). 사실 산상수훈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율법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표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으나 예수님은 “미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요컨대 산상수훈은 율법과 선지자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장시키고 그보다 깊은 의미를 발전시킨다 하겠다.

5:19 산상수훈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회시키려는 본성적인 경향을 예상하셨다는 것을 주목하게 된다. 그 계명들은 초자연적인 성격을 지니는 까닭에 사람들은 대충 설명해 버리고 그 의미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율법의 한 부분을 범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왕국에 들어가도록 허락된다는 자체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그러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한편, 왕국에서의 위치는 지상에 있는 동안 얼마나 순종하며 신실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왕국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5:20 왕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외적인 의식적인 정화만을 줄 뿐 그들의 마음은 결코 변화시키지 못하는 종교적인 의식에 만족한)의 의를 뛰어넘어야 한다. 예수님은 내적인 실재가 없는 외적인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 과장법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는 그분의 아들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분이 부여하시는 완전함이다(고후 5:21).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남은 부분에서 묘사하시는 실질적인 의(義)도 있게 마련이다.

(4) 예수께서 분노를 경계하시다(5:21-26)

5:21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셨다는 것과 살인한 사람은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율법 수여 이전에도 적용되었으며(창 9:6) 그 후에 율법 속에 통합되었다(출 20:13; 신 5:17).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란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살인자에 대한 가르침에 수정을 가하신다. 더 이상 아무도 살인을 범하지 않은 것으로 자랑할 수 없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왕국에서는 살인하려는 생각조차 품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살인의 행동을 추적하여 그 근본 동기를 찾아내시며, 세 가지 형태의 불의한 분노에 대해 경계하신다.

5:22 그 첫 번째는 까닭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의 경우이다.⁵⁾ 이러한 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은 심판에 처하게, 즉 법정에서 끌려가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분노하는 데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노는 하나님의 영예가 걸려 있거나 다른 사람이 해를 당하고 있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개

5) (5:22) 비평 본문(NKJV 각주에 “NU” <가장 오래된 헬라어 사본>라고 표제어가 붙은)은 “까닭 없이”란 표현을 생략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의로운 분노도 배제된다.

인적인 잘못에 대한 보복으로 표현되는 분노는 결코 옳지 않다.

이보다 더 심각한 죄는 형제를 모욕하는 죄이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멸시와 욕설의 말로 “라가”(속이 빈 사람이란 뜻의 아람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러한 욕설을 사용하는 이들은 공회에 잡히게 된다. 즉 그들은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심문을 받게 된다.

끝으로 예수께서 정죄하시는 불의한 분노의 세 번째 유형은 사람을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기서 “미련한 놈”이란 말은 단순한 바보란 뜻 이상이다. 그것은 죽어 마땅한 도덕적인 “미련한 놈”이란 뜻으로 그가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낸다. 오늘날은 다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라!”고 저주를 퍼붓는 예를 쉽게 볼 수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셈이다.

예수님은 그러한 저주를 발하는 사람은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신다. 처형된 죄수의 시체는 종종 힌놈 혹은 게헨나의 골짜기로 알려진 예루살렘 밖의 화장터에 던져졌는데 이것은 결코 꺼지지 않는 지옥 불을 잘 묘사해 주었다.

구주의 말씀의 엄위함을 보라. 분노는 살인의 씨앗을 내포하며, 욕설은 살인의 영을 내포하며, 그리고 저주는 살인의 욕망을 내포한다고 그분은 가르치신다. 잘못의 강도에 따라 “심판”, “공회”, “지옥 불” 등으로 처벌의 강도가 더해진다. 왕국에서는 예수께서 그 경중(輕重)에 따라 죄를 다루실 것이다.

5:23-24 만일 어떤 사람이 분노나 그밖에 다른 어떤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경우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잘못을 범한 사

람은 먼저 가서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 연후에야 그의 예물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 말씀은 비록 유대적인 배경에서 기록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날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바울은 이 교훈을 주님의 만찬과 관련하여 해석한다(고전 11장).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불화 가운데 있는 신자에게서는 아무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

5:25-26 여기서 예수께서 경계하시는 것은 송사하는 마음과 죄를 인정하기를 주저하는 태도이다. 법정에 가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는 고소하는 자와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신속히 풀어야 한다.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차가 있지만 그 요지는 분명하다. 즉, 만일 잘못을 했으면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뉘우치지 않은 채 놔두면 그 죄가 당신을 결국 따라잡을 것이고 당신은 충분한 보상을 치러야 할뿐 아니라 추가 형벌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서둘러 법정에 가려 하지 말라. 만일 그렇게 하면 법이 당신을 찾아내고 당신은 남은 한 푼마저 다 갚아야 한다.

(5) 예수께서 간음을 정죄하시다(5:27-30)

5:27-28 모세 율법은 분명히 간음을 금하였다(출 20:14; 신 5:18). 우리는 이 계명을 결코 범하지 않았노라고 자랑하면서도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벧후 2:14). 겉으로는 짐झ아

보이지만 그 마음은 끊임없이 정욕의 늪 속에 헤멜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반드시 내적인 순결이 있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셨다. 율법은 간음의 행위를 금했으나 예수님은 그런 욕망조차 금하신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E. 스탠리 존스는 본질의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잘 표현했다. “만일 당신이 간음을 생각하거나 행한다면 당신은 성적인 충동을 충족시킬 수 없다. 그것은 불을 끄려고 기름을 불에 붓는 격이기 때문이다.” 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만일 그 죄를 속에서 키우면 마침내 그것을 범하게 된다.

5:29-30 청결한 사고생활을 유지하려면 엄격한 자기 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만일 신체의 어느 일부가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하면 이생에 있는 동안 그 지체를 잃는 것이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잃는 것보다 낫다고 가르치셨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분이 실제로 자기 학대를 옹호하신 것일까?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만일 자기 영혼보다 지체를 잃는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지체를 잃어야 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데 이는 성령께서 신자에게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신자 편에서 협력과 엄격한 훈련이 있어야 한다.

(6) 예수께서 이혼을 꾸짖으시다(5:31-32)

5:31 구약 율법 아래서는 신명기 24장 1-4절에 따라 이혼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간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았다(간음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었다-신 22:22). 그보다 그 말씀은 수치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을 허용할 것을 말한다.

5:32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그녀가 자동적으로 간부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 생계 수단이 없는 까닭에 그녀가 다른 남자와 살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하여 본의 아니게 간부가 된다는 뜻이다. 그렇게 이전의 아내가 간음을 행하게 될 뿐 아니라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을 범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혼과 결혼이란 주제는 성경에서 가장 복잡한 주제 중 하나이다. 야기되는 모든 문제에 답하기란 사실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 바를 여기서 살펴보고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 이혼과 결혼

이혼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결코 아니었다. 그분의 이상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죽음으로 그 연합이 끊어질 때까지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롬 7:2-3).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호소함으로써 바리새인들에게 이 문제를 분명히 하셨다(마 19:4-6).

하나님은 이혼, 즉 비성경적인 이혼을 증오하신다(말 2:16). 그분

은 모든 이혼을 증오하시지는 않는데 이는 자신이 이스라엘과 이혼했다고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이다(렘 3:8).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이 충성치 못했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1-32절과 19장 9절에서 예수님은 한 쪽이 성적인 부도덕을 범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혼이 금지된다고 가르치셨다. 마가복음 10장 11-12절과 누가복음 16장 18절에는 그 예외 규정이 빠져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설명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이혼은 이상이 아니지만 한 쪽이 불충실했을 경우에는 허용이 되었다. 예수님은 그런 경우에 이혼을 허락하시긴 하지만 이혼을 명하시지는 않는다.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전서 7장 12-16절을, 신자가 불신자에게 버림을 당할 경우 이혼이 허락된다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인다. 바울은 그 남은 사람이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다”고 말한다. 즉, 그 사람은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 경우는 마태복음 5장과 19장에서 인정된 예외, 즉 불신자가 다른 사람과 살기 위해 헤어지는 경우와 같다고 본다. 그러므로 신자는 상대방이 음행을 범한 경우에만 성경적인 근거에서 이혼을 허락받을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이혼은 신약성경에서 허락되었지만 재혼은 결코 고려되지 않았다고 혹자는 종종 주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문제를 일으킨다. 신약성경에서 재혼은 잘못된 편에 대해서만 정죄되지 잘못이 없는 편에 대해서는 정죄되지 않는다. 또한 성경적인 이혼의 주

된 목적 중 하나는 재혼을 허락하는데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혼할 필요 없이 별거만으로도 충분히 당사자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벌이면 으레 “구원받기 전에 이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요?”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구원받기 전에 이뤄진 불법적인 이혼과 재혼은 이미 완전히 용서를 받은 죄들이었다(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이 과거에 범한 죄의 목록에 음행을 포함시켰다). 구원받기 전에 범한 죄는 신자들이 지역교회의 교제에 온전히 참여하는데 하등 장애가 되지 못한다.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비성경적인 이유로 이혼했다가 재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이다. 그들이 지역 교회의 교제에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 답은 간음이 순간적인 과오로 그쳤는가, 아니면 지속된 상태로 계속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만일 이들이 간음 상태로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를 자백해야 할뿐만 아니라 그들의 현재의 배우자를 버려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책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만일 결혼 문제를 풀기 위해 남자나 여자가 죄에 빠지거나 혹은 여자와 아이들이 가정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다면 오히려 치료하지 않은 채 두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비성경적으로 이혼했다가 재혼한 그리스도인들도 진실로 그들의 죄를 뉘우치면 주님과, 교회의 교제에도 회복될 수 있다. 이혼 문제에 있어서는 사유가 천차만별이다. 그러므로 지역교회의 장로들은 각 경우를 개별적으로 조사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해야 한다. 만일 징계가 취해져야 할 때는 관련된 모든 이들이 장로들의 결정에 순복해야 한다. ♠

(7) 예수께서 맹세를 정죄하시다(5:33-37)

5:33-36 모세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맹세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들을 포함했다(레 19:12; 민 30:2; 신 23:21).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데 대해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의미이다. 유대인들은 하늘과 땅, 예루살렘, 혹은 그들의 머리를 맹세의 근거로 대치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맹세하는 과오를 피하고자 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교묘히 회피하는 것을 명백한 위선으로 정죄하시고 일상적인 대화중에 어떤 형태로든 맹세하는 것을 금하신다.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다른 것으로 대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피하려 하는 것은 위선일 뿐 아니라 소용 없는 일이었다.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 맹세하는 것이다. 땅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것은 왕의 수도로 맹세하는 것이다. 자기 머리로 맹세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5:37 그리스도인에게는 맹세가 불필요하다. 그의 “옳다”는 “옳다”는 뜻이어야 하고 그의 “아니다”는 “아니다”는 뜻이어야 한다. 이보다 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단(악한 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거짓말하기에 적절한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본질은 진실을 가리거나 속이는 것도 금한다. 하지만 법정에서 맹세하는 것은 금하지 않는다.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 앞에

서 맹세로 증거하신 바 있으며(마 26:63 이하) 바울도 자신의 글이 진실임을 하나님을 증인으로 들면서 맹세했다(고후 1:23; 갈 1:20).

(8) 5리를 더 동행하라(5:38-42)

5:38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했다(출 21:24; 레 24:20; 신 19:21). 이것은 징벌의 명령이자 징벌의 한계(형량은 범죄의 정도를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였다. 그러나 구약에 의하면 징벌의 권위는 개인이 아닌 정부에 귀속했다.

5:39-41 예수님은 보복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율법을 뛰어넘어 보다 차원 높은 의(義)로 나아가셨다. 과거에는 보복이 법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이제는 은혜롭게 아무 저항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만일 누가 한쪽 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야 했다. 만일 누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해야 했다. 만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와 십리를 동행해야 했다.

5:42 이 단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극히 비실제적으로 보인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는 물질과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우리가 얻은 것을 내주라는 이 가르침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늘의 보화에 기꺼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필

요한 양식과 옷으로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다 문자적으로, 보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도움을 구하는 자가 진정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경우를 전제한다. 그 필요가 모든 면에서 타당한지를 알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돌려보내는 실수를 범하는 것 보다는 수십 명의 가짜 지지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낫다 하겠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주님께서 여기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행동은 불가능하다.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그러한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오직 구주께서 신자 속에서 그분의 삶을 사시도록 허락될 때에만 “모욕”(39절)과 “부당함”(40절)과 “불편”(41절)이 사랑으로 갚아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리를 더 동행하는 복음”이다.

(9) 네 원수를 사랑하라(5:43-48)

5:43 그분의 왕국에서 요구되는 차원 높은 의(義)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예는 원수를 대하는 문제, 즉 앞 단락에서 자연스럽게 발전되어온 주제에 대한 것이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다(레 19:18). 그리고 비록 원수를 미워하라고 분명히 명령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신조에는 그러한 정신이 깔려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구약의 관점은 그런 태도로 집약되었다(시 139:21-22 등). 그것은 하나님의 대적을 향해 생기는 의로운 적의감이었다.

5:44-47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

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선언하신다. “사랑”이 명령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우선적으로 의지의 문제이지 감정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것은 자연적인 애정과는 다른데, 이는 우리를 미워하고 해롭게 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 의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아무 상급도 없다. 예수님은 구원받지 않은 세리들⁶⁾도 그같이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런 종류의 사랑은 아무 신적인 능력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의 형제들⁷⁾, 즉 우리의 친척과 친구들에게만 인사하는 것에도 아무런 미덕이 없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도 그같이 행한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을 나타낼 만한 것이 전혀 없다. 만일 우리의 표준이 세상의 표준보다 높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런 도전도 주지 못할 것임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면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을 전혀 차별하지 않으시므로 우리도 모든 사람을 은혜롭고 공정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은 권면으로 마감하신다.

5:48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문맥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무죄나 무흠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앞절은, 온전하게

6) (5:44-47) 비평 본문(NU)은 “세리”를 “이방인들”로 옮기고 있다.

7) (5:44-47) 다수 본문(사본들의 다수에 기초)은 “형제”를 “친구”로 옮기고 있다.

되는 것이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친구와 원수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축복을 나눠줌으로써 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영적인 성숙을 가리킨다.

(10) 진실하게 베풀라(6:1-4)

6:1 본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선행(1-4절), 기도(5-15절), 금식(16-18절) 등 개인의 삶의 실질적인 의(義)의 세 가지 구체적인 영역을 다루신다. 이 18구절에는 “아버지”란 이름이 열 차례 발견되는데 그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실질적인 의의 행위는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로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경건을 과시하려는 유혹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이 부분의 강화를 시작하신다. 그분이 정죄하시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 동기이다. 만일 대중의 인정이 근본 동기라면 상급이 그것에 그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선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6:2 “외식하는 자들”은 회당에서 예물을 드리거나 거리에서 구제를 할 때 요란스레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 애쓴다. 주님은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즉, 그들의 유일한 상은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얻는 명성뿐이다)는 간결한 말로 그들의 행위를 평가하셨다.

6:3-4 그리스도를 좇는 자는 구제를 할 때 “은밀히” 해야 한다. 그것은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극히 은밀히 행해져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제가 사람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같이 생생한 수사법을 사용하신다.

본문은 다른 사람이 보는데서 선물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구절로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의 모든 선행을 항상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문은 다만 우리의 선행을 의도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만 정죄하고 있다.

(II) 진실하게 기도하라(6:5-8)

6:5 이어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외식을 범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계하신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함으로써 사람들로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경건에 감명을 받게 해서 안된다. 만일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는 것이 기도의 유일한 동기라면 그 명성이 그의 유일한 상이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신다.

6:6 5절과 7절에서는 “너희”라는 복수 대명사가 사용되었으나 여기 6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대명사가 단수로 바뀐다. 응답받는 기도의 열쇠는 “은밀히”(즉,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참 동기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라면 그분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본문을 공중 기도를 금하는 것으로 인용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초대 교회는 전체적인 기도를 위해 함께 모였다(행 2:42; 12:12; 13:3; 14:23; 20:36). 여기서의 요점은 “어디서”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왜” 기도하느냐, 즉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이나이다.

6:7 기도할 때는 같은 말을 불필요하게 아무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중언부언을 피해야 한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말”의 나열에 감명되지 않으신다. 그분은 마음의 진실한 표현을 듣기를 원하신다.

6:8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면 왜 굳이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그분께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의 기초이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지 않으셨을 일들을 기도의 응답으로 행해주신다(약 4:2).

(12) 기도의 모본(6:9-15)

6:9 9절부터 13절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도문을 대하게 된다. 그러나 주기도문이란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 우리는 예수께서 직접 그렇게 기도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의 기도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모본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도

록 주어진 것이 아니다. 7절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바, 기계적인 암송으로 많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될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는 우주만물에 대한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져야 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경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께 찬송과 존귀를 돌리며 경배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6:10 “나라이 임하옵시며.” 경배를 올린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를 최우선시하며 하나님의 일의 진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우리 구주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고 의로 다스리실 그 날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뜻이...이루어지이다.” 이러한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것과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그것은 그분의 뜻이 온 세상을 통해 인정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갈망을 표현해 준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문구는 앞의 세가지 간구 모두를 수식한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 하나님에 의한 주권적인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실행 등 모든 것은 “하늘”의 실재이다. 이 기도는 이러한 요소들이 “하늘에서” 존재하는 것 같이 “땅에서도” 존재하기를 바라는 소원의 표현이다.

6:11 하나님의 관심사를 첫자리에 둔 후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될 기회를 허락받는다. 이 간구는 우리가 영육간에 모든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6:12 이것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사법적인 용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러한 용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이것은 다만 우리의 아버지와의 교제가 유지되는데 필요한 가정적인 용서를 가리킨다. 만일 신자들이 자기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하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의 잘못을 값없이 용서하신 그들의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6: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요청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한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과 모순되는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시험이나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신다. 이 간구는 유혹을 물리치거나 시련 중에 굳게 서는데 있어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토로한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서 보호받기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이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날마다 건짐 받고자 하는 심령의 외침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기도문은 여러 고대 사본에 없는 관계로 로마 카톨릭과 대부분의 현대 개신교 성경에는 빠져 있다(우리말 성경 각주 참조-역주). 그러나 이 송영(送迎)은 기도문을 훌륭하게 종결지으며, 또한 대다수 사본에는 포함되어 있다.⁸⁾

8) (6:13) 마지막 송영은 성례전에 사용되기 위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가르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전통

존 칼빈의 표현대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감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 한 분 뿐임을 일깨워준다.”

6:14-15 이것은 12절에 대한 보충설명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기도의 일부가 아니라 12절에 언급된 가정적인 용서가 조건적임을 강조하기 위해 추가된 설명이다.

(13) 금식에 대한 지침(6:16-18)

6:16 예수께서 책망하신 세 번째 형태의 종교적인 외식은 “금식하는” 모습을 나타내려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그렇게 보이는 태도였다.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하는 모습을 나타내려고 일부러 슬픈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신다.

6:17-18 참된 신자들은 아무런 외양도 보이지 않고 “은밀히” 금식해야 한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아버지께서 아시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이는 그분의 보상이 사람들의 인정보다 낫기 때문이다.

금식

금식이란 일체의 식욕을 자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본문의 경우처럼 자발적일 수도 있고 비자발적일 수도 있다(행 27:33이나

적인 개신교(KJV)의 기도문 형태는 확고부동하다.

고후 11:27처럼). 신약성경에서 그것은 애곡(마 9:14-15) 및 기도(눅 2:37; 행 14:23)와 연관이 있다. 이 구절들에서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뜻에서 기도에 수반되었다.

금식은 구원에 관한 아무 효력도 없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 특별한 지위도 얻게 하지 못한다. 한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한다고 자랑했으나 그 금식이 그가 추구한 칭의(稱義)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눅 18:12,14).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훈련으로써 은밀히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상을 주신다. 신약에 명령되지 않았지만 금식은 상급의 약속과 함께 “권장되어 있다.” 금식은 나른함과 졸음을 쫓아냄으로써 우리의 기도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가치를 발한다. 그리고 자기 훈련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금식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에서만 행해져야 한다. 외부로부터 강요되거나 그릇된 동기에서 행해질 때는 그 가치가 상실된다.

(14)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6:19-21)

본문은 우리 주님의 가장 혁신적인 가르침이자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가르침 중 하나를 내포한다. 6장 나머지 부분의 주제는 어떻게 장래를 위한 안전을 발견하는가이다.

6:19-20 19-21절에서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안전한 미래를 대비하라는 모든 인간적인 조언을 반박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는 말씀은 물질적인 것에는 아무 안전한

보장이 없다는 뜻을 내포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보물은 자연(중과 동쪽)의 요소들에 의해 파괴되거나 “도적”에게 탈취당할 수 있다. 잃어지지 않는 유일한 투자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6:21 이러한 급진적인 경제 정책은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는 기본원리에 기초한다. 만일 당신의 돈이 금고에 있다면 당신의 마음과 생각도 거기에 있다. 만일 당신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당신의 관심도 하늘에 집중될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문자 그대로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결정하도록 우리를 촉구한다. 만일 문자 그대로라면 우리는 “우리의 지상의 보물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만일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면 “우리의 성경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15) 몸의 등불(6:22-23)

6:22-23 예수님은 장래의 안전에 대한 자신의 상식을 초월한 가르침이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지 제자들이 의아해 할 것을 아셨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눈”의 비유를 사용하여 영적인 시력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셨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몸이 빛을 받아들여 볼 수 있는 것은 눈을 통해서이다. 만일 눈이 좋으면 온 몸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나 만일 눈이 나쁘면 시야가 흐려지고 빛 대신 어두움이 존재하게 된다.

본문에 대한 적용은 이러하다. 좋은 눈은 그 동기가 순수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속해 있다. 그의 모든 삶은 빛으로 충만하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지상의 부(富)를 버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고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참 안전임을 안다. 반면에, 나쁜 눈은 두 세상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속해 있다. 그는 그의 지상 보물을 포기하지 않는 한편 하늘의 보물도 소유하려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에게 비실제적이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두움이 가득하므로 선명한 인도를 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덧붙이신다. 다시 말해서, 만일 안전을 위해 지상의 보물을 의지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금하신다는 것을 당신이 알고도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렇다면 당신이 순종하지 못한 그 가르침은 어두움(영적으로 극히 몽매한 상태)이 된다. 당신은 부(富)를 그 참된 관점에서 보지 못하게 된다.

(16)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6:24)

6:24 하나님과 재물 양자 모두를 위해 살 수 없다는 교훈이 주인과 종의 비유로 여기에 진술되어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어느 한 쪽이 반드시 충성과 순종에 있어 우선권을 쥐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경쟁적인 관계에 있으며 반드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고 물질주의 법칙을 거부하든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을 위해 살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든

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17) 염려하지 말라(6:25-34)

6:25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음식과 의복 문제에 매이게 하고 그로써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게 될 경향을 지적하신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느냐가 아니라 지금부터 10년, 20년, 혹은 30년 후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느냐이다. 그러한 장래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죄이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는 뜻을 내포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이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뜻을 내포하므로 그분의 지혜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기에 그분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염려는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의 최고의 정력을 쏟게 만든다. 그런 연후에 그 사실을 깨달을 때는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고 이미 우리가 지은바 된 중심 목적을 멀리 떠난 상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먹고 마시는 따위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분의 관심사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종으로 지어진 것이지 우리의 주인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

6:26 “공중의 새들”은 그분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해준다. 새들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불필요한지를 가르

쳐 준다. 새들은 심지어 앉고 거두지도 않되 하나님이 친히 먹이신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우리는 새들보다 훨씬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여기서 끌어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살후 3:10). 또한 우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결론 내려서도 안 된다. 그러한 활동들은 그의 현재의 필요를 채우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다만 예수께서 여기서 금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장래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다(누가복음 12장 16-21절에 나오는 부유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에서 예수께서 정죄하시는 행위가 그러하다). “매일 성경 읽기”(the 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적절히 요약해 준다.

“본문의 요지는, 만일 하등한 피조물이 의식적으로 가담함 없이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신다면 창조의 목적인 대상이 적극적으로 가담할 때는 얼마나 더욱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겠는가 라는 것이다.”

6:27 장래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불명예가 될 뿐만 아니라 무익하다. 주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이 사실을 드러내신다. 키가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키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비교해서 말한다면 장래의 필요를 위해 염려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더 쉽다고 할 수 있다.

6:28-30 이어서 주님은 장래에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말씀하신다.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 하고 길쌈도 아니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옷의 영광을 능가한다. 잠시 존재하다가 아궁이에 연료로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신다면 하물며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겠는가.

6:31-32 결론적으로 우리는 장래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삶을 보내서는 안 된다.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삶의 전체인양 물질적인 것을 쌓아올리는데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장래의 모든 필요를 미리 확보하는 것을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면 경제적인 자원을 축적하는데 그들의 시간과 정력이 소모될 것이다. 그들은 항상 시장붕괴와 인플레이션, 질병과 각종 재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이만하면 충분히 모았노라고 확신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서 경배를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창조되고 구원받은 진정한 목적이 상실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영원의 가치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남녀 인생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다.

6:33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기를 좇는 자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다. 결과적으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만일 너희

가 하나님의 관심사를 너희 삶에서 최우선시 한다면 내가 너희의 장래의 필요를 보장하겠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생각한다면 너희의 삶의 기본요소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내가 돌볼 것이다.”

6:34 이것이 하나님의 “사회보장 제도”이다. 신자의 책임은 그 분이 공급하신다는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우리의 직업은 단순히 현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며 그 외에 모든 것은 주님의 일에 드려야 한다. 우리는 그 날 그 날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18) 비판하지 말라(7:1-6)

이 비판에 관한 부분은 땅의 부(富)에 관한 우리 주님의 도전적인 가르침 바로 뒤에 나온다. 이 두 주제 사이의 관계는 중요하다. 모든 것을 버린 그리스도인은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기가 쉽다. 역으로, 가족의 장래의 필요를 공급하는 그들의 의무를 중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의 문자적인 가치를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아무도 완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므로 그러한 비난은 그릇된 것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다음 영역들을 내포한다.

(1) 사람의 동기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실 수 있기 때문이다.

- (2)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요 7:24; 약 2:1-4).
- (3)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닌 문제에 대해 양심상의 거리낌을 소유한 자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롬 14:1-5).
- (4) 다른 그리스도인의 봉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전 4:1-5).
- (5) 그에 대해 악평을 함으로 동료 신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약 4:11-12).

7:1 때때로 우리 주님의 이러한 말씀은 모든 형태의 판단을 금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된다. “비판(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사람들은 경건하게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분별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비판력이나 분별력을 포기해야 한다고 의도하지 않으셨다. 신약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상태나 행위 혹은 가르침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많은 사례를 담고 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은 여러 영역에서 결정을 내리고, 선악을 분별하고, 차선과 최선을 구별하도록 명령받고 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신자들 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그것은 그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교회 인도자들 앞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전 6:1-8).
- (2) 지역교회는 그 지체의 중대한 죄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마 18:17; 고전 5:9-13).
- (3) 신자들은 하나님님의 교회의 교사와 전도자들의 교리적인 가르침을 판단해야 한다(마 7:15-20; 고전 14:29; 요일 4:1).
- (4)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바울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다른 이들이 신자인지 아닌지 판단해야만 한다.
- (5) 교회의 지체들은 어떤 이들이 장로와 집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딤후전 3:1~13).

(6) 우리는 규모 없는 자들과 마음이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을
분별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을 대해야 한다(살전 5:14).

7:2 예수께서는 불의한 판단은 불의한 판단으로 보상받는다고 경고하셨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뿌린 대로 거두는 이 원리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마가는 이 원리를 말씀을 사용하는 문제에 적용시키며(막 4:24) 누가는 그것을 베푸는 삶에 적용시킨다(눅 6:38).

7:3-5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실수는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는 눈여겨보기 쉬운 우리의 경향을 지적하셨다. 그분은 요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상황을 의도적으로 과장하셨다.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종종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의 “티”를 흠잡는다. 우리 자신이 더 큰 흠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흠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위선이다. 다른 사람의 흠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흠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7:6 본절은 예수께서 “모든” 종류의 판단을 금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입증해 준다. 그분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계하셨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개와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었으며 여기서는 악인을 묘사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거룩한 진리를 철저히 경멸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에 욕설과 폭력으로 반응하는 사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계속 복음을 제시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저주만을 증가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그러한 자들을 분별하는 데는 영적인 지각이 필요하다. 아마 그 까닭에 다음 구절들에서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라는 주제를 다루는 듯하다.

(19)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7:7-12)

7:7-8 만일 우리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구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그 초자연적인 성격을 깨닫지 못한 소치이다. 그러한 삶을 위한 지혜나 능력은 반드시 위로부터 주어져야만 한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그리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초청이 주어져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지혜와 능력은 열심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문맥으로 보아 7-8절은 신자들을 위한 백지수표처럼 보인다. 즉 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구절들은 직접적인 문맥 안에서, 그리고 기도에 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아무 조건 없는 약속처럼 보이는 구절은 사실 다른 구절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시편 66편 18절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삶에 고백되지 않은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약 1:6-8),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요일 5:14)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지속적으로(눅 18:1-8), 진실하게(히 10:22) 드러

져야 한다.

7:9-10 기도의 조건이 충족될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듣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성품에 기초한다. 인간적인 표준에서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그 아버지가 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지상의 아버지도 그의 주린 아들을 속이거나 해가 될 만한 것을 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7:11 주님이 인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주체를 바꾸신다. 만일 인간 부모들이 자식들의 요구에 대해 최선의 것으로 들어준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욱 그러하시겠는가.

7:12 12절이 앞절과 갖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설명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분을 닮아야 한다는 논리인 듯하다.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방법은 우리 자신이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지 점검해보는 것이다.

이 “황금률”은 이때로부터 적어도 1백 년 전에 힐렐이란 랍비에 의해 부정적인 논조로 표현된바 있다. 그러나 그 규율을 긍정적인 논조로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은 소극적인 제한을 넘어 적극적인 선행으로 나아가신다. 기독교는 단순히 죄를 억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이다. 즉 그것이 모세 율

법의 도덕적인 가르침과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글들을 요약해 준다. 구약에 의해 요구된 의(義)는 성령을 좇아 행하는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서 이루어진다(롬 8:4). 만일 이 구절이 전 세계적으로 준행된다면 그것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 국가와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20) 좁은 길(7:13-14)

7:13-14 주님은 이제 제자도(弟子道)로 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고 경고하신다.⁹⁾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을 충실히 좇는 자들은 풍성한 삶을 발견한다. 반면에 넓은 문, 즉 자기 방종과 쾌락의 삶이 있다. 그러한 삶의 결국은 멸망이다. 이것은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목적을 삶을 통해 실현하는데 실패하는 문제이다.

이 구절들은 또한 인류의 두 길과 두 운명을 묘사해 준다는 점에서 복음에도 적용될 수 있다. 큰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잠 16:25).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 예수님은 문(요 10:9)과 길(요 14:6)이 되신다.

그러나 본문은 적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복음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으나 해석에 있어서는 신자들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분을 좇는 데는 믿음과 훈련과 인내가 요구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삶이 유일한 가치 있는 삶이다. 만일 당신이

9) (7:13,14) 비평 본문과 다수 본문 모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얼마나 좁고 그 길은 얼마나 협착한지, 또 그 길을 찾는 이는 얼마나 적은지!”라고 옮겨진 감탄문을 지니고 있다. 가장 오래된 사본들(흔히 NU라고 함)과 가장 많은 수의 사본들이 전통 본문을 거스를 때는 그들이 거의 확실히 정확하다.

쉬운 길을 택한다면 당신은 많은 친구를 얻게 될 것이나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은 잃게 될 것이다.

(21)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7:15-20)

7:15 참 제자도의 엄격한 요구가 가르쳐지는 곳에는 어디든지 큰 문과 넓은 길을 옹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은 C. H. 스펄전이 말한 대로 “병든 메뚜기에게 줄 스프를 만들기에다 부족하게 될” 때까지 진리를 극도로 약화시킨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고백하면서 참 신자의 모습을 갖추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즉 미성숙하고 불안정하고 단순한 사람들을 노략하는 사악한 불신자들이다.

7:16-18 16-18절은 거짓 선지자들을 탐지하는 문제를 다룬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방탕한 삶과 파괴적인 가르침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낸다. 나무나 식물은 그 성격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엉덩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원리는 자연 세계와 영적인 세계 모두에 적용된다.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삶과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사 8:20).

7:20-21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은 불속에 던져지는 것이다. 거

것 교사들과 선지자들의 종국은 “임박한 멸망”이다(벧후 2:1). 그들의 정체는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

(22)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7:21-23)

7:21 주 예수님은 이어서 그분을 구주로 시인한다고 거짓 고백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 경고하신다.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주여” 부르는 모든 이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 그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첫 발자국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요 6:29).

7:23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서는 심판 날에(계 20:11-15),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그분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노라고 그분께 아뢰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장소는 헛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혹은 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인정한 적이 없노라고 밝히 말씀하실 것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모든 기적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며, 모든 기적 행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기적은 단지 초자연적인 능력이 행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속할 수도 있고 사단에게 속할 수도 있다. 사단은 그 기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일으키기 위해 귀신을 “일시적으로” 쫓아내는 능력을 그의 사역자들에게 허락할 수 있다. 그는 그런 경우에 스스로 그의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악한 귀신들이 몰려오도록 음모를 꾸미고 있

는 것이다.

(23)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7:24-29)

7:24-25 예수께서는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비유를 통해 자신의 강화를 마감하신다. “이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제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과 같다. 그의 집(삶)은 기초가 튼튼하여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7:26-27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 사람은 삶의 모진 역경을 견뎌낼 수가 없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은 기초가 약한 까닭에 쉬 무너지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산상수훈의 원리를 따라 산다면 세상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그를 지혜로운 자라고 부르신다. 세상은 보는 것으로 살고, 현재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를 지혜로운 자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신다.

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는 복음을 설명하는데도 적합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와 구주로 확실히 신뢰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회개를 거절하고 유일한 구원의 소망되신 예수님을 거절한다. 그러나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사실 영혼 구원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구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문제로 우리를 인도한다.

7:28-29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사람들은 놀랐다. 만일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고 그 혁명적인 성격에 놀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사이의 차이를 인식했다. 그분은 권위 있게 말씀하신 반면 그들의 말은 권위가 없었다. 그분의 말씀은 소리였고 그들의 말은 메아리였다. 이에 대해 제미슨은 이렇게 설명한다.

“율법의 수여자요 해설자요 재판관으로서의 신적인 권위감이 그분의 가르침 전체에 넘쳐흐르기에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그에 비하면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했다.”¹⁰⁾

10) Jamieson, Fausset & Brown, *Critical and Explanatory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V:50.

5.

메시아의 권능과 은혜의 기적들, 그리고 그에 대한 다양한 반응(8:1-9:34)

8-12장에서 주 예수님은 자신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신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메시아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고 절름발이를 고치고 병어리로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사 35:5-6) 예수님은 그 모든 예언들을 성취함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하셨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소유한 성경과 비교해봄으로써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 마음이 없는 자들처럼 보지 못하는 소경은 없는 것이다.

이 장들에 기록된 사건들은 엄격한 연대적인 순서가 아닌 주제상의 골격에 따라 제시된다. 이것은 주님의 사역에 대한 완전한 해설이 아니라 구주의 생애의 몇몇 중요한 동기들을 드러내기 위해 성령에 의해 선정된 사건들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아래의 사실들이 포함된다.

(1) 질병, 귀신, 죽음 및 자연의 요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절대 권위.

(2) 그분을 좇고자 하는 자들의 삶에서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

셔야 한다는 그분의 주장.

(3) 이스라엘 백성,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예수님에 대한 거절이 갈수록 심해감.

(4) 일부 이방인들에 의해 구주께서 기꺼이 영접되심.

(1) 문둥병에 대한 권세(8:1-4)

8:1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록 급진적이고 극단적이었지만 거기에는 사람들을 끄는 강렬한 힘이 있어서 “허다한 무리가 그분을 좇았다.” 진리는 아무 증거도 필요 없이 스스로를 증거하며,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잊을 수는 없다.

8:2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치유를 호소했다. 이 문둥병자는 주님께서 자기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으며 진실한 믿음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 문둥병은 불결하고 파괴적이고 전염적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치료불가능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적절한 그림이 되어 준다.¹¹⁾

8:3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접근을 꺼리는 그런 대상들이었다. 그들과 육체적으로 접촉하면 전염의 위험이 있었다. 유대인의 경우에 그러한 접촉을 한 사람은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즉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에 부적합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고 치료의 말씀을 하시자 문둥병이 즉시 없어

11) (8:2) 성경에 언급된 어떤 형태의 문둥병은 소위 한센의 질병이라 부르는 만성 병과 다르다. 예를 들어 레위기에는 집이나 옷에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을 말하고 있다.

졌다. 우리 구주는 죄에서 깨끗케 하고 그 깨끗케 된 사람을 예배드리는 자로 구비시킬 능력이 있으시다.

8:4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그들에게 행해진 혹은 그들이 본 기적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명하신 기록이 나오는 첫 번째 사례이다(9:30; 12:16; 17:9; 막 5:43; 7:36; 8:26). 이것은 아마도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되는데만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을 그분이 아셨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그분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영적인 주권을 거절할 것과 자신은 먼저 십자가로 가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다.

모세 율법 아래서 제사장은 의사 역할도 했다. 문둥병자가 깨끗케 되었을 때 그는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깨끗하다는 선언을 받아야 했다(레 14:4-6). 사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매우 드문, 극히 비범한 일이었으므로 제사장은 메시야가 마침내 온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마땅했다. 그러나 그러한 반응에 대한 기사가 전혀 없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있어 율법을 순종하라고 문둥병자에게 이르셨다.

이 기적에 내포된 영적인 의미는 분명하다. 즉, 메시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질병을 치료할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오셨다는 것이다. 그분은 이 기적을 자신의 신임장 중 하나로 제시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 그들의 구원자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2) 중풍병에 대한 권세(8:5-13)

8:5-6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유대인의 달가워하지 않는 태도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소개된다. 만일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멸시받는 이방인들이 그분을 인정할 것이다. 이 백부장은 약 1백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로마군 장교로서 가버나움, 혹은 그 부근에 위치했다. 그는 중풍병으로 심한 고통 중에 있는 그의 하인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께로 나왔다. 대부분 장교들이 종을 다루는 태도로 보아 이것은 실로 놀랄만한 동정심의 표현이었다.

8:7-9 주 예수께서 그 병든 종을 찾아가겠다고 제안하시자 백부장은 그 믿음의 실제성과 깊이를 보여주었다. 그는 사실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당신이 제 집에 친히 오실만한 그런 인물이 못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쉽게 그를 고치실 수 있으므로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권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또 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제 명령은 무조건 준수됩니다. 하물며 당신의 말은 제 하인의 질병에 대해 얼마나 더욱 권세가 있겠습니까!”

8:10-12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놀라셨다고 기록된 두 경우 중 하나이다(다른 한번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였다-막 6:6). 그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 이 일은 그분으로 하여금, 장차 올 그분의 나라에서 이방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 유대인 족장들과 더불어 사귀어 즐기는 반면에 나라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

도록 했다. “나라의 자손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왕으로 시인은 하지만 진실로 회심한 적이 없는 자들을 말한다. 이 원리는 오늘날도 적용된다. 즉,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양육을 받는 특권을 지닌 많은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까닭에 지옥에 던져지는 한편, 많은 이방 야만인들이 복음 메시지를 믿은 까닭에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8:13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이르셨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예수께서 멀리 떨어져 계셨지만 그 하인은 즉시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 즉 육체로는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아무 특권도 없는 이방인들을 죄의 중풍병에서 고치시는 그분의 사역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다.

(3) 열병에 대한 권세(8:14-15)

8:14-15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그분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사라졌다.

일반적으로 열병이 사라지면 환자의 몸이 몹시 쇠약해지는 것이 상례였으나 이번 치료는 환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수종들 정도로 즉각적이고도 완전했다. 수종들었다는 것은 구주께서 그녀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 적절한 감사를 표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고침을 받을 때마다 소생된 헌신과 활력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그녀를 본받아야 한다.

(4) 귀신과 각종 질병에 대한 권세(8:16-17)

8:16-17 안식일이 끝나고(막 1:21-34)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몰려들었다. 이 가련한 자들은 악한 영이 거하며 다스렸다. 그들은 종종 초인간적인 지식과 능력을 드러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들의 몸을 상케 하기도 했다. 그들의 행동은 때로 미친 사람의 행동과 흡사했으나 그 원인이 육체적 혹은 정신적이 아니라 사단적이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분은 또한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심으로써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고 한 이사야 53장 4절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17절은 종종 신유주의자들에 의해, 신유는 구속에 포함되며, 따라서 육체적인 치료는 신자가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인용된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예언을 우리 구주의 지상적인 치료사역에 적용하고 계시지 그분의 십자가 사역에 적용하고 계시지 않는다.

이제까지 본장에서 우리는 다음 네 가지 기적을 살펴보았다.

- (1) 그리스도께서 계신 중에 이루어진 유대인 문둥병자의 치료.
- (2) 그리스도께서 멀리 계신 중에 이루어진 백부장의 종의 치료.
- (3) 그리스도께서 그 집에 계신 중에 이루어진 베드로의 장모의 치료.
- (4) 그리스도께서 계신 중에 이루어진 귀신들린 자와 병든 자의 치료.

게벨라인은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의 네 단계를 상징해 준다고 설명한다.

- (1)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리스도의 초림.
 - (2) 예수께서 부재중인 이방인 세대.
 - (3) 그분이 집에 들어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병든 시온의 딸을 치료하실 그분의 재림.
 - (4) 모든 귀신들린 자와 병든 자가 치료를 받게 될 천년왕국.¹²⁾
- 이것은 그 기적들에 내포된 가르침의 전개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으로써 우리로 성경에 깊이 내재된 숨은 의미에 관심을 갖도록 일깨워 준다. 그러나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여 어처구니없는 해석이 나올 정도로 지나치게 그런 해석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5) 인간의 거절이란 기적(8:18-22)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질병과 귀신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신 장면을 살펴보았다. 그분께서 저항을 직면하는 경우는 오직 남녀 사람들을 접촉하시는 경우뿐인데 이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거절이란 기적이었다.

8:18-20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동쪽으로 가기 위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려 하는데 한 자신감에 찬 서기관이 나아와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예수님께 간청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대가(자기를 부인하는 삶)를 계산하도록 그에게 도전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분은 공사역 기간에 그 자신의 집은 없으셨으나 반가운 손

¹²⁾ Arno C. Gaebelien, *The of Matthew*, P. 193.

님으로 영접을 받고 잠잘 곳을 제공받은 집은 있으셨다. 그분의 말씀의 진의는 영적인 면에 있는 듯하다. 이 세상은 그분에게 진정하고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었다. 그분은 할 일이 있었으며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는 쉴 수 없으셨다. 그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세상은 그들의 안식처가 아니다.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

8:21 또 한명의 좋은 뜻을 품은 제자가 그분을 좇겠다는 의사를 표했으나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부친이 이미 죽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근본 문제는 “주여 나로 먼저…”라는 모순된 고백 속에 표현되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보다 앞세웠다. 물론 부친을 정성스레 장사하는 것은 합당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한 가치 있는 행위가 구주의 부르심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할 때는 그릇되게 되는 것이다.

8:22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첫째 의무는 나를 좇는 것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구원받지 않은 자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진정 영원한 것에 네 삶의 최선을 바치라. 사소한 일에 그것을 소모하지 말라.”

우리는 이 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에서 인락한 거처를 마련하고 부차적인 것을 얻는데 그들의 삶을 소모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암시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본문에서 예수님에 의해 선언된 제자도의 두 가지 조건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

다.

(6) 바람과 바다에 대한 권세(8:23-27)

8:23-27 갈릴리 바다는 갑작스럽고 광포한 폭풍으로 유명하다. 바람이 북쪽에서 요단 계곡을 타고 내려와 좁은 골짜기에서 가속화된다. 그 바람이 바다를 칠 경우 항해하기가 몹시 불안해진다.

이번에는 예수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가고 계셨다. 폭풍이 일 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무서워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며 도움을 호소했다. 그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은 바른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적은 믿음을 꾸짖으신 후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바다가 아주 조용해지자 그들은 바람과 바다도 그들의 겸손하신 승객에게 복종한 것을 기이히 여겼다. 우주의 창조주요 지탱자 되신 분께서 그 날 그 배에 계신 사실을 그들은 얼마나 적게 깨달았는지!

모든 제자들은 이따금씩 폭풍을 만난다. 때로 그것은 우리를 집어 삼킬 듯 덤벼들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배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바다와 땅과 하늘의 주인이 계시는 배는 어떤 물도 삼킬 수 없다.”

세상의 어떤 도움도 주 예수님처럼 삶의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없다.

(7) 두 귀신들린 자를 고쳐주심(8:28-34)

8:28 갈릴리 바다 동편에는 거라사¹³⁾ 지방이 있었다. 예수님은 그곳에 이르러 심히 사나운 두 귀신들린 자를 만나셨다. 이들은 동굴과 같은 무덤에 거했으며 너무 사나워서 사람들로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8:29-31 예수께서 다가가자 귀신들이 소리 질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은 예수께서 누구신지 또 그분이 결국 그들을 멸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의 신학은 오늘날 많은 현대 자유주의 학자들의 신학보다 훨씬 정확했다. 예수께서 그들을 사람들의 몸에서 쫓아내실 것을 알아채고 그들은 근처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많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8:32 매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을 허락하셨다. 천지의 주재께서 왜 귀신들의 요청을 허락하셨을까? 그분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다음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로 귀신들은 몸이 없는 상태를 기피한다. 그들은 인간 속에 거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동물이나 다른 짐승 속에 거하기를 원한다. 둘째로 귀신들의 목적은 예외 없이 파괴하는 것이다. 만일 예수께서 귀신들을 단지 귀신들린 자에게서 내쫓기만 하셨다면 귀신들은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해를 끼쳤을 것이다. 그분은 그들이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고 그들의 파괴적인 능력을 동물에게 제한시키셨다. 아직 그들이

13) (8:28) NU 본문은 “가다라”로 옮기고 있다. 마을이나 지역의 이름은 다소 중복될 수 있다.

주님에 의해 멸망당할 시기가 아니었다. 귀신들이 돼지 떼로 들어가자마자 돼지들이 비탈로 내리달려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다.

이 사건은 귀신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파괴하는 것임과, 두 사람이 2천 마리의 돼지(막 5:13)를 멸할 만큼의 엄청난 수의 귀신들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두려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8:33-34 돼지 치던 자들이 이 소식을 전하러 마을로 들어갔다. 그 결과 온 마을 주민이 예수께로 나아와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구했다. 그 후로 예수님은 돼지를 불필요하게 죽였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분은 동물보다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까닭에 그곳을 떠나라는 요청을 받으신 것이다. 만일 이 거라사인들이 유대인들이었다면 돼지를 치는 것은 불법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이든 아니든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두 귀신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것보다 돼지 떼를 더 소중히 여긴 것이었다.

(8) 죄를 사하는 권세(9:1-8)

9:1 거라사인들에게 거절을 당하신 후 구주께서는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 나사렛 사람들이 그분을 죽이려 한 후로 그분의 고향이 돼버린 가버나움(눅 4:29-31)에 들어가셨다. 여기서 그분은 가장 큰 기적 중 몇 가지를 행하셨다.

9:2 네 사람이 천으로 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분에게 나왔다. 마가의 기사는 군중 때문에 그들이 지붕을 뜯고 아래로 환자를 내려보냈다고 기록한다(막 2:1-12).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점을 주목하라. 믿음이 사람들로 환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가도록 자극했으며, 환자의 믿음이 그로 치료를 얻기 위해 예수께로 나오게 했다. 우리 주님은 먼저 그의 죄가 사해졌다는 말씀으로 그 믿음에 보상하셨다. 이 위대한 의사께서는 병의 증상을 다루기 전에 그 근원을 제거하셨는데 이는 먼저 더 큰 축복을 내리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풀지 않은 채로 사람을 치료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9:3-5 어떤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듣고 속으로 그분을 신성 모독 죄로 고소했다. 결국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으며 그들은 확실히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자 하지 않았다! 전능하신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불신앙의 악이 있음으로 인해 그들을 꾸짖으신 다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 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는지 물으셨다. 사실 둘 다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어느 것이 행하기에 더 쉬울까? 둘 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첫 번째 명령의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반면에 두 번째 명령의 결과는 즉시로 식별이 가능하다.

9:6-7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서기관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 그들이 “볼 수 있는” 기적을 제시하신 것이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돌이켜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9:8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두 가지 감정(놀람과 두려움)을 나타냈다. 그들은 명백히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서 두려워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적에 담긴 의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중풍병자에 대한 그 “눈에 보이는” 치료는, 인간의 죄가 사해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을 확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여기서 그들은 그들이 목도한 바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한 표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位) 안에서 그들이 가운데 함께 계신 것에 대한 표증임을 깨달았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그들이 불신앙과 증오심 가운데 마음이 더욱 굳어졌을 뿐임을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 알게 된다.

(9) 세리장 마태를 부르심(9:9-13)

9:9 구주 주위에 형성되던 긴장된 상황은 그 자신의 부름에 대한 마태의 간략하고 겸손한 기사에 의해 잠시 완화된다. 세리장인 그와 동료 관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몹시 미움을 받았는데 이는 그들의 부정과 과중한 과세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제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세관을 지나치시다가 마태에게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마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전통적으로 부정한 일자리를 버리고 즉시 일어나 그분을 좇았다.

어떤 이의 표현대로 “그는 안락한 직업을 잃은 대신 운명을 얻었다. 그는 좋은 수입을 잃은 대신 영예를 얻었다. 그는 안락한 안전을 잃은 대신 꿈도 꺾보지 못한 모험을 얻었다.” 그는 열 두 제자의 한 사람이 되었으며 그의 이름을 지닌 복음서를 기록하는 영예를 누렸다.

9:10 여기에 묘사된 식사는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눅 5:29).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고백하고 동료들에게 구주를 소개하는 방법이었다. 따라서 손님들은 세리들과, 일반적으로 죄인으로 알려진 다른 사람들이었다.

9:11 이 당시는 침상에 기대어 식탁을 대면하고 먹는 것이 습관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따돌림 받는 부류의 사람들과 이런 식으로 사귀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분을 “죄인들과 어울린” 죄목으로 고소했다. 확실히 어떤 진정한 선지자도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을 것이다!

9:12 예수께서 그 말을 어깨 너머로 들으시고 대답하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영적으로 몹시 병든 상태로써 치료를 절실히 필요로 했다.) 그와 대조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은 기꺼이 그들의 진정한 상태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그 고소는 사실이였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 설령 그분이 바리새인들

과 식사를 하셨더라도 그 고소는 여전히 사실이었을 것이다. 아마 더욱 그리했을 것이다! 만일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세상 죄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항상 홀로 식사를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그분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으나 결코 그들의 악한 길에 빠지거나 그분의 간증을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분은 그러한 기회를 사람들에게 진리와 거룩을 일깨우는데 사용하셨다.

9:13 바리새인의 문제는 그들이 유대교의 의식을 엄밀하게 준수했지만 그 마음은 강퍽하고 냉랭하고 무정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공흘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호세아 6장 6절에서 인용)의 의미를 배우라고 도전하심으로 그들을 물러나게 하셨다.

비록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제정하셨지만 그분은 그 의식이 내적인 의의 대체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하나님은 의식주의자가 아니며 그분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범한바 개인적인 경건이 결여된 의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율법의 문자는 준수했으나 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 대해 아무 동정도 없었다. 그들은 그들처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들과만 사귀어 가졌다.

그와 대조적으로 주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그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제사뿐만 아니라 공홀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도 완전히 성취하셨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으므로 그분은 모든 사람을 회개케 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나 여기서의 뜻은 그분의 초청은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유효하다는 것이

다. 그분은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치료도 베풀 수 없다.

(10) 금식에 대한 질문(9:14-17)

9:14 이즈음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던 것 같다. 그의 제자들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왔다. 그들은 종종 금식을 했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지 않았다. 그 까닭은?

9:15 주님은 한 가지 예를 들어 답변하셨다. 그분은 신랑이고 제자들은 혼인집 손님들이었다. 그분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은 애곡의 표로 금식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서 취함을 입을 것이며 그 때는 그분의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다. 그분은 죽음과 장사됨으로 인해 그들에게서 취함을 입었으며 승천 이후로는 육체적으로 제자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금식을 명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그것을 신랑의 귀환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한 적절한 연단수단으로 인정한다.

9:16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 제기된 질문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요한이 한 시대의 마감을 인치고 새로운 은혜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도록 자극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두 시대의 원리가 혼합될 수 없음을 보여주신다. 율법과 은혜를 혼합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생베 조각을 사용해서 낡은 옷을 수선하려는 것과도 같다. 세탁을 할 경우 그 생베 조각은 오그라들어 낡은 옷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면 헤어짐이 어느 때보다 더 할 것이다. 계벨

라인은 이렇게 적절하게 지적한다.

“은혜와 복음을 고백하면서 율법을 지키려 하고 율법적인 의를 고양하는 유대적인 기독교는 우상을 숭배하던 과거의 입술의 고백 뿐인 이스라엘보다 하나님ی 보시기에 한결 더 가증스런 것이다.”¹⁴⁾

9:17 그 두 시대의 혼합은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것과도 같다.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생긴 압력이 이미 탄력을 잃어버린 낡은 가죽부대를 터지게 만들 것이다. 복음의 생명과 자유는 의식주의의 낡은 가죽부대를 못 쓰게 만든다.

기독교 시대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긴장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기쁨은 구약의 형식과 의식 안에 담겨질 수 없다. 전혀 새로운 질서가 있어야 한다. 페팅길(W.L. Pettingill)은 이 점을 이렇게 명료하게 밝힌다.

“이와 같이 왕은 옛 것을 새 것과 혼합하는 것에 대해 그분의 제자들에게 경계하신다.…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 행해진 일이다. 교회가 있는 곳마다 유대교가 부가되고 적용되어 왔으며 그 낡은 옷에는 ‘기독교’라는 상표가 붙어 있다. 그 결과 유대교도 기독교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죽은 행실로 의식적으로 대체시킨 것에 불과한 혼란스런 혼합물이 생겨났다. 값없는 구원의 새 포도주가 율법주의의 낡은 가죽부대 속에 부어졌으니 그 결과는 어떠한가? 부대가 터져 못 쓰게 되고 포도주가 옆질러지고 소중한 생명수가 대부분 소실되었다. 율법은 은혜와 혼합된 까닭에 그 임위를 잃어버렸고, 은혜는 율법의 행위와 혼합된 까닭에 그 아

14) (9:16) Gaebelein, *Matthew*, P. 193

름다움과 은혜로서의 속성을 잃어버렸다.”¹⁵⁾

(11)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권세(9:18-26)

9:18-19 시대의 변화에 대한 예수님의 강화는 방금 딸아이가 죽어 크게 상심한 회당장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와서 딸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동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귀히 여기사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9:20 또 하나의 방해가 있었다! 이번에는 열 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해온 여자였다. 예수님은 그러한 방해에 대해 결코 짜증 내지 않으셨다. 그분은 항상 평정을 유지했으며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9:21-22 의학은 이 여자를 치료할 수 없었다. 사실 그녀의 상태는 더욱 악해졌다(막 5:26). 그녀는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녀는 그분이 무리에 둘러싸인 것을 보았다. 그분이 그녀를 고치실 능력과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고 믿고 그녀는 무리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다. 진실한 믿음은 그분이 알지 못한 채 행사되는 법이 없다. 그분은 돌이켜 그녀가 고침을 받았다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즉시로 그 여자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몸이 온

15) (9:17) W. L. Pettingill, *Simple Studies in Matthew*, PP. 111,112.

전해졌다.

9:23-24 이제 본문은 딸이 죽은 회당장에게로 돌아온다. 예수께서 그 집에 도착하자 직업적으로 곡하는 무리가 의례적으로 울고 있었다. 그분은 조객들을 방에서 나가도록 명을 내리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주님께서 잠잔다는 말을 죽음을 상징하는 뜻으로 사용하셨다고 믿는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아이가 혼수상태였다고 믿는다. 이러한 해석은 예수께서 그 아이가 죽었더라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예수께서 너무 정직하신 나머지 그녀가 실제로 죽지 않았으므로 죽은 자를 살리는 체하지 않으셨다고 말해주는 셈이 된다. 로버트 앤더슨 경이 그러한 견해를 주장했다. 그는 부친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죽었다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녀가 죽지 않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9:25-26 어쨌든 주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으시매 기적이 일어나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곧바로 이 기적의 소문이 온 지방에 널리 퍼졌다.

(12)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권세(9:27-31)

9:27-28 예수께서 회당장이 사는 마을을 떠나가시는데 두 소경이 뒤를 따르며 눈을 뜨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이들은 비록 자연적인 시력은 상실당했지만 예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름으로써 그분을 오랫동안 기다리

던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의의 왕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올 때 그분의 신임장 중 하나는 소경을 보게 하는 것임을 알았다(사 61:1). 자신이 능히 이 일(그들에게 시력을 주는 일) 할 줄을 믿는지 여부를 물으심으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자 그들은 주저 없이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대답했다.

9:29-30 이에 위대한 의사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그들이 믿은 까닭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즉시 그들의 눈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인간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보리라 고 하지 아니하였느냐?”(요 11:40)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우리가…안다”고 했으며(히 11:3), 사도 요한은 “내가…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다(요일 5:13). 하나님은 먼저 기적을 요구하는 그런 믿음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단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기를 원하신다.

왜 예수께서 고침 받은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계하셨는가? 8장 4절의 주해에서 우리는, 아마 그분을 왕위에 앉히려는 때 이른 운동을 조장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백성들은 아직 회개치 않았고 그분은 그들이 다시 태어날 때까지는 그들을 다스릴 수 없으셨다. 아울러,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혁명적인 봉기는 로마 정부를 자극하여 유대인들에 대한 무서운 보복을 불러올 것이다. 이 모든 것 외에, 주 예수님은 왕으로 다스리기 전에 먼저 십자가로 나아가셔야만 했다. 갈보리를 향한 그분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에 배

치되었다.

9:31 눈이 밝아진데 대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서 그 두 사람은 그들이 기적적으로 고침 받은 사실을 널리 전파했다. 우리는 그들의 기쁨에 찬 증거를 동정하거나 심지어 동경하고픈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그들이 어리석게도 불순종했으며, 필연적으로 성령에 감화된 관심보다는 저열한 호기심만을 자극하여 유익보다 해를 더 많이 끼쳤을 것이라는 것이다. 감사한 마음조차도 불순종에 대한 타당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13) 병어리의 입을 여는 권세(9:32-34)

9:32 먼저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 다음 소경을 보게 하고 이제 병어리의 입을 여셨다. 이 기적들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 보이는데, 먼저는 생명이요, 그 다음은 지각, 그리고 그 다음은 증거인 것이다.

악한 영이 이 사람을 병어리 되게 했다. 어떤 사람이 친절하게도 그 귀신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왔다.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 받은 많은 이름 없는 고귀한 무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9:33 귀신이 쫓겨나자마자 병어리가 말을 했다. 아마 그는 자기를 그토록 은혜롭게 고쳐주신 분을 위해 자신의 회복된 언어 능력을 예배와 증거에 사용했을 것이다. 일반 대중은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기적을 목격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9:34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반응했다. 예수님은 후에 이것을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로 지적하셨다(12:32). 그분께서 성령을 힘입어 이루신 기적을 사단의 능력으로 돌리는 것은 성령에 대한 신성모독이었다. 다른 이들은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길을 통해 축복을 받고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죽고, 소경되고, 병어리된 채 머물러 있었다.

6. 이스라엘에게 보내진 메시아-왕의 사도들(9:35-10:42)

(1) 추수할 일꾼이 필요함(9:35-38)

9:35 이 구절은 3차 갈릴리 순회사역으로 알려진 부분을 시작한다. 예수님은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혹은 그 나라)복음, 즉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만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파하셨다. 천국에 대한 진정한 제의가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 만일 이스라엘이 그것을 수락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성경은 이 문제에 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든 시대의 죄인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의로운 근거를 제공해주기 위해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치고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을 고쳐 주셨다. 기적은 겸비한 은혜 가운데 이뤄진 메시아의 초림을 특징지을 뿐 아니라 권능과 큰 영광중에 이뤄질 그분의 재림도 특징지을 것이다 (히 6:5: “내세의 능력”).

9:36 그분은 고생하며 유리하는 이스라엘 무리를 목자 없는 양

과 같이 보셨다. 그분의 깊은 동정심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오, 길을 잃고 죽어가는 자들의 영적인 복지를 바라는 저 깊은 열망을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기를. 우리는 얼마나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

“내 구주께서 그러하셨듯이
무리를 바라보게 하소서.
내 눈이 눈물에 젖어
앞이 침침해질 때까지 그리하게 하소서.
방황하는 양떼를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그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9:37 영적으로 추수할 일은 많았으나 일꾼은 적었다. 이 문제는 오늘날까지 지속되어온 듯하다. 필요가 항상 그것을 채우는 노동력을 초과하는 실정이다.

9:38 주 예수님은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여기서 필요가 곧 일꾼을 보내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라. 일꾼은 보냄을 받기 전에는 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암흑한 땅에 보내셨네.
그 못 박힌 손으로 친히 안수하신
그 거룩한 수임식으로 말일세.”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으셨다. 어떤이는 성령이라고 생각한다. 10장 5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을 보내 시는데, 이로 보아 그분 자신이 이 세계 복음화 문제를 두고 우리가 일꾼을 요청해야 할 추수할 주인임이 분명해 보인다.

(2) 열두 제자의 부르심(10:1-4)

10:1 9장 마지막 구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더 많은 일꾼을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다. 그러한 요청이 진실된 것이 되려면 신자 자신이 기꺼이 가야만 한다. 그러기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자신의 열 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본다. 그분은 앞서 그들을 택하신바 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특별한 전도사역을 위해 그들을 부르신다. 부르심과 함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이 부여되었다. 여기에 예수님만의 독특한 면모가 나타나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기적을 행했었으나 다른 이에게 권능을 부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10:2-4 열두 사도는 다음과 같았다.

(1) 베드로라 하는 시몬-충동적이고 대범하고 정에 약한 사람으로서 타고난 지도자였다.

(2) 그의 형제 안드레-세례 요한에 의해 예수님께 인도된(요 1:36, 40) 뒤에 그의 형제 베드로를 그분께 인도했다. 그 후로 그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을 그의 임무로 삼았다.

(3)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후에 헤롯에게 죽임을 당해(행 12:2) 열 두 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4) 그의 형제 요한-역시 세베대의 아들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네 번째 복음서와 세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이 그의 손을 통해 기록되었다.

(5) 빌립-벧세다 사람으로 나dana엘을 예수께로 인도했다. 사도 행전에 나오는 전도자 빌립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6) 바돌로매-예수께서 아무 간사함도 발견치 못한 이스라엘인 나dana엘(요 1:47)과 동일 인물로 믿어진다.

(7) 도마-“쌍둥이”를 뜻하는 디두모로도 불리운다. 흔히 “의심 많은 도마”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의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훌륭한 고백을 낳게 했다(요 20:28).

(8) 마태-이 복음서를 기록한 전(前) 세리장.

(9)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10) 다대오라는 성을 가진 렵바오-야고보의 아들 유다로도 알려졌고(눅 6:16)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유일하게 그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11) 가나안인 시몬-누가는 셀롯인으로 부른다(눅 6:15).

(12) 가롯인 유다-우리 주님을 배반한 자.

제자들은 이 당시 20대 연령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평범한 능력을 지닌 젊은이로서 삶의 다양한 모습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이들의 진정한 위대함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3) 이스라엘에 대한 전도 사역(10:5-33)

10:5-6 본장 나머지 부분은 “이스라엘 집”에로의 특별한 전도 여행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이것은 이후에 70인을 보낸 일(눅 10:1)과 지상 대명령(마 28:19,29)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천국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특별한 목적을 지닌 일시적인 사역이었다. 어떤 원리들은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한편, 어떤 원리들은 후에 주 예수님에 의해 철회되었다. 이는 후자의 원리들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 준다(눅 22:35-36).

먼저 행로가 주어졌다. 그들은 이방인이나, 혹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혼합 민족인 사마리아인에게는 가지 말아야 했다. 그들의 사역은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 제한되었다.

10:7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만일 이스라엘이 거절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었는데, 이는 그들에게만 공적인 선포가 주어졌기 때문이었다. 천국이 왕의 위(位) 안에서 임박했다. 이스라엘은 그분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결정해야 했다.

10:8 제자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확증할 신임장을 받았다. 그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¹⁶⁾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으며(고전 1:22) 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들에게 표적을 허락하신 것이다.

보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주님의 대리인들은 그들의 봉사에 대해 아무 요구도 해서는 안 되었다. 그들은 대가 없이 축복을 받았기에 역시 아무 대가 없이 축복을 나눠줘야 했다.

10:9-10 그들은 여행을 위해 아무 준비도 갖추 필요 없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인 중에 복음을 전하는 이스라엘인이었으며,

16) (10:8) 대부분 맛소라 사본은 “죽은 자를 일으키다”는 표현을 생략하고 있다.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잘 알려진 원리였다. 따라서 그들은 금, 은, 동이나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아마 여분의 신과 지팡이를 가리키는 듯하다. 만일 이미 지팡이를 가졌을 경우에는 그것을 취하도록 허락이 되었다-막 6:8)를 가질 필요가 없었다. 요컨대 그들의 필요는 하루 단위로 공급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10:11 그러면 거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그들은 성에 들어가면 합당한 주인(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영접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기꺼이 들을 준비가 된)을 찾아가야 했다. 그리고 일단 그러한 주인을 발견하면 그 성에 있는 동안은 더 좋은 생활여건을 발견하더라도 떠나지 말고 그와 함께 머물러야 했다.

10:12-14 만일 어떤 집이 그들을 영접하면 제자들은 그 집 식구에게 평안을 고하면서 그러한 환대를 베푸는데 대해 정중한 감사를 표해야 했다. 반면에 만일 어떤 집이 주님의 사자들을 영접하기를 거절하면 그들은 그 집에 하나님의 평강을 빌 의무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그 가족에게 축복을 선포하지 말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발에 티끌을 털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이 그 집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타내야 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거절하는 집은 곧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었다.

10:15 그분은 그러한 거절이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보다 더 엄한 심판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이것은 지옥의 징벌에는 차등이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어떤 이들이 다른 이들보다 견디기 쉬울 수 있겠는가?

10:16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핍박 중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열 두 사도들에게 조언하신다. 그들은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아서 그들을 멸하려고 웅크리고 기다리는 사악한 자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뱀 같이 지혜로워서 불필요한 대응을 하거나 타협적인 상황에 말려들지 말아야 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여서 의로운 성품과 거짓 없는 믿음의 방패로 보호를 받아야 했다.

10:17 그들은 그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경계해야 했다. 그들에 대한 공격은 사회적인 동시에 종교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10:18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의 악을 누르고 승리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사악함을 지니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분의 길을 지니신다.” 패배로 보이는 순간에 제자들은 통치자와 이방인 앞에서 증거하는 비할 데 없는 특권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기독교는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왔는데 사실 “지도자의 위치에 임명된 자들에게 기독교만큼 도움을 준 종교도 없었다.”

10:19-20 그들은 시련 중에 어떻게 말할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들의 고소자들을 당황과 좌절에 빠뜨릴 만한 대답을 하도록 신령한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19절을 해석하는 데는 두 가

지 극단을 피해야 한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미리 메시지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단순한 견해이고, 둘째는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견해이다. 전도자는 특별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위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가 하면 위급한 순간에 모든 신자들이 신령한 직관으로 말하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성령의 대변자가 된다.

10:21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거역과 배신을 당해야 한다고 예고하셨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고 아버가 자식을 배신하고 자식이 부모를 밀고하여 처형을 당하게 할 것이다.

J. C. 맥컬리는 이렇게 적절히 표현한다.

“우리는 유명한 그리스도인들과 한가지로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다...좋은 대적의 손에서 주인이 친히 받은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만일 세상이 예수님에게 십자가 외에 줄 것이 없었다면 그분의 제자들에게 왕의 수레를 줄 리 만무하다. 만일 그분에게 가시관 뿐 이라면 우리에게 화관이 있을 리 없다...우리에게 증오할 만한 어떤 것이나 우리가 드러내는 은혜로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도록 스스로 삼가도록 하자.”¹⁷⁾

10:22-23 제자들은 모든 사람에게(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문화와 국적을 망라해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17) (10:21) J. C. Macaulay, *Obedient Unto Death: Devotional Studies in John's Gospel*, 11:59.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자체만으로 보면 본문은 지속적인 인내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처럼 보일 수 있다. 우리는 본문이 그런 뜻이 아님을 아는데, 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 없는 선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엡 2:8-9). 또한 본문은 그리스도께 계속 충성한 자들은 육체적인 죽음에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뜻일 수도 없는데, 이는 앞 구절이 충성된 제자들의 죽음을 예상케 하기 때문이다. 본문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설명은 진정 구원받은 자들의 표증은 인내라는 것이다. 핍박의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그들의 인내를 통해서 그들이 참 신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발견되는데 거기서는 대환란 동안 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타협하기를 거절하는 신실한 유대인 잔존자들을 가리킨다. 그들의 인내가 그들이 진실한 제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미래의 일을 다루는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종종 가까운 미래에서 먼 미래로 훌쩍 뛰신다. 예언은 부분적이고 직접적인 의미를 지닐 수도 있고 완전하고 보다 먼 성취를 내다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두 번의 출현이 아무 설명 없이 한 구절 속에 나타날 수도 있다(사 52:14-15; 미 5:2-4). 22-23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와 같은 예언상의 시간추월을 보여주신다. 그분은 한편으로는 열 두 제자들에게 그들이 그분을 위해서 당할 고난을 경고 하시며, 한편으로는 그들을 대환란 동안 그분의 현신된 유대인 제자들의 모형으로 보시는 것 같다. 그분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시련에서 그분의 재림에 앞서 있게 될 신자들의 시련으로 훌쩍 뛰어 넘고 계신다.

23절 전반부는 열 두 제자를 가리킬 수 있다.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리로 피하라…” 만일 도피할 좋은 방법이 있다면 굳이 대적의 압제 아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다. “위험을 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

23절 후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는 날들로 인도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열 두 제자의 사역을 가리킬 리가 없는데 이는 인자가 이미 와 계신 상태이기 때문이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그 재난이 어떻게 “인자의 오심”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그분의 재림과 관계된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 한결 타당해 보인다. 대환란 동안 그리스도의 신실한 유대인 형제들은 천국 복음을 들고 나아갈 것이다. 그들은 핍박과 추적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을 다니기 전에 주 예수께서 그분의 대적을 심판하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23절과 마태복음 24장 24절 사이에는 모순이 있게 보일 수도 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실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24장에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인자가 오실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무 모순도 없다. 반드시 모든 개개인에게는 아니지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극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전도자들은 이스라엘에서 가혹한 핍박과 방해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다.

10:24-25 주님의 제자들은 왜 그들이 핍박을 견뎌야 하는지 궁

금한 때가 종종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실진대 왜 그분의 제자들이 다스리는 대신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가? 24-25절에서 그분은 그들의 의구심을 내다보시고 그들의 그분과의 관계를 상기시킴으로써 그에 답변하신다. 그들은 제자이고 그분은 그들의 선생이셨다. 그들은 종이고 그분은 그들의 상전이셨다. 그들은 집 사람들이고 그분은 집 주인이셨다.

제자도란 선생을 뛰어넘는 것이 아닌 선생을 쫓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종은 그의 주인보다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만일 사람들이 그 집의 합당한 주인을 “바알세불”(“파리의 왕”, 유대인들이 사단을 가리켜 사용한 에그론 족의 신)이라 부른다면, 그 집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심한 모욕을 퍼부을 것이다. 제자도는 주님의 거절당함에 동참하는 것을 내포한다.

10:26-27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 번 말씀하셨다(26,28,31절). 먼저 그들은 대적의 외형상의 승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장차 그분의 목적이 영광스럽게 승리를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복음이 다소 가려졌고 그분의 가르침이 비교적 숨겨졌다. 그러나 곧 제자들은 이 시점까지 비밀히, 즉 사적으로 그들에게 전해진 기독교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해야만 한다.

10:28 둘째로, 제자들은 사람들의 격노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몸을 죽이는 것이다. 육체적인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최대의 비극이 아니다.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며 따라서 더 좋은 것이다. 그것은 죄와 슬픔,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영원한 영광으

로 옮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외경심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소망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가장 큰 손실이다. 영적인 죽음은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이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면해야 할 운명이다.

28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존 낙스의 묘비에 새겨진 다음의 글귀를 생각나게 한다.

“여기에 하나님을 극히 두려워하여 아무 사람의 낫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워 있다.”

10:29 극렬한 시련의 와중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 주 예수님은 쉬 눈에 띠는 참새를 통해서 이 사실을 가르치신다. 이 하찮은 새 두 마리가 동전 한 닢에 팔렸다. 그러나 그 중 하나도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서는, 즉 그분의 지식 혹은 임재를 벗어나서는 죽지 못한다. 어떤 이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모든 참새의 장례식에 참석하신다.”

10:30-31 보잘 것 없는 참새 한 마리에도 개인적인 관심을 두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 개개인의 머리카락을 정확히 헤아리고 계신다. 머리카락 한 올은 참새보다 훨씬 무가치하다. 그분의 백성은 그분에게 많은 참새보다 가치가 있다. 그럴진대 왜 두려워하는가?

10:32 앞의 교훈들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람 앞에서 두려움 없이 그분을 시인하는 것보다 더 타당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받을 모든 수치와 비난은 주 예수께서 그분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시인하실 때 하늘에서 풍성히 보상될 것이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주와 구주되신 그분께 자신을 드리고 그로써 삶과 입술을 통해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내포한다. 열 두 사도 중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것이 순교를 통해 주님을 끝까지 시인하게끔 했다.

10:33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하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것을 뜻한다. 그 삶이 결과적으로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해”라고 말하는 자들은 훗날 그분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경우처럼 외부의 압력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궁극적으로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다.

(4) 화평이 아니라 검(10:34-39)

10:34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분의 오심의 가시적인 결과들을 그 명백한 목적으로 묘사한 하나의 수사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분은 자신이 화평이 아닌 검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신다. 사실 그분은 화평케 하려고 오셨다(엡 2:14-17). 그분이 오신 것은 세상이 그분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요 3:17).

10:35-37 그러나 여기서의 요지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사람마다 가족의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구원받은 아버지는 믿지 않는 아들의 반대를, 그리스도인인 어머니는 구원받지 못한 딸의 반대를, 그리고 거듭난 시어머니는 거듭나지 못한 며느리의 미움을 당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가족 사이에 어느 한 쪽을 택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어떤 자연적인 결속도 제자를 주님께 대한 전적인 충성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구주께서 부모나 자녀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셔야 한다. 제자도의 대가 중 하나는 가족 사이에서 긴장과 다툼과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의감은 종종 다른 생활영역에서 직면하는 시련보다 한결 고통스럽다.

10:38 그러나 가족보다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의 마땅한 자리를 빼앗기가 더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덧붙이셨다. 십자가는 물론 처형수단이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좇는다는 것은 죽음조차도 기꺼이 치를 정도로 완전히 자신을 그분께 맡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모든 제자가 주님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그들의 생명조차 소중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분을 지극히 높이 받들어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10:39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자기 보존 본능을 압도해야 한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우리는 전적인 헌신의 삶이 가져올 고난

과 손실을 피함으로써 자기 생명을 끌어안으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자기만족을 위해 삶을 소비하는 것은 생명을 가장 낭비하는 것이다. 생명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드리는 것이다. 그분을 섬기기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그 생명의 진정한 완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5) 냉수 한 그릇(10:40-42)

10:40 모든 사람이 제자들의 메시지를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메시야의 대리인으로 인정하고 관대하게 영접할 것이다. 제자들은 그러한 친절에 보답할 능력이 부족할 것이나 그 때문에 조바심할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행해진 모든 대접은 주님께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았다(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를 대신하므로). 그를 임명한 정부를 대신하는 위치에 있는 대사를 영접하는 것은 그의 국가와 외교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이다.

10:41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A. T. 피어슨은 이렇게 설명한다.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상을 최대의 상으로 여겼다. 이는 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제사장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한편 선지자는 제사장과 왕을 교훈하기 위해 여호와께로서 왔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

기만 해도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가령 당신이 설교자에 대해 비평을 하는 습성이 있다고 가정해 보라! 만일 당신이 그로 하나님 편에서 말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준다면 당신은 그의 상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그를 낙담시킨다면 당신은 당신의 상을 잃게 될 것이다. 선을 행하고자 애쓰는 사람을 돕는 것은 큰일을 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의 복장이나 몸가짐, 목소리 등을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보고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이 사람이 내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만일 그렇다면 그를 영접하고 그의 말과 일을 존귀히 여기라. 그리하면 그의 상에 참여케 될 것이다.”¹⁸⁾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외형적인 매력이나 물질적인 유복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은 참된 도적적 가치는 종종 매우 겸허한 외양 속에 숨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극히 평범한 제자를 대하는 태도는 곧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말해준다.

10:42 예수님의 제자에게 베풀어진 어떤 친절도 그냥 지나쳐지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에게 왕적인 위엄을 부여함으로써 주님은 열 두 사도에게 내리신 특별한 가르침을 마감하신다. 물론 그들은 반대와 거절과 체포와 심문과 투옥과 그리고 아마도 죽음까지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왕의 대리인이며 또 그분을 위해

18) (10:41) Arthur T. Pierson, *“The Work of Christ for the Believer,” The Ministry of Keswick, First Series*, P. 114.

말하고 행동하는 영광스런 특권을 지녔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7.

증대하는 반대와 거절(11-12장)

(1) 세례 요한의 투옥(11:1-9)

11:1 이스라엘 집에 대한 특별한 일시적인 사역을 위해 열 두 사도를 보내신 다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전에 살던 갈릴리 성에서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 그곳을 떠나 가셨다.

11:2-3 이즈음 요한은 헤롯에 의해 옥에 갇혀 있었다. 그는 실의와 외로움에 빠져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만일 예수께서 진정 메시아라면 왜 그분의 선구자로 하여금 이렇게 옥에 갇혀 고통을 당케 하시는가?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요한은 잠시 믿음의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그리하여 그는 두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서 정말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분이신지, 아니면 기름부음 받은 자를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지 물어보았다.

11:4-5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된 기적들을 행하고 있음을 요한에게 상기시키라고 답변했다. 소경이 보고(사 35:5), 앓은뱅이가 걷고(사 35:6),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사 53:4; 마 8:16-17), 귀머거리가 듣고(사 35:5), 죽은 자가 살아난다(이것은 메시아

에 대해 예언되지 않은 일로 다른 예언된 기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또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도 요한에게 상기시키셨다. 일반 종교 지도자들은 종종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나, 메시아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

11:6 그리고 구주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덧붙이셨다. 만일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야말로 지나친 자화자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상 그 말은 그분의 인격적인 온전함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다. 메시아는 위풍당당한 군대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대신 초라한 목수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은 군사적인 메시아의 당당한 모습과 거리가 멀었다. 육신의 욕구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그분의 왕권 주장을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통찰로 나사렛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로 인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 것이다.

6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책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의 믿음은 때때로 확증 내지 강화를 필요로 하는 법이다. 일시적으로 믿음이 떨어지는 것과 주 예수님의 참 신분에 대해 영원히 실족하는 것은 전연 별개의 문제이다. 한 인간의 생애는 결코 한 사건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요한의 생애 전체를 볼 때 우리는 충성과 인내에 대한 기록을 발견케 된다.

11:7-8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확증의 말을 듣고 떠나자 주님은 무리에게 돌이켜 세례 요한을 극찬하는 말씀을 하셨다. 이 무

리는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할 때 모여들었던 그 무리였다. 왜 그들이 광야로 나갔던가? 인간의 견해라는 모든 지나치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하고 요동하는 인간이라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였는가? 아니다! 요한은 양심의 화신이라고 할 만한 두려움을 모르는 전도자로서 침묵보다는 고통당하는 것을, 거짓을 말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당하기를 원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광야로 나간 것은 좋은 옷을 입고 안락과 사치를 즐기는 궁중의 귀인들을 보기 위해서였는가? 아니다! 요한은 금욕적인 삶을 통해 사람들 중에 만연된 세속성을 꾸짖은 단순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11:9 그러면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로 나간 것인가? 그렇다. 요한은 선지자였다. 사실 그는 선지자 중 가장 큰 자였다. 주님은 여기서 그가 인품과 웅변과 설득력이 남보다 뛰어났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왕의 선구자로서의 위치로 인해 더 위대하다고 하신 것이다. 이 점은 10절에서 분명해졌다.

11:10 요한은 말라기의 예언(3:1)의 성취로써 주님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예비토록 할 사자였다. 다른 이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반면 요한은 그분의 실제적인 도래를 선언하도록 택함 받은 자였다. 혹자는 “요한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예비한 다음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에서 물러났다”고 적절히 표현했다.

11:11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는 말

씀은 예수께서 요한의 인품이 아닌 특권을 말씀하고 계심을 입증해 준다. “천국에서 극히 작은” 사람은 요한보다 더 나은 인품은 소유하지 못한다 해도 그보다 더 큰 특권은 소유하고 있다.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천국의 도래를 선언하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다. 요한의 특권은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점에서 중요했다. 그러나 그는 살아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는 못했다.

11:12 요한의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현재 그가 투옥된 시점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해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으며, 헤롯왕은 그 선포지를 체포함으로써 천국의 도래를 저지하는데 한 몫 거들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는다. 이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로, 천국의 대적들은 천국을 멸하려고 그것을 빼앗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이 요한을 거절한 것은 왕 자신의 거절과 나아가서 왕국의 거절을 예표해주었다. 반면에 본문은, 왕의 출현을 맞이할 준비가 된 자들은 왕이 오셨다는 선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왕국에 들어가려고 온 정성을 기울였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이것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의 의미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노하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밖에서 두들기며 애쓰고 있는 포위된 성으로 묘사되어 있다. 모종의 영적인 침노가 필요한 것이다.

어떤 의미를 택하든 근본 개념은, 요한의 전파는 폭넓고 깊은 결과를 낳은 엄청난 반항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11:13 창세기에서 말라기에 이르는 구약성경 전체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했다. 그러나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의 역할은 예언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모든 예언의 성취를 선언하는 것이었다.

11:14 말라기는 메시아가 출현하기 전에 엘리야가 선구자로 올 것이라고 예고한바 있다(말 4:5-6). 만일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꺼이 영접했다면 요한은 엘리야의 역할을 완수한 셈이었다. 요한은 엘리야가 환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에 앞서 온 것이다(눅 1:17).

11:15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그의 사역의 깊은 의미를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주의를 기울이라고 덧붙이셨다. 너희가 듣는 말씀의 의미를 놓치지 말라. 만일 요한이 엘리야에 관한 예언을 성취했다면 그렇다면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셨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공로를 인정함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재확증하셨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연 다른 하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1:16-17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세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받아들인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메시아-왕을 보는 특권을 누린 유대인들은 메시아나 메시아의 선구자에게 아무 흥미도 없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

편 곡조에도 만족하기를 거절하는, 장터에 앉은 성마른 아이들에 비유했다. 친구들이 피리를 불어주어도 그들은 춤추기를 거절했다. 친구들이 장례식 놀이를 해도 그들은 애곡하기를 거절했다.

11:18-19 요한이 금욕주의자의 모습으로 왔더니 유대인들은 그를 귀신들렸다고 고소했다. 반면에 인자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먹고 마셨다. 요한의 금욕주의가 그들을 불편하게 했다면 확실히 그들은 예수님의 보다 정상적인 식생활에 대해서는 기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렀다. 물론 예수님은 과도하게 먹거나 마시지 않으셨다. 그들의 고소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었다. 그분은 물론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지만 저들이 말하는 식으로는 아니었다. 그분은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지만 그들의 죄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으셨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주 예수님은 물론 인격화된 지혜이시다(고전 1:30). 믿지 않는 자들이 그분을 비방할지라도 그분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 지지를 받으신다. 비록 많은 유대인의 무리가 그분을 메시아-왕으로 인정하기를 거절했지만 그분의 주장은 그분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헌신된 제자들의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완전히 입증되었다.

(2) 회개치 않는 갈릴리 성읍들에 대한 저주(11:20-24)

11:20 커다란 특권은 커다란 책임을 가져온다. 고라신, 벳새다,

그리고 가버나움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린 성은 없었다.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께서 그 먼지 나는 길을 거니셨고 그 아끼는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대부분의 권능을 그 성 내부에서 행하셨다. 이러한 넘치는 증거들을 보고도 그들은 완고하게 회개하기를 거절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엄위한 운명을 선포하신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

11:21 먼저 그분은 고라신과 벳새다를 저주하셨다. 이 성들은 그들의 구주-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청을 듣고도 고의적으로 그분을 외면했다. 그분은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한 두로와 시돈의 성들을 회상하셨다. 만일 그 성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특권을 누렸다면 자복하고 깊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고라신과 벳새다보다 형편이 나을 것이다.

11:22 “심판 날에…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는 말씀은 천국에서 상급의 차이가 있듯이(고전 3:12-15) 지옥에서도 징벌의 차이가 있음을 암시해 준다.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유일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것이다(요 3:36). 그러나 지옥에서의 고통의 정도는 거절된 특권과 탐닉된 죄에 따라 차이가 있다.

11:23-24 가버나움처럼 은총을 입은 성읍도 없었다. 그곳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신 후로 그분의 고향이 되었으며(9:1; 막 2:1-12), 그분의 가장 놀라운 기적 중 몇이(그분의 메시아되심의 논박할 수 없는 증거들) 그곳에서 행해졌다. 만일 동성연애의 본고장인 사악한

소돔이 그러한 특권을 누렸다면 소돔은 회개하여 보존되었을 것이다. 실로 가버나움의 특권은 컸다. 그곳 백성들은 마땅히 회개하고 주님을 기꺼이 시인했어야 했다. 그러나 가버나움은 그 기회의 때를 잃고 말았다. 소돔의 타락의 죄는 컸다. 그러나 가버나움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거절한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그러므로 소돔은 심판날에 가버나움만큼 가혹하게 징벌 받지 않을 것이다. 특권에 있어 하늘에까지 높아진 가버나움은 심판시에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만일 이것이 가버나움에게 사실일진대, 오늘날 성경이 넘치도록 보급되고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 핑계할 근거가 없는 지역들에게는 얼마나 더욱 사실이겠는가.

우리 주님 당시 갈릴리에는 고라신, 벳새다, 가버나움, 디베라 등 네 이름난 성읍들이 있었다. 그분은 앞의 세 성읍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선포하셨으나 디베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고라신과 벳새다는 완전히 파멸되어 그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가버나움의 위치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디베라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놀라운 예언의 성취는 구주의 전능하심과 성경의 영감성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이다.

(3) 거절에 대한 구주의 반응(11:25-30)

11:25-26 갈릴리의 세 성읍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는 눈도 없었고 그분을 사랑할 마음도 없었다. 그분은 그들의 태도가 곧 이어 대규모로 전개될 거절의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들의 완고함에 대해 그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분개와 냉소 혹은 복수심을 드러내는 대신 그분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을 좌절시킬 수 없음으로 인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

렸다.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가능한 오해를 피해야 한다.

첫째로, 예수님은 갈릴리 성읍들이 필연적으로 당할 심판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분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로부터 고압적으로 빛을 거두셨다고 뜻하신 것도 아니다.

이 성읍들은 주 예수님을 영접할 모든 기회를 소유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분께 복종하기를 고의로 거절했다. 그들이 빛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빛을 그들에게서 거두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 만일 지혜로운 자들이 믿으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분을 겸손한 심령들에게 계시하실 것이다. 그분은 주린 자를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신다(눅 1:53).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영적으로 소경이 되는 징별로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지혜 없음을 인정하는 자들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분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된다(골 2:3). 예수님은 어떤 이들이 그분을 소유할 마음이 없을 때는 다른 이들이 그분을 소유하도록 정하신데 대해 아버지께 감사드렸다. 팔복할 불신앙에 직면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목적 안에서 위로를 발견하셨다.

11:27 모든 것이 그분의 아버지에 의해 그리스도께 주어졌다. 다른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한다면 오만하기 짝이 없는 얘기가 되겠으나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은 진리를 단순히 표현하신데 지

나지 않는다. 반대가 왕성하던 그 때에는 그분께서 지배권을 쥐지 않으신 것 같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분의 삶의 여정은 최후의 영광의 승리를 향해 불가항력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리스도의 위(位)에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 신성과 인성이 한 위(位) 안에 결합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혼란케 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죽음의 문제를 보자.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의 신성과 인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믿을 수 있지만, 오직 아버지만이 진실로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이름의 지고한 신비는
피조물의 이해를 뛰어넘으니
오직 아버지만이 아들을 이해하실 수 있나이다
오 당신은 합당하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니
모든 무릎이 당신께 꿇을지이다!”(요시야 콘터)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역시 이해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이해할 만큼 크시다.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이나 지성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자신이 택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계시하실 수 있고 또 계시하신다. 아들을 알고 자 나아오는 모든 자는 아버지도 알고자 나아오는 것이다(요 14:7).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말한 뒤에 우리는 27절을 설명하는 과정

에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훨씬 벗어난 진리들을 다루고 있음을 고백해야만 한다. 우리는 희미하게 거울로 보고 있을 뿐이다. 영원 속에서도 우리의 유한한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육신의 신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들이 택하시는 자들에게만 아버지가 계시된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택함 받은 소수만이 그러한 혜택을 입는다는 극단적인 예정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 다음 구절은 그러한 해석을 거부하게 한다. 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에게 그분께 나아와 안식을 얻으라는 우주적인 초청을 선언하신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아버지를 계시하기로 택하시는 자들은 그분을 주님과 구주로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이 무한한 자비의 초청은 갈릴리의 은총 받은 성읍들에 의해 예수께서 무참히도 거절당하신 연후에 선언되었다는 점을 기억하라! 인간의 증오와 완고함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소멸시킬 수 없다. A. J. 맥클라인은 이렇게 말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련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왕께서는 마지막 선언을 통해 개인적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다. 아울러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이 심판의 문턱에서조차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신다.”¹⁹⁾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진실로 예수님께 나 오려면 자신이 죄짐에 시달리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이 잃어버린 자임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앞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19) (11:27) Alva J. Gospel McClain, *The Greatness of the Kingdom*, P. 311.

“내게로.” 믿음의 대상은 교회나 신조, 혹은 성직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이다. 구원은 한 인격 안에 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오라.” 온다는 것은 믿는 것(행 16:31), 영접하는 것(요 1:12), 먹는 것(요 6:35), 마시는 것(요 7:37), 보는 것(사 45:22), 시인하는 것(요일 4:2), 듣는 것(요 5:24), 문으로 들어가는 것(요 10:9), 문을 여는 것(계 3:20),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마 9:20),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사를 받는 것(롬 6:23)을 뜻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쉬”는 선물임을 주목하라. 그것은 대가도 조건도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구원의 쉬”이다.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이 영 단번에 지불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값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양심의 쉬”이다.

11:29 29-30절에서 초청은 구원에서 섬김으로 바뀐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냉정하고 오만한 바리새인들과 대조적으로 이 진실한 교사는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분의 명예를 메는 자들은 가장 낮은 위치를 취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나의 명예를 메고” 이것은 그분의 뜻에 대한 복종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분께 자신의 삶의 지배권을 양도하는 것을 뜻한다(롬 12:1-2).

“내게 배우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그분은 그분의 길에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를 얻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양심

의 쉽다.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쉽다. 그것은 큰 자가 되기를 멈추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중에 경험하는 쉽기도 하다.

11:30 다시 한 번 바리새인들과의 현저한 대조가 나타나 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 대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마 23:4)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멍에는 쉬워서 고통을 주지 않는다. 만일 예수께서 그분의 목공소 입구에 광고 문구를 내걸었다면 거기에는 “내 멍에는 꼭 맞습니다”라고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혹자는 말한바 있다.

그분의 짐은 가볍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문제나 시련, 수고, 혹은 골칫거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짐을 홀로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모든 필요한 때마다 충족한 은혜를 주시는 분과 함께 멍에를 진다. 그분을 섬기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이다. J. H. 조우엣은 이렇게 말한다.

“신자가 범하는 중차대한 실수는 삶의 짐을 홀로 지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짐을 홀로 지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멍에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신다. 멍에는 두 사람을 위한 도구로서 주님은 그 둘 중 한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분은 어떤 성가신 일도 나눠지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평강과 승리를 얻는 비결은 ‘자아’의 구속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자유케 하는 ‘멍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²⁰⁾

20) (11:30) J. H. Jowett, Quoted in *Our Daily Bread*.

(4)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12:1-8)

12:1 본장은 예수님에 대한 거절이 절정에 달한 모습을 보여준다. 바리새인들의 점증하는 악의와 적대감이 이제 곧 폭발할 것이다. 그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안식일 문제이다.

이 특별한 안식일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고 있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다. 율법은 낫을 사용하지 않는 한 이웃의 밭에서 마음껏 곡식을 취하는 것을 허락했다(신 23:25).

12:2 법적으로 일일이 따지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소했다. 비록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으나 아마 그들은 (1) 추수(이삭을 자름)와 (2) 타작(손으로 비빔)과 (3) 키질(알갱이와 껍질을 분리함)을 했다고 제자들을 고소했을 것이다.

12:3-4 예수님은 다윗의 생애에 있었던 한 사건을 상기시킴으로 그들의 조롱 섞인 비난에 답하셨다. 한 때 도피 중에 있을 때 다윗과 그 일행이 광야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열 두 개의 기념 떡인 진설병을 먹은 적이 있었다. 다윗이나 그의 동료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흠을 찾지 못하셨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충성스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의도를 지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윗이 도피 중에 있었던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죄악된 백성이 그를 거절한 것이었다. 만일 그에게 합당한 자리가 주어졌다면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진설병

을 먹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 죄가 있는 까닭에 하나님은 다른 경우에는 금지되는 행위를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분명하다. 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합당한 왕이었으나 이스라엘은 그분을 주권자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만일 그분에게 합당한 자리가 주어졌다면 그분의 추종자들은 안식일이나 주중 어느 한 날에 이런 식으로 먹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었다. 주님은 제자들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다.

12:5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드리고 다른 많은 섬기는 의무를 행함으로 안식일을 범해도(민 28:9-10) 하나님을 섬기는데 종사한 관계로 죄가 없음을 바리새인들에게 상기시켰다.

12:6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을 해도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것임을 알았다. 그렇다면 성전보다 더 큰 분 앞에서 행한 것에 대해 왜 제자들을 비난해야 하는가? “...더 큰 이”는 “...더 큰 것”으로 옮겨지는 것이 더 나은데, 이“것”은 왕의 위(位)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

12:7 바리새인들은 이제껏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신바 있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이 그 날을 너무 엄격히 지키느라 육체적인 상함을 당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안식일에 곡식을 줌을 더 원하신다. 만일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제자들을 정

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외형적인 세밀함을 인간의 행복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12:8 이어서 구주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고 덧붙이셨다. 율법을 처음 제정하신 이는 그분이셨으며 따라서 그분은 율법의 참 의미를 해석할 가장 자격있는 분이셨다. E. W. 로저스는 이렇게 말한다.

“마치 마태는 여기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주 예수님의 많은 이름과 직임들을 신속한 조망을 통해 훑고 지나가는 것 같다. 그분은 인자요 안식일의 주인이요 나의 종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다윗의 아들이요 성전보다 더 큰 이요 요나보다 더 큰 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시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마땅한 권리를 내드리기를 거절하는 죄의 엄청난을 보여주기 위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²¹⁾

다음 사건(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건너가기 전에 잠시 멈추어 안식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안식일

안식일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주의 일곱째 날(토요일)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옛세 동안 창조를 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창 2:2). 그 때는 비록 그 원리(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는 의도하셨지만 안식일을 지키라고 인간에게 명하시지는 않았다.

21) (12:8) E. W. Rogers, *Jesus the Christ*, PP. 65,66.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을 받았다(출 20:8-11).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다른 계명들과 달랐다. 다른 계명들은 도덕적인 것인데 반해 그것은 의식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 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다른 계명들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과 관계가 있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하나님에 대한 봉사(마 12:5), 기본 생활과 관계된 행동(마 12:3-4), 자비를 베푸는 행동(마 12:11-12)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십계명 중 아홉 가지가 율법으로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가르침으로 신약성경에 반복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이 지키라는 명을 받지 않은 유일한 계명이 이 안식일 계명이다. 바울은 그것을 못 지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징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골 2:16).

기독교의 특정한 날은 주의 첫 날이다. 주 예수님은 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요 20:1) 그것은 구속 사역이 완성되어 하나님께 인준을 받았다는 증표이다. 부활 후 두 주의 날에 그분은 제자들을 만나셨다(요 20:19,26). 성령은 주의 첫 날에 주어졌다(행 2:1; 례 23:15-16). 초대 성도들은 그 날에 떡을 떼기 위해 모여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냈다(행 20:7). 그 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위한 연보를 따로 모아두어야 할,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날이다(고전 16:1-2).

안식일 혹은 일곱째 날은 6일간의 수고가 마쳐진 뒤에 왔으나 주의 날 혹은 일요일은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평온한 지식과 함께 한 주일을 시작케 한다. 안식일은 첫 창조를 기념했으나 주의 날(주일)은 새 창조와 관계가 있다. 안식일은 책임의 날이었으나 주의

날은 특권의 날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얻거나 혹은 (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거룩을 이루는 수단으로 주의 날을 지키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을 위해 자신을 주신 분에 대한 사랑의 헌신 때문에 그 날을 구별해 놓는다. 우리는 그 날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일과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그 날을 구별해 놓을 수 있다.

안식일이 변해 주의 날이 되었다는 말은 옳지 않다. 안식일은 토요일이며 주의 날은 일요일이다. 안식일은 그림자였으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이다(골 2:16-17).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인쳤으며 주의 날은 그러한 시작을 상징한다.

율법 아래 거하는 충성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켰다(바리새인들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분은 그 표면에 두텁게 형성된 그릇된 규정과 규칙의 껍데기로부터 그 날을 자유케 해주셨다.

(5)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심(12:9-14)

12:9 예수님은 밀밭을 떠나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소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거기서 그분을 관찰하고 있었다고 전해준다(눅 6:6-7).

12:10 회당 안에는 한 편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바리새인들의 무기력함을 묵시적으로 보여준다. 이제까지 그들은 그를 냉대해 왔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예수님을 엮어맨 좋은 수단으로

그들의 시선을 끌게 되었다. 그들은 구주께서 항상 인간의 불행을 덜어주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만일 그분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다면 (그들의 생각에) 처벌당할 만한 죄를 범한 것으로 그분을 책잡을 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문제를 제기하며 접근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12:11 구주께서는 만일 그들의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고 되물으심으로 대답하셨다. 물론 건져내려 할 것이다! 왜 그런가? 아마 그들은 그것이 자비의 행위라고 변명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양은 재물의 가치가 있으므로 안식일에도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12:12 우리 주님은 사람이 양보다 훨씬 가치 있음을 상기시켜 주셨다. 한 마리 짐승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옳을진대 안식일에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얼마나 더 옳겠는가!

12:13-14 유대 지도자들을 그들 자신의 탐욕의 구덩이에서 포획하신 후에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 “손을 내밀라”고 하신 것은 그분의 역사에는 인간 편에서 믿음과 의지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그 사람은 순종을 했고 그 보상으로 치유를 얻었다. 그의 손은 놀라운 창조주에 의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히 회복되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이 도울 능력도 의향도 없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기뻐할만 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노기를 품고 그분을 죽일 음모를 꾸몄다. 만일 그

들이 마른 손을 가졌다면 주중 아무 날에나 고침받기를 반겼을 것이다.

(6) 모든 사람에게 치료를 베풀(12:15-21)

12:15-16 예수님은 대적들의 생각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그러나 어디를 가시든 무리가 몰려들었으며 병자가 몰려올 때마다 그분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기적적인 치료를 공표하지 말라고 경계하셨는데 이는 자신을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대중의 혁명적인 영웅으로 세우려는 변덕스런 운동을 피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그분의 개혁은 로마인의 피를 흘림으로써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임할 것이다.

12:17-18 그분의 은혜로운 사역은 이사야 41장 9절과 42장 1-4 절의 예언의 성취였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인자한 정복자로 예견했다. 그는 예수님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기뻐한 사랑하는 자로 묘사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메시아에게 부여하실 것인데 이는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미칠 것이다. 그분은 이방에 공의를 선포하실 것이다. 이 후자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거절의 목소리가 높아감에 따라 보다 세력을 얻게 될 것이다.

12:19 이사야는 이어서 메시아가 다투지도, 소리지르지도 않을 것이고 그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

다. 다시 말해서 대중을 자극하는 정치적인 선동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맥클라인은 이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하나님의 ‘중’인 이 왕은 일반적인 육신적인 수단이나 정치적인 선동, 혹은 그분의 명령에 따른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서 그분의 합당한 최고 위치에 도달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²²⁾

12:20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꺾여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진 것도 특권도 없는 자들을 짓밟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상심하고 억눌린 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실 것이다. 그분은 믿음의 조그만 불씨를 살려서 큰 불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분의 사역은 그분께서 공의가 승리를 거두게 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분의 겸비하고 인자한 돌보심은 사람들의 증오와 배은망덕에 의해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12:21 그리고 이방들이 그분의 이름을 믿을 것이다. 이사야 본문에는 “섬들이 그 교훈을 양망하리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의미는 똑 같다. 섬들은 이방 열국을 가리킨다. 그들은 그분의 충성스런 신복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통치를 기다리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클라이스트와 릴리는 이 이사야 인용구절을 이렇게 높이 평가한다.

“...복음의 진수의 하나요 그리스도에 대한 극히 아름다운 묘사이다...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아버지와의 연합과, 열방을 가르치는 그분의 사역, 고난당하는 자를 대하는 그분의 인자함 및 그분의 최종적인 승리를 묘사한다. 그분의 이름을 떠나서는 세상을 위한 아

22) MaClain, *Kingdom*, P. 283.

무 소망도 없다. 여기에 그리스도(세상의 구주)께서 냉정한 학적인 진술로가 아니라 풍요로운 동양적인 시상으로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²³⁾

(7) 사함받을 수 없는 죄(12:22-32)

12:22-24 예수께서 귀신들려 눈멀고 병어리 된 자들을 고쳐 주시자 사람들은 그분이 다윗의 자손, 곧 이스라엘의 메시아인지 모른다고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격노케 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호응하는 일체의 언행을 참지 못하는 까닭에 그 기적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이뤄졌다는 고소로 분을 폭발시켰다. 이 참람한 비난은 주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최초의 공개적인 고소였다.

12:25-26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자 하셨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도시나 집은 성공적으로 설 수 없다고 그분은 지적하셨다. 만일 그분이 사단의 능력으로 사단의 귀신들을 내쫓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12:27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또 하나의 통렬한 공박을 가하셨다. 그들의 유대인 동료 중 신접한 자로 알려진 어떤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다만 그런 주장을, 만일 그분이 바알

23) (12:21) Kleist and Lilly, further documentation unavailable.

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아들들(즉, 그 신접한 자들)도 그렇게 한다고 지적하는데 사용하셨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았으나 논리적으로 그런 결론을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의 동료들은 그들이 사단의 대리인으로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은연중에 주장했다고 그들을 정죄하려 할 것이다. 스코필드는 이렇게 설명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이 관계되는 한 사단의 능력 운운하는 것을 일절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 즉 그리스도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논리대로라면 그들의 아들들이 그들을 모순되다고 판단할 것이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사단적이라면 그렇다면 그러한 능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은 그러한 능력의 근원과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이다.”²⁴⁾

그들은 유사한 결과를 상이한 원인에게 돌리는 비논리를 범하고 있었다.

12:28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 인간으로서의 그분의 모든 지상 생애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위되었다. 그분은 이사야가 예언한 바 있는 성령 충만한 메시아셨다(사 11:2; 42:1; 61:1-3). 그러므로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러한 선언은 필경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신학적인 지식을 자랑했으나, 그러나 왕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24) (12:27) Ella E. Pohle, *C. I. Scofield's Question Box*, P. 97.

가 그들에게 임했으며, 그들은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조차 못했다!

12:29 주 예수님은 사단과 동맹관계이기는 커녕 사단의 정복자 이셨다. 그분은 이것을 강한 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 보여주신다. 그의 집은 그가 세력을 잡은 영역을, 그의 소유는 그의 귀신들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소유를 누탈하는 분이시다. 사실 사단을 결박하는 일은 여러 단계로 일어난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사역 동안 시작되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결정적으로 보장되었다. 그것은 왕의 천년 통치 동안 상당한 정도로 실현될 것이다(계 20:2). 그리고 끝으로 사단이 불못에 던져짐으로써 영원히 실현될 것이다(계 20:10). 현재 사단은 결박된 듯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상당한 권세를 행사한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결정되었으며 그의 시간은 짧다.

12:30 이어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의 신성모독적인 태도는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그들은 그분을 반대하고 있었다. 그분과 함께 추수하기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곡식을 흘뜨리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단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고소했으나 사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좌절시키려 애쓰는 사단의 종이었다.

마가복음 9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마태복음 구절과

정반대되는 말씀처럼 보인다. 이 문제는 마태복음은 “구원”의 문제를, 마가복음은 “섬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때 해결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든 반대하든 둘 중 한 편이어야 한다. 그 중간은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는 폭넓은 차이가 있다. 지역교회의 교제권, 방법, 교리에 대한 해석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원칙은 어떤 이가 주님을 반대하지 않는 한 그는 주님을 위하는 자이며 따라서 그렇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2:31-32 이 구절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입장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을 이룬다. 그분은 그들을, 성령을 훼방하는 말을 함으로써, 즉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닌 사단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고 고소하신다. 사실 그것은 성령을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으로 부른 것이었다.

다른 형태의 죄와 훼방은 사함 받을 수 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더라도 사함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천년 시대에 사함 받을 수 없는 죄이다. “이 세상”이라고 하신 것은 그분의 지상 공사역 기간을 가리킨 말씀이다. 오늘날은 그분께서 육체적으로 이 땅에 계셔서 기적을 행하고 계시지 않는 까닭에 오늘날도 사함 받을 수 없는 죄가 범해질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는 복음을 거절하는 죄와 다르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구주를 거절하다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믿지 않은 상태로 죽는다면 사함 받지 못한 채 머물 것이다.)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는 침륜에 빠지는 것보다 다르다. 신자는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도 하나님의 가족의 교제로 회복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닌지 염려한다. 설령 이 죄가 오늘날 범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가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그 죄를 범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데 있어 냉혹하고 잔인했다.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는데 아무 가책이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모의하는데 아무 주저도 없었다. 그들은 뉘우침도 회개도 보이지 않았다.

(8) 나무는 실과로 안다(12:33-37)

12:33 바리새인들도 주님이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선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악하다고 고소했다. 이에 그분은 그들의 모순됨을 드러내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결정을 내리라. 나무가 좋으면 그 실과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실과도 나쁜 법이다.” 실과는 그것을 맺은 나무의 질을 반영한다. 그분의 사역의 실과는 좋았다. 그분은 병든 자와 눈 먼 자, 귀머거리, 병어리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썩은 나무가 그런 좋은 실과를 맺을 수 있을까? 전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완고하게 그분을 인정하기를 거절했는가?

12:34-35 그 이유인즉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악독한 말로 입증된 인자에 대한 그들의 악의는 그들의 악

한 마음이 흘러넘친 것이었다.²⁵⁾ 선함으로 가득한 마음은 은혜롭고 의로운 말을 통해 증명되고, 악한 마음은 훼방과 분노와 비방으로 그 실상을 드러낸다.

12:36 사람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에 대하여 심문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은 그들(과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셨다. 사람들이 한 말은 그들의 삶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 말은 정죄나 사면이나를 결정하는 적절한 근거가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려 말한 악하고 경멸스런 말로 인해 바리새인들은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될는지!

12:37 신자들의 경우에 부주의한 말에 대한 형벌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미 지불되었다. 하지만 자백되지 않고 사함 받지 않은 우리의 부주의한 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9) 선지자 요나의 표적(12:38-42)

12:38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분께 표적을 구하는 만용(蠻勇)을 보였는데 이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이면 믿겠다는 암시였다! 그러나 그들의 위선은 자명했다.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을진대 어찌 한 가지 기적을 더 보고 믿을 수 있겠는가. 믿음을 가지는 조건으로 기적적인 일을 구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보지 않

25) (12:34-35) 비평본문과 다수본문 모두 “마음에”를 생략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그렇게 이해되어야 할 대목이다.

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다(요 20:29).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면 보는 것이 믿는 것 뒤에 온다.

12:39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악한 것은 그들의 메시아에 대해 고의적으로 눈을 가렸기 때문이며, 음란한 것은 그들의 하나님께 영적으로 불충성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 곧 절대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결합된 독특한 분(Person)께서 그들 중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건만 그들은 외람되게도 그분께 표적을 구했다.

12:40 그분은 자신의 죽음과 장사 및 부활을 가리키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다.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키웠다가 밖으로 토해진 경험(욘 1:17; 2:10)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예표해주었다. 그분의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사역의 최종적이고 최절정적인 표적이 될 것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자신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예언하셨다. 이것은 문제를 제기한다. 만일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예수께서 금요일 오후에 장사되어 일요일 아침에 부활했다면 어떻게 그분이 밤낮 사흘을 무덤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답은, 유대인의 계산에 따르면 낮과 밤의 한 부분도 완전한 하루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낮과 밤은 ‘오나’(하루)를 이룬다. 그리고 ‘오나’의 한 부분도 하루 전체와 같다”(유대인의 설명에서 인용).

12:41 예수님은 두 가지 대조를 통해 유대 지도자들의 죄를 묘사했다. 첫째로 니느웨의 이방인들은 특권이 훨씬 적었는데도 마음이 쉬 변하는 선지자 요나의 전도를 듣고 깊이 슬퍼하며 회개를 했다. 그들이 심판날에 일어나서, 요나보다 더 큰 분(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데 대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12:42 둘째로, 유대적인 특권 밖에 있는 이방인인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보기 위해 큰 노력과 희생을 치르고 남방에서 찾아왔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그분께서 그들의 메시아-왕이 되기 위해서 하늘을 떠나 그들의 작은 이웃에까지 멀리 여행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그분(솔로몬보다 무한히 크신 분)을 모실 여지가 없었다. 이제 이방 여왕이 그러한 오만한 부주의에 대해 심판날에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본장에서 우리 주님은 성전보다 크고(6절) 요나보다 크고(42절) 솔로몬보다 큰(42절) 분으로 제시되었다. 그분은 “가장 위대한 것보다 위대하며 가장 훌륭한 것보다 훨씬 훌륭하다.”

(10) 더러운 귀신이 돌아오다(12:43-45)

12:43-44 이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비유적인 형태로 요약해 보이신다. “사람”은 유대 민족을, “더러운 귀신”은 애굽의 속박에서 바벨론 포로(이 사건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치료해 주었다) 때까지 그 민족을 특징지은 우상숭배를 가리

킨다. 그것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것과 같았다. 바벨론 포로 말기에서 현재까지 유대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 그들은 비고 소제되고 수리된 집과 같다.

1900여전 전에 구주께서는 그 빈 집에 들어가고자 하셨다. 그분께서 그 집의 합당한 점유자요 주인이셨으나 백성들은 그분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완강히 거절했다. 그들은 비록 우상은 더 이상 숭배하지 않았지만 참 하나님도 숭배하려 하지 않았다.

빈 집은 영적인 진공상태, 즉 이후의 내용이 보여주듯이 위험한 상태를 말해준다. 개혁으로는 충분치 않다. 구주를 적극적으로 영접해야만 한다.

12:45 다가올 날에 우상숭배의 영이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할 것이다. 7은 완전 혹은 완성의 수이므로 이것은 아마도 완전히 발전된 형태의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듯하다. 이것은 배도한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할 때 환란을 바라본다. 불법의 사람에게 부복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범한 어떤 것보다 더 참람한 형태의 우상숭배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대환란의 두려운 심판을 당할 것이며, 그들의 고통은 바벨론 포로의 고통보다 훨씬 심할 것이다. 이스라엘 중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완전히 파멸될 것이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 초림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란듯이 외면한 그 동일한 배도한, 그리스도를 거절한 민족은 그분의 재림시에 엄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11)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12:46-50)

12:46-50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이 그분께 말하려고 찾아온, 흔히 있을 만한 일을 묘사한다. 왜 그들이 왔던가? 마가는 한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예수님의 친구 중 일부가 예수님이 정신이 나갔다고 단정했으며(막 3:21,31-35), 이에 그분의 가족이 그분을 조용히 데려가려고 왔던 것 같다(요 7:5 참조). 그분의 모친과 형제들이 그분에게 말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는 물음으로 응답하셨다. 그런 다음 제자들을 가리키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놀라운 선언은 영적인 의미가 풍부하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에 있어 뚜렷한 전환점을 이룬다. 마리아와 그녀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혈육인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했다. 이제까지 그분은 그분의 사역을 주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떼에게 제한시키셨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영접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해졌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메시아에게 절을 하는 대신 그분을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고 고소했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질서를 선언하신다. 이후로는 그분과 이스라엘과의 결속이 그분의 운신(運身)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못할 것이다. 비록 그분의 동정어린 마음은 육체를 따른 그분의 동족과 계속해서 변론하기를 원하시겠지만 12장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의문의 여지가 없이 깨어졌음을 드러내 준다. 그 결과가 이제 명백하다. 이스라엘은 그분을 소유하려 하지 않았고 이에 그분은 원하는 자들에게로 돌이키려 하신다. 혈육 관계가 영적인 관계로

대치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녀 사람들을 그분과의 역동적인 관계로 이끌어 줄 것이다.

본 사건을 마무리짓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친에 관해서 두 가지 점을 언급해야 한다. 첫째로 마리아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데 관한 아무 특권적인 지위도 차지하지 못했다.

둘째로 예수님의 형제들이란 표현은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였다는 가르침에 타격을 가한다. 이것은 그들이 마리아의 실제 아들들이었고 따라서 우리 주님의 의붓 형제였음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 이 견해는 다른 성경구절들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는다(시 69:8; 마 13:55; 막 3:31-32 6:3; 요 7:3,5; 행 1:14; 고전 9:5; 갈 1:19).

8. 이스라엘의 거절로 인한 왕국의 임시 형태 선언(13장)

왕국에 대한 비유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의 중대 전환점에 이르렀다. 주님께서서는 지상적인 관계가 이제 영적인 결속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문제는 더 이상 유대적인 출생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여부라고 암시하셨다. 왕을 거절함으로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필연적으로 왕국을 거절했다. 이제 일련의 비유를 통해 주 예수님은 그분이 거절당한 이후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마침내 나타나실 그 때까지 왕국이 취할 새로운 형태를 미리 보여주신다. 이 비유 중 여섯 가지는 “천국은…와 같으니”란 표현으로 시작된다.

이 비유들을 적절한 관점에서 조망해 보기 위해, 앞서 3장에서 논의된바 있던 왕국의 여러 국면에 대해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다음 두 국면이 있다.

- (1)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외적인 고백.”
- (2) 회심을 통해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만 포함하는 “내적인 실

제.”

왕국은 다음 다섯 단계로 발견된다.

- (1) 그것이 예언된 구약 단계;
- (2) 그것이 왕의 영광 안에서 “임박한” 혹은 임재한 단계;
- (3) 왕이 거절당하고 하늘로 돌아가신 후로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땅에 있는 자들로 구성된 임시적인 단계;
- (4) 천년왕국 동안 왕국의 나타남;
- (5) 마지막, 영원한 왕국.

왕국에 대한 모든 성경구절들은 이 다섯 단계 중 어느 하나와 부합된다. 이 13장이 다루고 있는 것은 세 번째인 임시적인 단계이다. 이 단계 동안 왕국의 내면적인 실제(참 신자들)는 오순절에서 휴거까지 교회와 동일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것은 왕국과 교회 사이의 유일한 일치점이며, 그 점을 제외하면 그 둘은 결코 동일시되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비유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씨 뿌리는 자의 비유(13:1-9)

13:1 예수께서 귀신들린 자를 고쳐주신 집에서 나가사 갈릴리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집을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다를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요컨대 주님의 이동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상징한다. 그 임시 형태 동안 왕국은 이방에 전파될 것이다.

13:2 큰 무리가 해변에 모여들었고 그분은 배에 올라 앉아 비유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비유란 즉시 간파되지 않는 영적 도덕적 가르침을 담은 이야기를 말한다. 이어지는 일곱 비유는 그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왕국이 취할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앞의 네 비유는 무리에게 전해졌는데 비해 뒤의 세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전해졌다. 주님은 앞의 두 비유와 일곱째 비유는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으나 나머지 비유들은 그들(과 우리들)이 이미 그분이 주신 열쇠를 가지고 해석하도록 남겨 두셨다.

13:3 첫 번째 비유는 네 가지 토양에 씨앗을 심은 씨 뿌리는 자에 관한 것이다. 예상한 대로 각 경우마다 결과가 달랐다.

13:4-8 (1) 길가-새들이 씨를 먹어버림

(2) 흙이 얇은 돌밭-곧 싹이 나왔으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음

(3) 가시떨기-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음

(4) 좋은 땅-혹 백 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의 결실을 함

13:9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묵시적인 권면으로 비유를 마치셨다. 이 비유를 통해 그분은 무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별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다. 누구든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된다.

18-23절에서 주님이 친히 비유를 해석하시는 까닭에 우리는 그 대목에 이르기까지 호기심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2) 비유들의 목적(13:10-17)

13:10 제자들은 주님께서 비유라는 가려진 언어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의아히 여겼다. 그래서 그분의 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그들은 요구했다.

13:11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무리와 믿는 제자들 사이를 구분하셨다.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무리는 비록 십자가에 이르기 전에는 그 거절이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분명히 그분을 거절하고 있었다.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나 그분의 참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도록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신약에서 비밀은 전에는 인간에게 알려진바 없는 사실로써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인간이 알 수 없으나 이제 계시가 이뤄진 것을 말한다. 왕국의 비밀은 그 임시적인 형태의 왕국에 관한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진리이다. 왕국이 임시적인 형태를 취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까지 하나의 비밀이었다. 이 비유들은 왕의 부재 동안 왕국의 몇몇 특징들을 묘사해 준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비밀 형태의 왕국”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것에 관해 어떤 비밀스런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그 때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3:12 이 비밀이 무리에게는 가려지고 제자들에게는 계시된다는 것은 독단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이유를 밝히신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믿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더 많이 가지도록 능력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반면에 유대 민족은 세상의 빛을 거절했으며 따라서 그들은 더 많은 빛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진 적은 빛도 잃게 될 것이다. 빛을 거절하는 것은 곧 빛을 부인하는 것이다.

13:13 메튜 헨리는 이 비유들을, 이스라엘인들의 눈은 밝혀주었지만 애굽인들은 혼란케 한 구름과 불기둥에 비유한다. 이 비유들은 진지한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계시를 주지만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단지 거리끼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처럼 그것은 주님 편에서 임의로 결정하고 쉬 변경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삶 속에 구축되는 원리(고의적인 소경됨 뒤에는 판결적인 소경됨이 따른다)가 작용한데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그분께서 비유로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이유이다. H. C. 우드링은 “그들은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었으므로 진리의 빛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고 표현했다.²⁶⁾ 그들은 본다고, 즉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안다고 고백했으나 성육신하신 진리께서 그들 앞에 서셨는데도 그들은 그분을 보기를 단호히 거절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고백했으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들 가운데 계셨는데도 그들은 그분을 순종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육신의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자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깨닫는 능력이 그들에게서 취해졌다.

13:14-15 그들은 이사야 6장 9-10절의 예언의 살아있는 성취였다. 이스라엘의 마음은 완악해졌고 그들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26) (13:13) H. Chester Woodring, *Unpublished class notes on Matthew*, Emmaus Bible School, 1961.

둔감했다.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기를 의도적으로 거절했다. 그들은 만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실 줄을 알았다. 그러나 질병과 곤핍에 처한 채 그들은 그분의 도움을 거절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징벌을 당한 것이다.

13:16-17 제자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렸는데 이는 그들이 아무도 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은 살아서 메시아의 도래를 보고자 갈망했으나 그들의 소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역사상 놀라운 순간에 살아서 메시아를 보고 그분의 기적을 목도하고 그리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비할 데 없는 가르침을 듣는 존귀를 입었던 것이다.

(3)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13:18-23)

13:18 왜 비유를 사용했는지를 설명하신 후에 주님은 이제 네 가지 토양의 비유를 설명하신다. 그분께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밝히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그분 자신이나(37절) 혹은 왕국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분은 씨를 왕국의 말씀으로 밝히신다(19절). 토양은 메시지를 듣는 자들을 나타낸다.

13:19 길가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이는 깨달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깨달을 마음이 없어서이다. 새들은 사단을 상징한

다. 그는 청중의 마음에서 씨를 낚아채 간다. 사단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들과 더불어 동역한다. 바리새인들은 길가와 같은 청중이었다.

13:20-21 예수께서 돌밭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암반으로 된 들에 흙이 열게 덮인 모습을 가리킨 표현이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말해준다. 씨 뿌리는 자는 처음에는 그의 전도가 매우 성공적이라고 기뻐할 수 있다. 그러나 곧 그는 중요한 교훈, 즉 메시지가 미소와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님을 배우게 된다. 먼저는 죄의 자각과 통회와 회개가 있어야 한다. 한 영혼이 가볍고 유쾌한 마음으로 화려한 회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눈물을 흘리며 갈보리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 훨씬 소망스런 일이다. 열은 흙은 열은 고백을 낳는다.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란과 핍박이란 타는 햇볕으로 그의 고백이 시험받게 되면 그는 그런 고난을 감내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하고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한 일체의 고백을 저버린다.

13:22 가시떨기는 말씀을 피상적으로 듣는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겉으로는 왕국의 진정한 신복들로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심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버린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아무 결실도 없다. 랑(Lang)은 큰 사업을 소유한 재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한 아들의 실례를 통해 이 사실을 예증한다. 이 아들은 젊었을 때 말씀을 들었으나 사업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는 곧 그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의 부친을 기쁘게

하는 것 사이에 한쪽을 택해야 했다. 씨가 뿌려지고 싹을 틔울 때 흙에 가시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벌써 눈앞에 있었던 것이다. 그는 부친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받아들이고 사업에 완전히 투신하고 그 분야의 총수가 되었으나 노년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하늘에 속한 일들을 소홀히 여겼음을 시인해야만 했다. 이제 은퇴할 때가 이르러 그는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을 수 없으시다. 그 사람은 은퇴한지 몇 달이 못되어 갑자기 죽고 말았다. 그는 9만 파운드의 돈과 영적으로 황폐된 삶을 남기고 떠났다. 가시가 말쑥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한 것이었다.”²⁷⁾

13:23 좋은 땅은 참 신자를 가리킨다. 그는 말씀을 기꺼이 듣고,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깨닫는다. 비록 이 신자들은 모두 같은 양의 열매를 맺지는 않지만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음을 한결 같이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그리스도께 인도한 영혼보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듯하다. 열매란 말이 신약성경에서 사용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가리킨다(갈 5:22-23).

이 비유는 무리에게 무엇을 전하려 했는가? 분명 그것은 순종함 없이 듣기만 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경계를 한 것이다. 그것은 또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도록 개개인을 격려하는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제자들(미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자들을 포함해서)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듣는 이들 중 소수만이 진실로 구원받은 사

27) (13:22) G. H. Lang, *The Parabolic Teaching of Scripture*, P. 68.

람들이라는 실망스런 사실로 인해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었다. 그것은 복음전파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충성스런 종들을 건져낸다.

제자들은 또한 이 비유를 통해 복음의 세가지 큰 적에 대해 경계를 받는다.

- (1) 사단(새들-악한 자);
- (2) 육신(타는 해-환란이나 핍박);
- (3) 세상(가시-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끝으로 제자들은 인간을 위한 투자가 가져오는 엄청난 보상에 대한 전망을 받았다. 사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의 결과는 헤아릴 방법이 없다. 한 이름 없는 주일학교 교사가 D. L. 무디에게 투자했다. 무디는 다른 이들을 인도했다. 그들은 또 다른 이들을 인도했다. 그 주일학교 교사는 결코 중단하지 않는 연쇄반응을 시작했던 것이다.

(4)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13:24-30)

앞의 비유는 천국에는 그분의 진정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입술로만 왕을 섬기는 자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앞의 세 토양은 넓은 의미의 왕국(외적인 고백)을 상징하며, 네 번째 토양은 좁은 의미의 왕국(진정 구원받은 자들)을 상징한다.

13:24-26 두 번째 비유(곡식과 가라지) 역시 그러한 두 국면을 지닌 왕국을 묘사해 준다. 곡식은 참 신자를, 가라지는 고백뿐인 자들

을 말해준다. 예수님은 왕국을,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으로 비유하신다. 언거(Unger)는 성지(聖地)의 들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가라지는 까실까실한 털이 난 독보리라고 말한다. “그것은 독초로서 잎이 날 때까지는 밀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다가 열매가 생기면 쉽게 밀과 구분된다.”²⁸⁾

13:27-28 종들이 곡식 속에 가라지가 섞인 것을 보고 집 주인에게 가서 그 까닭을 물었다. 주인은 즉시 원수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챘다. 종들은 즉시 가라지를 뽑고자 했다.

13:29-30 그러나 주인은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분부했다. 그 때 추수꾼들이 그 들을 가려내어 곡식은 모아 곳간으로 들고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를 것이다.

왜 주인은 가려내는 작업을 그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했는가? 본래 곡식과 독보리의 뿌리는 아주 근접해 있어서 어느 하나만 뽑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비유는 37-43절에서 우리 주님에 의해 설명되므로 더 이상의 설명은 그 때까지 보류하기로 한다.

(5) 겨자씨의 비유(13:31-32)

13:31-32 다음으로 구주께서는 왕국을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즉 그분의 청중이 본 것 중 가장 작은 것이라고 일컬으신 겨자씨에 비유하신다. 어떤 사람이 그 씨 중 하나를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서

28) (13:24-26) Merrill F. Unger, *Unger's Bible Dictionary*, P. 1145.

나무가 되었다. 그것은 굉장한 성장이었다. 정상적인 겨자나무는 나무라기보다는 관목에 가까운데 이 나무는 새들이 가지에 깃들일 만큼 심히 컸다.

이 씨는 왕국의 미미한 시작을 가리킨다. 처음에 왕국은 비교적 작고, 또 핍박의 결과로 순결했다. 그러나 국가의 지지와 보호를 받게 되자 그것은 비정상적인 성장을 경험했다. 그 때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 4절에도 새가 언급되었는데 예수님은 이 새들이 악한 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신바 있다(19절). 왕국은 사단과 그의 대리인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오늘날 기독교의 우산이 유니테리언교(Unitarianism;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일신론을 신봉하는 종파-역주), 크리스찬 사이언스,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등과 같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종파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기에 여기서 주님께서는 그분이 계시지 않는 동안 왕국은 놀라운 성장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신 것이다. 그들은 속아서도 안 되고 성장을 성공과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불건전한 성장일 것이다. 비록 아주 작은 씨가 어마어마한 나무가 될 것이지만 그 거대한 나무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될 것이다(계 18:2).

(6) 누룩의 비유(13:33)

13:33 이어서 주 예수님은 왕국을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숨긴 누룩에 비유하신다. 결국 모든 가루가 발효되었다. 이 구절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가루는 세상이고 누룩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온 세상에 전파될 복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성경과 역사 및 현재의 사건들과 배치된다.

누룩은 성경에서 항상 악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누룩을 집에서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출 12:15) 그들은 그 뜻을 이해했다. 무릇 누구든지 무교절의 7일 동안 발효된 것을 먹으면 그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졌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마 16:6,12) 및 헤롯의 누룩(막 8:15)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다. 고린도전서 5장 6-8절에서 누룩은 괴악하고 악독한 것으로 정의 내려지며, 갈라디아서 5장 9절은 그것이 문맥상 거짓 가르침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누룩은 악한 교리 혹은 악한 행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악한 역사가 천국에 침투하는 그 영향력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신다. 겨자씨의 비유는 왕국의 외적인 성격상의 악을 보여주는데 비해 이 비유는 장차 일어날 내적인 부패를 보여준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가루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양식을 가리킨다고 믿는다. 누룩은 악한 교리를, 여자는 가르치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계 2:20)를 가리킨다. 여러 이단 종파의 창시자가 여자라는 것은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고전 14:34; 딤후 2:12) 일부 여자들은 오만불손하게도 교리적인 권위를 차지하고는 파괴적인 이단이론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양식을 더럽혀 왔다.

J. H. 브룩스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악한 것에 비유하실 리 없다는 반론이 제기된다면, 그분께서 왕국을, 곡식과 가라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에,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 모두를 담고 있는 것에, 악한 종에까지 손길을 미치는 것에(마 18:23-32),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그리고 잃어진 사람을 그 안에 허용하는 것에(마 22:1-13) 비유하신다고 답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²⁹⁾

(7) 비유의 사용이 예언을 성취하다(13:34-35)

13:34-35 예수님은 앞의 네 비유를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러한 교수법을 사용하신 것은 메시아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낼 것이라는 시편 78편 2절에 있는 아삽의 예언을 성취했다. 이때까지 감추어진 임시적인 형태의 천국의 이러한 특징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었다.

(8)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설명(13:36-43)

13:36 주님의 나머지 강화는 집 안에서, 제자들에게 전해졌다. 여기서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 믿는 잔존자를 가리키는 듯하다. 집을 새삼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분의 백성을 영원히 거절하지는 않으셨음을 상기시켜 준다(롬 11:2).

13:37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씨 뿌리는 자로 밝히셨다. 그분은 지상사역 동안은 직접 뿌리셨으며, 그 후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뿌려 오셨다.

²⁹⁾ (13:33) J. H. Brookes, *I Am Coming*, p. 65.

13:38 밭은 세상이다.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임을 주목하라. 종은 씨는 왕국의 아들들을 의미한다. 살아있는 인간을 땅에 심는다는 것은 좀 기괴하고 부조리해 보인다. 그러나 요점은 이 왕국의 아들들이 세상에 심어졌다는 것이다. 그분의 공사역 동안 예수님은 왕국의 충성된 종들인 제자들을 세상에 심으셨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사단은 모든 신적인 실재의 위조품을 소유한다. 그는 제자들과 비슷한 외양, 비슷한 언어, 그리고 어느 정도 비슷한 삶을 보이는 자들을 세상에 심는다. 그러나 그들은 왕의 진정한 제자들이 아니다.

13:39 원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대적인 사단이다. 추수 때는 세상 끝, 즉 임시적인 형태의 왕국 시대의 끝을 말한다. 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 권능과 영광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은 교회시대의 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여기에 교회를 끌어들이는 것은 혼란만을 가져올 뿐이다.

13:40-42 추수꾼은 천사들이다(계 14:14-20 참조). 왕국의 현 단계 동안은 곡식과 가라지에 대해 아무런 강제적인 분리도 취해지지 않는다. 그들은 함께 자라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천사들이 모든 죄의 원인과 행악자들을 한데 모아 불못에 던질 것이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값이 있을 것이다.

13:43 대환란 동안 이 땅에 있는 왕국의 의로운 종들은 그리스도의 천년통치를 누리기 위해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해처럼 빛날 것이다. 즉 그들은 영광중에 찬

란히 빛날 것이다.

다시금 예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암시적인 권면을 덧 붙이신다.

이 비유는 어떤 이들의 그릇된 가정처럼 지역교회에 불경건한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받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님을 기억하라. 지역교회는 어떤 종류의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출교시키라는 명령을 분명히 받고 있다(고전 5:9-13). 이 비유는 단순히 그 비밀한 형태에 있어 천국은 진품과 모조품을 포함한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는 세상 끝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심판에 처할 거짓 신자들과,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지상통치를 누릴 참 신자들을 가려낼 것이다.

(9)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13:44)

13:44 이제까지 모든 비유들은 왕국에는 선과 악이, 의로운 종들과 불의한 종들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다음 두 가지 비유는 두 부류의 의로운 종들이 있을 것을 보여준다.

- (1) 교회시대 전후의 믿는 유대인들;
- (2) 현 시대의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보화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왕국을 받게 감추인 보화에 비유하신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우리는 그 사람을 주 예수님 자신으로 볼 수 있다(그분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었다). 보화는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안 존재한, 그리고 교회가 휴거된 후에 다시금 존재할 믿는 유대인 중

경건한 잔존자를 가리킨다(시편 135편 4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화로 불리우고 있음을 보라).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외에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점에서 볼 때 밭에 감추어진 상태이다. 예수님은 이 보화를 발견한 다음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분이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가 감추어진 세상을 사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고후 5:19; 요일 2:2). 구속받은 이스라엘은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 숨은 데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비유는 때때로 그리스도, 즉 최고의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죄인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그런 식의 해석은 구원이 값없는 것임을 역설하는 은혜의 교리를 침해한다(사 55:1; 엡 2:8-9).

(10)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13:45-46)

13:45-46 왕국은 또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비유된다. 그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그것을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희생한다.

“나는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았네”라는 찬송사에서 말하는 찾은 사람은 죄인이고 진주는 구주시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주지시키지만 죄인은 모든 것을 팔 필요가 없으며 또 그리스도를 살 필요도 없다.

그보다 우리는 상인이 주 예수님이고 극히 값진 진주는 교회라고 믿는다. 갈보리에서 그분은 그 진주를 사기 위해 그분의 모든 소유를 파셨다. 진주가 외부의 자극을 견뎌내면서 조개 속에서 형성되듯이 교회는 구주의 몸의 찢림과 상함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보화의 비유에서는 왕국이 보화 자체에 비유되지만 여기서는 진주가 아닌 상인에 비유된다는 점은 흥미로운 차이이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앞의 비유에서는 강조점이 보화(구속받은 이스라엘)에 있다. 왕국은 이스라엘 민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것은 본래 그 민족에게 제안되었으며 그 미래 형태에 있어서 유대 민족은 왕국의 으뜸 되는 종들이 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교회는 왕국과 같지 않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가 임시 형태의 왕국 안에 있으나, 그러나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미래 형태의 왕국 안에 있지 않고 새롭게 된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릴 것이다.” 진주의 비유에서는 강조점이 왕 자신과, 그리고 그분이 나타날 때에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신부를 찾아 얻기 위해 그분이 지불한 엄청난 대가에 있다.

진주가 바다에서 나오듯이 때때로 그리스도의 이방인 신부로 불리는 교회는 주로 열방에서 나온다. 이것은 그 안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 아니라 다만 교회의 지배적인 특징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열방에서 부름 받은 백성에게 있다는 점을 밝힌 것뿐이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야고보는 이것을 현 시대의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으로 선언했다.

(11) 그물의 비유(13:47-50)

13:47-48 일곱 비유 중 마지막 비유는 왕국을 바다에 쳐서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에 비유한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분류하여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렸다.

13:49-50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해석하신다. 때는 세상 끝, 즉 대환란 기간 끝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이다. 어부들은 천사들이다. 좋은 고기는 의인,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망라한 구원 받은 사람들이고, 못된 고기는 악인, 즉 믿지 않는 모든 인류이다. 앞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보았듯이(30,39-43절) 분리작업이 행해진다. 의인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악인은 불못에 던지워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 심판이 아니다. 이 심판은 천년 왕국이 시작할 때 집행되며, 최종 심판은 그 천년 기간이 끝난 후에 집행된다(계 20:7-15).

게벨라인은 이 비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열방을 가리키는 바다로 그물이 던져진다. 이 비유는 대환란 동안 있게 될 영원한 복음의 전파를 가리킨다(계 14:6-7). 좋은 것과 못된 것의 분리는 천사들에 의해 행해진다. 이 모든 것은 현 시대나 교회를 가리킬 리 없다. 그것은 왕국이 막 세워질 때를 가리킨다. 천사들은 계시록에서 분명히 밝혀진 그대로 사용될 것이다. 악인은 불못에 던지워지고 의인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지상에 남겨질 것이다.”³⁰⁾

(12) 진리의 곳간(13:51-52)

13:51 비유를 다 마치시고 최고의 교사께서 제자들에게 깨달았

30) (13:49,50) Gaebelein, *Matthew*, p. 302.

느냐고 물으셨다. 그들은 “그러하오이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다소 그들을 시기하게 할 수 있다. 아마 우리는 그들처럼 자신 있게 “그러하오이다”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13:52 그들은 깨달았으므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었다. 제자들은 축복의 종점이 아니라 통로가 되어야 한다. 열 두 제자는 이제 천국을 위해 훈련된 서기관, 즉 진리의 교사와 해석자들이었다. 그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았다. 구약에서 그들은 우리가 “옛”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풍부한 보고를 소유했다. 또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한 가르침에서 그들은 금방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받았다. 이러한 반대한 지식의 곳간으로부터 그들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 그 영광스런 진리를 나눠 줘야 했다.

(13)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시다(13:53-58)

13:53-56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떠나 나사렛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셨다. 그분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그분의 지혜와 기적 행함을 보고 놀랐다. 그들에게 그분은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다. 그들은 그분의 모친이 마리아라는 것과 그분에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등의 형제와 누이들이 있는 것을 알았다. 그 모두가 여전히 나사렛에 살고 있었다! 어떻게 그들의 고향에 사는 청년 중 하나가 그렇게 놀라운 것들을 말하고 행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그들을 놀라게 했으며, 이에 그들은 진리를 인정하기보다 그들의 무지를 고수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했다.

13:47-48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참 선지자는 일반적으로 고향 밖에서 더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도록 했다. 그분의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한 친근함을 빌미삼아 그분을 더욱 경멸했다. 전반적인 불신앙이 나사렛에서의 구주의 사역을 방해했다. 그분은 거기서 소수의 병자만을 고쳤을 뿐이다(막 6:5). 그것은 그분이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분은 전혀 축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풀거나 필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거나 자신이 병들었다는 지적에 대해 분을 발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자 하지는 않으신다.

9. 고조되는 적대감에 직면한 메시아의 다함없는 은혜(14:1-16:12)

(1) 세례 요한의 목베임(14:1-12)

14:1-2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식이 분봉왕 헤롯의 귀에 들렸다. 이 헤롯대왕의 악명 높은 아들은 ‘헤롯 안디바’라 알려졌다. 세례 요한의 처형을 명한 사람이 그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자 양심의 찢림을 받기 시작했다. 그가 목을 벤 선지자에 대한 기억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신하들에게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라고 말했다.

14:3 3-12절은 과거로 장면이 전환된 대목이다. 마태는 요한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을 회고해 보기 위해 잠시 과거의 일을 삽입시켰다.

14:4-5 헤롯은 그의 아내를 버리고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간통적이고 근친상간적인 관계 속에 지내고 있었다.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일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었다. 그는 담대

함과 분노함으로 손가락으로 헤롯을 가리키며 그의 부도덕을 꾸짖었다.

왕은 분개하여 그를 죽이려 했으나 그것은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못했다. 백성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으며 요한이 처형되면 아마 폭력적인 반응을 보일지도 몰랐다. 그래서 이 폭군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것으로 그의 분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혔다. “경건치 않은 자들은 죽은 것이든 우리에게 갇힌 것이든 사자를 좋아하는 것과 똑같이 종교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것이 풀려나 그들의 양심을 찌르기 시작할 때는 종교를 두려워한다.”³¹⁾

14:6-11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으로 왕을 몹시 기쁘게 하자 왕은 충동적으로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그녀는 그녀의 방탕한 어머니의 부추김을 받아 당돌하게도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즈음 요한에 대한 왕의 분노는 다소 가라앉은 상태였고 아마도 그는 그 용기와 정직함으로 인해 그 선지자를 존경하던 터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감스런 일이지만 그는 약속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 춤추던 소녀의 끔찍한 요구는 수락되었고 요한은 목베임을 당했다.

14:12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의 선생의 시신을 엄숙히 장사지낸 다음 예수께로 가서 그 일을 고했다. 그들은 그들의 슬픔과 분개를 쏟아 부을 다른 대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이 점에 있어 우리에게 더 없이 좋은 본을 남겼다. 핍박과 압제와 고난과 슬픔의 때에

31) (14:4-5) 출처 미상.

우리도 예수께로 가서 그 일을 고해야 한다.

헤롯의 경우에 그의 범죄는 끝났으나 그 기억은 떠나지 않았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소문이 들리자 이전 일이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다.

(2) 5천명을 먹이심(14:13-21)

14:13-14 헤롯이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당황해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해변 부근의 한적한 지역으로 물러나셨다. 우리는 그분이 두려움 때문에 그리로 가신 것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다. 그분은 자신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 우리는 그분이 그리로 가신 주된 이유는 알지 못하나 그 사소한 이유는 그분의 제자들이 방금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기에(막 6:30; 눅 9:10) 휴식과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무리가 몰려와 걸어서 그분을 좇았다. 그분이 육지에 이르자 그들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의 자비하신 주님은 무리의 이러한 꺾방에 조금도 화를 내시지 않고 즉시 사역에 착수하여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14:15 저녁이 되자, 즉 오후 3시가 넘자 제자들은 곤란한 상황이 다가옴을 느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얻게 하시라고 예수께 요청했다. 그들은 얼마나 적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능력을 깨달았는지!

14:16-18 주님은 갈 필요가 없다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사람들이 그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분을 떠나야 하는가? 그런 다음 그분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말로 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셨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요? 우리가 가진 것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뿐인데요.”

그들은 그들이 예수님도 소유했음을 잊고 있었다. 구주께서는 이내 가운데 “그것을 내게 가져 오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다.

14:19-21 우리는 주님께서 무리를 잔디에 앉히시는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시고 그분은 사례를 하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모든 사람이 풍족히 먹었다. 모두 배불리 먹은 후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열두 광주리에 모았다. 예수께서 떡을 다 나누신 후에 남은 것이 떡을 처음 떼실 때보다도 더 많았다. 기이하게도 믿음 없는 제자들 각자에게 한 광주리씩 남은 썸이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1만 내지 1만5천명의 무리가 먹은 것이었다.

이 기적은 모든 시대 제자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준다. 굶주린 무리가 항상 있다. 외견상 볼품없어 보이는 자원을 가진 소수의 제자들이 항상 있다. 그리고 자비하신 구주께서 항상 계시다. 제자들이 그들의 적은 소유를 기꺼이 그분께 모두 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여러 배로 늘려서 수천 명을 먹이신다. 중요한 차이점은, 갈릴리 부근에서 먹은 5천명의 사람들은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의 주림을 채운데 반해, 오늘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배부르다는 것이다(요 6:35).

(3)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시다(14:22-33)

앞의 기적은 그들이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울 수 있는 분을 좇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증해 주었다. 이제 그들은 그분이 그들을 보호하고 능력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14:22-23 예수께서는 자신이 직접 무리를 보내시면서 그 동안 제자들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날이 저물자 홀로 거기에 계셨다.

14:24-27 그러는 사이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떠나 역풍과 싸우고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것을 보셨다. 밤 4경에(새벽 3-6시)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다. 제자들은 유령인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나 곧 그들은 그들의 선생이자 친구의 안심시키는 목소리를 들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있어 얼마나 사실인지! 우리는 종종 요동하며 당황하며 낙심해 한다. 구주께서 멀리 계신 듯하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 그분은 아주 가까이에 계신다. 우리는 종종 그때조차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댄다. 그 때 우리는 그분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린 파도가 그분의 발아래 있음을 기억한다.

14:28 베드로는 귀에 익은 그 사랑의 음성을 듣자 주님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흘러 넘쳤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만일”이란 표현을 적은 믿음의 증거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그의 담대한 요청을 큰 믿음의 증거로 보아야 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이 그분의 권능을 이루는 통로라는 것과, 그분은 자신이 명하는 모든 것에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것을 간파했다.

14:29-33 예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그분에게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는 한 그는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한 바람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그는 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적은 믿음을 부드럽게 꾸짖으시고는 배에 함께 오르셨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멎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는 제자들의 고백과 함께 선상에서 즉흥적인 예배가 올려졌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영위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모든 대상을 떠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한(히 12:2)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빠지기 시작한다. 그 때 우리는 회복과 능력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 부르짖어야 한다.

(4)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시다(14:34-36)

14:34-36 배가 갈릴리 바다 남서 해안에 위치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자 곧 온 지경에 알려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와 치료를 받게 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오는 자마다 나음을 입었다. 그리하여 그 지역의 의사들은 아무 할 일이 없게 되었다. 적어도 얼마간은 병자가 없었던 것이다. 그 지방은 위대한 의사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건강과 치유를 경험했다.

(5) 더러움은 속에서부터 나온다(15:1-20)

종종 지적되듯이 마태복음은 앞부분에서는 연대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14장 서두에서 끝까지에 나오는 사건들은 주로 그 발생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다.

15장에는 세대적인 순서도 나타난다. 첫째로, 계속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송사와 혈투음(1-20절)은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절을 예상케 한다. 둘째로, 가나안 여자의 믿음(21-28절)은 복음이 현 시대에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묘사해 준다. 그리고 끝으로 큰 무리의 치유(29-31절)와 4천명을 먹인 사건(32-39절)은 전 세계적인 건강과 번영이 있는 미래의 천년시대를 가리킨다.

15:1-2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주를 올라미에 걸리게 하려고 집요하게 시도했다. 그들의 대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그분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음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노라고 예수께 추궁했다.

이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 정결의식에 대한 말씀들을 이해함과 동

시에 바리새인들이 말한 씻는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개념은 구약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자들이 지적당한 부정함은 순전히 의식적인 문제였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지거나 어떤 것을 먹는다면 그는 의식적인 부정을 범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의식적으로 적합치 못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은 그에게 정결의식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로들은 정결의식에 유전(혹은 전통)을 추가시켰다. 예를 들어 유대인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만이 아니라 팔과 팔꿈치까지 씻는 신중한 결례를 행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그리고 시장에 다녀왔을 때도 의식적인 결례를 행해야 했다. 이런 배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유전이 규정한 까다로운 결례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제자들을 비난한 것이다.

15:3-6 주 예수님은 그분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단순히 장로들의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율법은 필요시에는 경제적으로 봉양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들의 부모를 공경할 것을 사람들에게 명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연로한 부모를 봉양하는데 재물을 드리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한 유전을 생각해냈다. 부모를 경제적으로 봉양하라는 요구를 부모에게서 받게 될 경우 그들은 이렇게 답하기만 하면 되었다. “제가 가진, 그리고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돈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모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되풀이함으로써 그들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책

입에서 면제되었다. 이러한 왜곡된 유전을 좇음으로 그들은 그들의 부모를 돌보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켰다.

15:7-9 그러한 교묘한 왜곡으로 인해 그들은 이사야 29장 13절의 예언을 성취시켰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으나 마음은 그분에게서 멀었다. 그들의 경배는 무가치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유전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이었다.

15:11-12 예수께서는 무리를 바라보시고 매우 의미심장한 선언을 하셨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진술은 얼마나 혁명적인 성격을 지녔는지! 레위인의 법에 의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했다. 유대인들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의 고기는 먹는 것이 일절 금지되었다. 그리고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도 먹을 수 없었다.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이제 율법 수여자께서 의식적인 불결에 대한 모든 체계를 철회하기 위해 길을 닦아놓으셨다. 그분은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음식이 그들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것이 실로 더럽게 하는 것이었다.

15:12-14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지적을 받고 걸림이 된 줄 아시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식물에 비유함으로써 답변하셨다. 그들은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였다. 그들과 그들의 가르침은 마침내 뽑히고 말 것이다(즉, 멸절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라고 덧붙이셨다. 그들은 비록 영적인 문제에 대해 권위자로 자칭했지만 영적인 실재에 있어서는 그들이 인도하는 백성과 다름없이 소경이었다. 인도자들과 추종자들이 필연적으로 모두 구덩이에 빠질 운명이었다.

15:15 제자들은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에 관해 가르침 받은 모든 것이 완전히 역전된데 대해 틀림없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비유, 즉 모호하고 감추어진 이야기 같았다. 베드로는 설명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그러한 의혹을 대변해 주었다.

15:16-17 주님은 먼저 그들이 깨달음이 매우 더딘데 대한 의아심을 표현하신 다음에 진정한 불결은 물질적인데 있지 않고 도덕적인데 있다고 설명하셨다. 입에 들어가는 식물은 본질상 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다. 사실 어떤 물질적인 것도 그 자체에 있어서는 악하지 않다. 문제는 그 물질을 그릇 사용하는데 있다. 사람이 먹는 식물은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되기 위해 뱃속에 들어가고 그런 다음 소화되지 않은 것은 밖으로 내버려진다. 사람의 도덕적인 면은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육체적인 면만 영향을 받는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딤후 4:4-5)는 사실을 안다. 물론 이 말씀은 유독한 식물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식생활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식물을 가리킨 것이다.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식물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면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식물을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먹을 수 있다.

15:18 만일 식물이 더럽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더럽게 하는가?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대답하셨다. 인간의 도덕적 본성의 한 부분인 이 마음은 불결한 생각으로, 그 다음에 타락한 말로, 그 다음에 악한 행동으로 그 실상을 나타낸다.

15:19-20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을 내포한다)” 등이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례를 사람들 앞에서 꼼꼼하게 준수하는 것에 대해 매우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의 삶은 부패했다. 그들은 사소한 문제는 중시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소홀히 여겼다. 그들은 제자들이 영감이 없는 유전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모의하고 또 19절에 열거된 죄의 목록을 전반적으로 범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었다.

(6) 이방인 여자가 그 믿음으로 복을 받다(15:21-28)

15:21-22 예수께서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우리가 아는 대로는 그분이 공사역 기간 중 유대지경 밖에 가신 것은 이것이 유일했다. 여기 뵈니게에서 한 가나안 여자가 귀신들린 그녀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분께 간청했다.

이 여자가 유대 여자가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신 부도덕한 민족인 가나안족의 후손이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 일부가 여호수아 지도하의 가나안 침략에서 살아남았는데 이 여자는 바로 그 생존자의 후손이었다. 이방인으로서 그녀는 하나님의 택한 지상백성의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 그녀는 외인으로서 아무 소망도 없었다. 신분적으로 그녀는 하나님도 메시아도 소유할 아무 권리가 없었다.

그녀는 예수님을 가리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가리켜 말할 때 사용하는 칭호이다. 물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셨지만 이방인은 그 칭호를 의지해서 그분께 나아갈 권리가 없었다. 그것이 그분이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까닭이다.

15:23 제자들이 와서 그녀를 보내라고 재촉했다. 그들에게 그녀는 성가신 존재였다. 한편 그분께는 그녀가 믿음의 훌륭한 모본이자 그분의 은혜를 빛낼 그릇이었다. 그러나 그분은 먼저 그녀의 믿음을 단련하고 가르치셔야 했다!

15:24-25 그분은 자신이 이방인에게가 아니라, 또 분명 가나안인에게가 아니라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그녀는 이 명백한 거절로 인해 실망하지 않았다. 다윗의 자손이란 칭호를 생략한 채 그녀는 그분께 경배드리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호소했다. 만일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메시아에게 나아갈 수 없다면 그녀는 피조물로서 자신의 창조주께 나아가고자 했다.

15:26 그녀의 믿음의 실재를 더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방인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셨다. 혹 이것이 우리에게 가혹하게 들린다면 우리는 의사의 메스처럼 그것이 상처가 아닌 치료를 주는데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녀는 이방인이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먹을 것을 찾아 이리 저리 배회하는 개들로 간주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작은 애완용 개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문제는 “그녀가 그분의 자비의 지극히 작은 부분조차도 받을 가치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려 하는가?”였다.

15:27 그녀의 대답은 훌륭했다. 그녀는 그분의 묘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무가치한 이방인의 위치를 취한 채 그녀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에 자신을 맡겼다. 그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한 셈이다. “당신이 옳습니다! 저는 상아래 있는 작은 개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좀 먹으면 안 되나요? 저는 당신이 제 딸을 고쳐주실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무가치한 피조물 중 하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15:28 예수님은 그녀의 큰 믿음으로 인해 그녀를 칭찬하셨다. 믿지 않는 자녀들은 떡에 대한 주림이 전혀 없었던데 반해 여기에 떡을 찾아 부르짖는 자칭 “개”가 있었다. 믿음이 보상되어 그녀의 딸이 즉시 고침을 받았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이방인의 딸을 먼 거리에서 고치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옛 백성이 민족적으로 제쳐진 이 시대 동안 이방인에게 영적인 치료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편에서의

그분의 현재사역을 시사해 준다.

(7) 예수께서 큰 무리를 고치시다(15:29-31)

15:29-31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두로를 떠나 북쪽 시돈을 지나 동쪽 요단을 가로질러 남쪽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기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그분은 절뚝발이와 소경과 병어리와 기타 여러 병자를 고쳐주셨다. 놀란 무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들은 인근의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이스라엘로 간주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셨다고 올바르게 추론했다.

(8) 4천명을 먹이심(15:32-39)

15:32 이 사건을 5천명을 먹이신 사건과 혼동하는 부주의한(혹은 비판적인) 독자들은 성경을 중복되고 모순되고 계산이 틀렸다고 고소해 왔다. 사실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르며, 서로 모순되기 보다는 보완해 준다.

주님과 3일을 보낸 후 무리는 먹을 것이 떨어졌다. 그분은 그들을 주린 채 보내기를 원치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15:33-34 다시금 제자들은 그렇게 큰 군중을 먹이는 불가능한 일로 인해 좌절케 되었다. 이번에는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마

리뿐이었다.

15:35-36 5천명을 먹이신 경우처럼 예수님은 무리를 앉히고 축사하시고 떡과 생선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눠주게 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하기를 기대하시며, 그런 연 후에 친히 개입하사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신다.

15:37-39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일곱 광주리였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4천명이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무리를 먹인 그 두 사건과 관계된 자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16:8-12). 성경의 모든 세세한 기사에는 의미가 담겨 있다.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우리 주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서부 해안에 위치한 막달라로 향하셨다.

(8)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16:1-12)

16:1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 전통적으로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교리적으로 두 극단을 대변했다. 그러나 구주를 올라미에 걸리게 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그들의 적대감이 협동심으로 변했다. 그분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분께 요구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은 그분을 타협적인 상황에 빠뜨리고자 했다.

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 것은 그분의 이전 기적의 상반되는 근원을 암시한 말인지도 모른다. 혹은 하늘의 어떤 초자

연적인 기적을 원한 것인지도 모른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지상에서 행해졌다. 그분이 천상적인 기적도 행할 수 있을까?

16:2-3 그분은 하늘이란 표현을 이어 사용하여 대답하셨다. 그들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날 날이 좋겠다고 예상했다.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꺾겠다고 했다.³²⁾ 그들은 하늘의 외관을 해석하는 지식은 있었으나 시대의 표적은 해석하지 못했다.

이 표적은 무엇이었는가? 메시아의 출현을 알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메시아에 대해 예언된 기적들(어떤 사람도 행하지 못한)이 사람들 앞에서 행해졌다. 또 하나의 시대의 표적은 유대인에 의해 메시아가 명백히 거절당하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진 것인데 이 모두는 예언의 성취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의 여지없는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사가 이뤄지고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16:4 그분이 친히 그들 중에 계신데도 표적을 구함으로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악하고, 영적으로 간음한 세대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었다. 12장 39절의 주해에서 설명되었듯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3일만에 부활하신 일을 가리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이다. 이것은 합당한 왕이신 그분께 부복하기를 거절하는 모든 자들의 운명에 대한 표적이 될 것이다.

본절은 “저희를 떠나 가시다”는 암시적인 표현으로 끝난다. 이

32) (16:2-3) 물론 이러한 일기 징후들은 이스라엘의 경우는 유효하지만 북미나 영국의 경우는 유효치 않다!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누구에게나 자명할 것이다.

16:5-6 호수 동편에서 주님과 다시 만났을 때 제자들은 음식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경고와 함께 그들을 맞으시자 그들은 그분이 “먹을 것을 얻으려고 그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음식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힌 까닭에 영적인 교훈이 담긴 말씀에서 문자적이고 자연적인 설명을 시도한 것이다.

16:7-10 5천명과 4천명을 먹이신 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식량부족을 염려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두 기적을 상기시키셨다. 거기에 암시된 교훈은 하나님의 계산 및 하나님의 풍부함과 관계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먹이고 더 많은 음식이 남았던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제한된 자원을 그분의 처분에 맡긴다면 그분은 그 자원의 양에 반비례하게 늘려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적은 것이 곧 많은 것이다.”

본절에 나오는 “광주리”³³⁾는 5천명을 먹인 사건에 나오는 단어와 다르다. 이 사건에 나오는 일곱 광주리는 5천명을 먹인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밑에 흐르는 교훈인즉, 무한한 능력과 자원을 지니신 분과 연결되어 있는데 왜 주림과 부족을 염려하는가이다.

33) (16:7-10) 5천명이 남긴 열 두 “코피노이”가 4천명이 남긴 일곱 “스푸리데스”보다 양이 적었을 수도 있다.

16:11-12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해 말씀하실 때 주님은 떡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교리와 행실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으로 밝혀졌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밀히 고수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순종은 외적이고 피상적이었다. 그들은 내적으로는 악하고 부패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합리주의였다. 당대의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은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처럼 의심과 부인으로 이뤄진 이론체계를 세웠다. 그들은 천사와 귀신의 존재, 몸의 부활, 영혼의 불멸성, 영원한 형벌 등을 부인했다. 이러한 회의주의의 누룩은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음식물 속의 누룩처럼 확산, 침투될 것이다.

10.

왕이 제자들을 준비시키심(16:13-17:27)

(1)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16:13-20)

16:13-14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바다 북편으로 약 25마일,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약 5마일에 위치했다. 예수께서 주변 마을들에 이르렀을 때(막 8:27) 그분의 가르침 사역의 정점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까지 그분은 제자들을 그분이 누구신지 진실로 깨닫도록 인도해 오셨다. 그 일에 성공을 거두자 그분은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 결연히 그 얼굴을 돌리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의 신분에 대해 뭐라고 말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심으로 시작하셨다. 그에 대한 답은 세례 요한에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일반 사람에게 그분은 많은 사람 중 하나였다. 좋은 분이긴 하나 가장 좋은 분은 아니었다. 위대한 분이긴 하나 가장 위대한 분은 아니었다. 선지자이긴 하나 그(the) 선지자는 아니었다. 이러한 견해는 결코 합당치 않았다. 그것은 미미한 칭찬으로 그분을 정죄했다. 만일 그분이 한 사람에게 불과했다면 그분은 사기꾼이었는데 이는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주장한 까닭이었다.

16:15-16 그래서 그분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이 질문이 시몬 베드로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역사적인 고백을 하게 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자 성자 하나님이셨다.

16:17-18 우리 주님은 요나의 아들(바요나) 시몬에게 복을 선언하셨다. 주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이 어부의 지성이나 본성적인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해서 그에게 초자연적으로 계시된 것이다. 그러나 아들께서도 베드로에게 하실 중요한 말씀이 있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모두는 복음서에서 이 구절보다 더 논쟁을 일으키는 구절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 문제의 일부는 베드로와 반석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유사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다르다. 전자(페트로스)는 돌맹이(stone), 혹은 고정되지 않은 돌(rock)을 의미하나 후자(페트라)는 암반과 같은 반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상 “...너는 베드로(돌맹이)이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분은 돌맹이가 아닌 반석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이 반석인가? 만일 문맥에 충실한다면 반석은 분명히, 교회가 세워진 진리인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가리킬 것이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교회가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

에 세워졌다고 가르친다.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한 그 진술은 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 안에 놓인 터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반석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폴간은 다음과 같은 유익한 설명을 해준다.

“그분이 유대인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반석이란 단어의 상징적인 용례를 추적해 본다면, 그것이 인간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베드로 위애가 아니다. 예수님은 수사법을 가지고 장난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그것들의 옛 히브리어 용례(돌은 항상 신성을 상징했다)를 취하여 ‘하나님 자신(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³⁴⁾

베드로는 결코 자신을 교회의 기초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두차례 그리스도를 돌로 언급했으나(행 4:11-12; 벰전 2:4-8) 그 때는 상징하는바가 달랐다. 즉 거기서 말하는 돌은 모퉁이돌이지 기초가 아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첫 언급을 대하게 된다. 그것은 구약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교회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미래에 있었는데, 그것은 오순절 날에 형성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 안의 참신자로 구성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부로 알려진 구별된

34) (16:17,18) G. Campbell Morgan,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p. 211.

연합체로서 독특한 천상적인 소명과 운명을 지닌다.

이스라엘과 왕국이 두드러진 주제인 마태복음에서 교회가 소개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결과로 공백기간(교회시대)이 삽입되어 휴거 때까지 이를 것이다. 휴거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섭리를 민족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절에 이은, 그분의 세대적인 계획의 다음 단계로 여기서 교회를 소개하신 것은 적합하다 하겠다.

“음부(하테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두 가지 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로 교회에 대한 대적의 공격이 실패한다는, 즉 교회가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살아남을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또 둘째로 교회가 공격자의 위치에 서서 승리자로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다. 각 경우에 살아있는 신자들의 변화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의해 사망의 세력이 패배할 것이다.

16: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이 땅의” “천국”(왕께 대한 충성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자칭하는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영역)과 관계가 있다. “열쇠”는 접근 혹은 출입을 가리킨다. 신앙고백의 영역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는 지상대명에 암시되어 있다(마 28:19).-제자화, 세례, 가르침. (세례는 구원의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왕께 대한 충성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입문 의식이다.)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그 열쇠를 처음 사용했다. 그것은 그에게만 배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의 대표자로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같은 약속이 그들 모두에게 주어진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본문 및 그 짝 구절이라 할 요한복음 20장 23절은 베드로와 그의 계승자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종종 인용된다. 우리는 그럴 리 없다는 것을 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로, 그것은 사도들이 우리가 오늘날 가지지 못한 매고 푸는 권세를 가졌다는 의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들의 죄를 매어놓아 그들로 즉각적인 죽음의 형벌을 받게 했는가 하면(행 5:1-10), 바울은 고린도의 징계 받은 사람을 회개한 까닭에 죄의 결과에서 풀어주었다(고후 2:10).

또는 이 구절은 사도들이 땅에서 매거나 풀은 모든 것은 필경 이미 하늘에서 매거나 풀어졌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NKJV 난해주 참조). 이에 대해 라이리(Ryrie)는 “사도들이 아닌 하늘이 모든 매고 푸는 것을 관장하며 사도들은 그것을 선언한다”라고 말한다.³⁵⁾

본절이 오늘날 적용되는 유일한 방법은 “선언적인” 의미에서만이다. 죄인이 진실로 그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할 수 있다. 죄인이 구주를 거절할 때 그리스도인 사역자는 그의 죄가 그대로 있음을 “선언”할 수 있다.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진실로 그분의 뜻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이 그들의 행위 위에 있다”라고 윌리엄 켈리는 적었다.

35) (16:19) Charles C. Ryrie, ed., *The Ryrie Study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p. 1506.

16:20 다시금 우리는 주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것을 본다. 이스라엘의 불신앙 까닭에 그러한 공개로부터 아무 선(善)도 나올 수 없었다. 그리고 그분을 왕위에 앉히려는 민중 운동이 일어나 명백한 해가 끼쳐질 수도 있다. 그러한 때를 맞추지 못한 운동은 로마인들에 의해 무참히 분쇄될 것이다.

스튜어트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적고 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그 날은 복음서의 분수령을 이룬다. 이 지점을 기점으로 물줄기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볼 수 있던, 그분을 왕위에 앉히려는 대중적인 지지의 흐름은 이제 멀리 지나가 버렸다. 물줄기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간다…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사실 분기점에 서셨다. 그곳은 뒤로는 그분이 온 모든 길을 볼 수 있고, 앞으로는 그분을 기다리는 어둡고 가까이 하기 싫은 길을 볼 수 있는 산마루와도 같았다. 그분은 즐거운 날의 잔영이 아직도 가물거리는 뒤를 한번 바라본 뒤에 고개를 앞으로 돌리고 그늘진 길로 나아가셨다. 그분의 길은 이제 갈보리로 나 있었다.”³⁶⁾

(2)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대비하도록 제자들을 준비시킴(16:21-23)

16:21 예수께서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이상 제자들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인 예고를

36) (16:20) James S. Stewart, *The Life and Teaching of Jesus Christ*, p. 106.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그분의 목적이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것과, 그들은 승리자의 편에 있다는 것과, 어떤 일이 일어나든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주님은 준비된 마음들에게 소식을 공표하셨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 소식은(“제 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마지막 선언을 제외하고) 일체의 운동의 종말을 가져오기에 충분했다. 그것이 다른 점이었다!

16:22 베드로는 그의 주님께서 그런 대우를 받으신다는 생각에서 분개했다. 그는 그분의 길을 가로막는 양 그분을 붙잡고는 항의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게 했다.

16:23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분을 그러한 목적으로부터 방해하는 일체의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었다. 그래서 그분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부른 것은 베드로가 귀신들렸거나 사단의 지배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베드로의 행동과 말이 사단(그 이름이 “대적자”를 뜻한다)에게서 왔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것이었다는 뜻이다. 갈보리에 대해 저항함으로써 베드로는 구주에게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님을 좇으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러나 막상 십자가가 저 앞에서 아물거리면 “그리하

지 마! 네 자신을 구해!”라는 내부의 음성이 들린다. 또는 사랑하는 자들의 음성이 우리로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 그러한 때에 우리 역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해야 한다.

(3) 참된 제자도를 위한 준비(16:24-28)

16:24 이제 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에 내포된 사항들(자기 부인, 십자가를 짊, 그분을 좇음)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금욕(禁慾)과 다르다. 그것은 자아가 아무 권리를 가지지 못할 정도로 그분의 지배에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수치와 고난과 순교조차도 기꺼이 감내하는 것, 즉 죄와 자아와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을 좇는 것은 그분께서 겸손과 궁핍, 동정, 사랑, 은혜, 그밖에 모든 경건한 미덕들을 가지고 사신 것처럼 사는 것을 의미한다.

16:25 주님은 제자도의 두 가지 장애 요소를 예상하십니다. 하나는 불안과 고통, 고독, 혹은 손실로부터 자신을 구하려는 자연적인 유혹이고, 다른 하나는 부하게 되는 것이다. 전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움켜쥐는 사람들은 결코 성취를 발견할 수 없지만, 대가를 셈하지 않고 그분께 삶을 담대하게 맡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16:26 다른 유혹(부하게 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 “만일 어떤 사람

이 사업에 크게 성공하여 온 세상을 얻었다고 하자. 그는 그러한 미친 듯한 추구로 시간과 정력을 다 소진하여 그의 삶의 중심 목적을 잃고 말았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그것을 다 남기고 죽은 다음 영원을 빈손으로 보낸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인간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큰일을 위해서이다. 인간은 자신의 왕의 관심사를 드러내라는 요청을 받았다. 만일 그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최악의 경우(the worst)를 말씀하셨다. 그것이 기독교의 특징이다. 당신은 처음부터 최악의 경우를 예상한다. 그러나 당신은 보물과 축복을 찾기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 반하우는 이렇게 묘사했다.

“성경에서 금하는 모든 것 뒤에는 아무런 놀랄만한 것이 숨어 있지 않다. 우리가 이생과 내생에서 배울만한 모든 새로운 것은 기쁨으로 나타날 것이다.”³⁷⁾

16:27 이제 주님은 고난 뒤에 올 영광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신다. 그분의 아버지의 찬란한 영광으로 그분의 천사들과 함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분의 재림을 제시하신다. 그 때 그분께서 그분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유일한 길은 그 영광스런 때를 고대하고, 그 때 무엇이 진정 중요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전심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16:28 이어서 그분은 죽기 전에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는 놀라운 진술을 하셨다. 물론 문제는, 그 제자들이

37) (16:26)…더 이상의 자료는 얻을 수 없다.

모두 죽었으나 아직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장별 구분을 무시하고 다음 장 앞의 8구절을 그분의 수수께끼같은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 간주할 경우 해결된다. 그 구절들은 변화산의 사건을 묘사한다. 거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시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사실 그분의 왕국의 영광중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는 특권을 누린 것이다.

그리스도의 변화는 그분의 장차올 왕국에 대한 예비 그림으로 볼 수 있다. 베드로는 그 사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고 묘사한다(벧후 1:16). 주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그분의 재림을 가리킨다. 그리고 요한은 그 산에서의 경험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한다(요 1:14). 그리스도의 초림은 낮아지심 안에서 이뤄졌으나 그분의 재림은 영광중에 이뤄질 것이다. 요컨대 28절 예언은 변화산 위에서 이뤄졌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이상 인자를 겸비한 나사렛인이 아닌 영화롭게 되신 왕으로 보았다.

(4) 영광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킴 : 변화(17:1-8)

17:1-2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건이 있던 지 몇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갈릴리 부근의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많은 주석가들은 옛새라는 수치에 의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게벨라인은 이렇게 말한다. “6은 인간의 수로서 근로의 날을 의미한다. 6일 후에, 즉 일과 인간의 날이 다한 후에 주의 날, 왕국이 임할 것이다.”

변화산 사건이 “팔일쫘” 후에 일어났다고 한 누가의 기록은(9:28) 그 사이에 걸린 날들뿐 아니라 시작한 날과 끝 날도 포함한 것임이 분명하다. 8은 부활과 새로운 시작의 수인 점으로 보아 누가는 왕국을 새로운 시작으로 본 듯하다.

구주를 특별히 가까이서 대하는 위치를 차지한 듯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분이 변화되시는 장면을 보는 특권을 누렸다. 이제까지 그분의 영광은 육체의 몸 안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의 얼굴과 옷이 해처럼 빛나게 되었다. 구약의 영광의 구름 혹은 쉼키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듯이 그것은 그분의 신성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장면은 그분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주 예수님이 취하실 모습을 미리 보여 준 것이다. 그분은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닌 유다 지파의 사자로 나타나실 것이다. 그분을 보는 모든 이들은 그분을 즉시 성자 하나님, 곧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알아볼 것이다.

17:3 모세와 엘리야가 산 위에 나타나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때가 임박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눅 9:30-31).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성도를 대표한다. 혹은, 만일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보면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두 부분이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게 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죽음을 통해 하늘에 올라간 모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갈 모든 자들을 묘사해주며, 변화를 받아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는 변화를 통해 왕국에 들어갈 모든 자들을 묘사해준다는 것이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신약 성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 또

한 그들은 재림시에 살아있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국에 들어갈 신실한 이스라엘의 잔존자를 예표할 수도 있다.

산 밑에 남은 무리(14절, 눅 9:37 참조)는 그리스도의 천년통치의 축복에 참여할 이방 나라들에 비유되었다.

17:4-5 베드로는 이 장면에 깊이 감명되었다. 그는 진지한 역사 의식을 소유했다. 그 광경을 보존해 둘 양으로 그는 성급히 세 기념 장막(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을 짓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예수님을 첫 자리에 둔 점에 있어서는 옳았으나 그분께 절대 권위를 두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그릇되었다. 예수님은 동등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이시다. 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난 구름으로 그들 모두를 덮으시고 이렇게 선언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왕국에서 그리스도는 비할 데 없는 분, 그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될 최고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 또한 오늘날 그분을 좇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도 그분은 최고 통치자로 좌정하셔야 마땅하다.

17:7-8 영광의 구름과 하나님의 음성에 압도되어 제자들은 땅에 엎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일어나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왕국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주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땅의 모든 영광”이 되실 것이다.

(5) 선구자에 대하여(17:9-13)

17:9 산에서 내려온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할 때까지는 본 것에 대해 침묵하라고 명하셨다. 로마인의 숙박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자를 몹시 고대하는 유대인들은 그분이 그 일을 해줄 것은 기대했지만 그분을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는 원치 않았다. 모든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메시아를 이미 거절했으며,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메시아의 영광에 대한 환상을 얘기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 멧세지는 부활 후에 비로소 온 세상에 선포될 것이다.

17:10-13 제자들은 방금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중의 강림하심에 대한 그림을 목격했다. 그러나 그분의 선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라기가 예언한바 있기에(말 4:5-6)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에 대해 물었다. 주님은 과연 엘리야가 개혁자로서 먼저 와야 한다고 동의하신 후에 그가 이미 왔다고 설명했다. 분명히 그분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계셨다(13절). 요한은 엘리야는 아니었으나(요 1:21)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눅 1:17). 만일 이스라엘이 요한과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엘리야의 예언 역할을 이루었을 것이다(마 11:14). 그러나 백성들은 요한의 사역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를 임의로 대우했다. 요한의 죽음은 사람들이 인자에게 행할 일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다. 그들은 선구자를 거절했으며 왕 또한 거절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 일을 설명하시자 제자들은 그분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곧 오실 왕을 맞이하도록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기 위해 한 선지자가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타당한 사

실이다. 그가 엘리야일지 아니면 유사한 사역을 지닌 다른 사람일지는 알 수 없다.

(6) 기도와 금식을 통한 사역 준비(17:14-21)

인생이란 늘 정상을 누리는 경험이다. 영적인 승리감의 순간이 지나면 고생과 역경의 시절이 찾아온다. 산에서 내려와 인간의 필요라는 골짜기에서 섬겨야 할 때가 오는 것이다.

17:14-15 산 아래서는 절망에 처한 한 아버지가 구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그의 귀신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그 아들은 때때로 불과 물에 그를 넘어지게 하는 극심한 간질로 고통당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는 화상과 익사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십장 중에 가장 잔인한 자인 사단에 의해 당하는 고난의 전형적인 본이었다.

17:16 그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으나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는 사실만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고칠 능력이 없었다.

17:17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들은 간질을 고칠 믿음이 없었으며, 그런 점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당시의 유대 백성의 표본이었다.

17:18 간질환자가 앞에 나아오자마자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

고 고통당하던 환자는 즉시 나음을 입었다.

17:19-20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 없음을 의아히 여기면서 주님께 조용히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분은 “불신앙”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다. 만일 그들이 겨자씨(가장 작은 씨)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었다. 물론 참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어떤 굉장한 모험을 해보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허세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나 어떤 신자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거나 어떤 명령을 그에게 내리신다면 그는 산과 같은 어려움들이 기적적으로 제거될 것이라는 크나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17:21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난하주 참조)는 말씀은 많은 초기 사본에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현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대다수 사본에서 발견되며 문맥에도 부합된다.

(7) 그분이 팔리실 것에 대해 제자들을 준비시킴(17:22-23)

17:22-23 다시금 아무 극적인 사건이나 화려한 성취 없이 주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다. 그러나 다시금, 그분이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자기 입증 및 승리의 말씀을 덧붙이셨다. 만일 그분이 자신의 죽음을 미리 그들에게 알리

지 않았다면, 그들은 분명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수치와 고난의 죽음은 그들의 메시야에 대한 기대와 일치되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그분이 그들을 떠나실 것이며 또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크게 낙심했다. 그들은 그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은 경청했으나 그분의 부활의 약속은 귀담아 듣지 않은듯 했다.

(8) 성전 세를 지불하심(17:24-27)

17:24-25 가버나움에서 성전 세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그의 선생은 성전 봉사에 드는 반 세겔을 내지 않느냐고 물었다. 베드로는 “내신다”고 대답했다. 아마 이 잘못 생각한 제자는 그리스도를 난처한 상황에서 건져주려 했던 것 같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주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자 예수께서 먼저(베드로가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할 기회를 갖기 전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누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 질문은 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통치자는 그의 나라와 그의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그의 신하에게는 세를 부과했으나 자신의 가족에게는 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통치자와 그의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고 있다.

17:26 베드로는 왕이 타인에게서 세를 받는다고 정확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고 지적하셨다. 요컨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그 성전의 필요를 위해 세를 내는 것이 그 자신에게 세를 내는

것과 동등하다고 할 수 있었다.

17:27 그러나 주님은 불필요한 거칠 것을 생기게 하기보다는 세금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돈을 마련할 것인가? 예수께서 돈을 직접 가지고 다니셨다는 기록은 일절 없다. 그분은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 보내면서 낚시를 던져 처음 오르는 고기를 가져오라고 이르셨다. 그 고기 입에는 한 세겔짜리 동전이 있었으며 베드로는 그것으로 주 예수님과 자신을 위해 반 세겔씩 지불할 수 있었다.

매우 절제되어 기록된 이 놀라운 사건은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분명히 드러내 준다. 그분은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 중 어느 고기가 입에 동전을 물고 있는지를 아셨다. 그분은 그 고기의 위치를 아셨다.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가 낚아 올릴 첫 번째 고기가 될 것도 아셨다.

만일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관계되었다면 예수께서는 세를 내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것은 그분께는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으며 그러기에 그분은 걸림이 되기보다는 기꺼이 세를 내고자 하신 것이다. 우리는 신자들로서 율법에서 자유한 상태이다. 그러나 비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양심을 존중하고, 또 걸림이 될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

11.

왕이 제자들을 가르치심(18-20장)

(1) 겸손에 관해(18:1-6)

18장은 위대함과 용서에 대한 강화로 불리운다. 그것은 그리스도-왕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 합당한 행실의 원리들을 개괄해 준다.

18:1 제자들은 항상 천국을 평화와 번영의 황금시대로 생각했다. 이제 그들은 그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는 물음은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

18:2-3 예수께서는 실물 교훈으로 대답하셨다. 그분은 어린 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 내적인 실재로서의 왕국을 말씀하고 계셨다. 즉, 참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큰 자가 되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어린 아이의 낮은 자리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죄성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된다. 이러한 태도

는 그의 그리스도인 삶 전체에 걸쳐 지속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암시하신 것이 아니다.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가 그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었으며 따라서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였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성령을 내주하시는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소유한(그러나 마땅히 사용할 만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진정한 겸손을 위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또한 그들은 왕국에 합당하도록 그들의 모든 그릇된 생각이 변화를 받는 그런 의미에서 변화될 필요가 있었다.

18:4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이다. 분명히 왕국의 가치 기준은 세상의 그것과 정반대된다. 우리의 사고 체계는 전체적으로 뒤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좇아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어야 한다(빌 2:5-8).

18:5 여기서 주 예수님은 자연적인 어린 아이에서 영적인 어린 아이로 거의 의식하지 못하게 나아간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낮고 천한 제자 중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제자에게 행한 것이 선생에게 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18:6 반면에, 누구든지 어떤 신자로 죄를 범케 하는 자는 크나큰 정죄를 받는다. 차라리 커다란 연자맷돌을 목에 매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여기에 언급된 연자맷돌은 짐승이 있어야 돌릴 수 있었다. 작은 맷돌은 손으로 돌릴 수 있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죄를 범하는 것도 물론 충분히 나쁜 일이지만, 그러나 어떤 신자로 죄를 범케 만

드는 것은 그의 결백을 무너뜨리고 그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순결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격렬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낫다!

(2) 실족케 하는 일에 관해(18:7-14)

18:7 이어서 예수님은 실족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셨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동맹을 맺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악이용한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악의 세력들의 도구가 된다면 그의 죄는 아주 큰 것이다. 그러므로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케 하지 않도록 자신을 강하게 훈련시키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다.

18:8-9 범죄케 한 지체가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게 하느니 차라리 그것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낫다. 성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사지나 눈이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는 어떤 몸들이 사지가 없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갈 때의 신자의 육체적인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다. 부활체가 온전하고 완전할 것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18:10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녀든 혹은 왕국에 속한 사람이든 그분의 소자 중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분은 그들의 천사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뵈고 있다고 덧붙이셨다. 여기에 나오는 천사는 보호하는 천사를 의미하는 듯하다(히 1:14).

18:11 RSV와 다른 대부분 현대성경(우리말 성경도 마찬가지임, 난하주 참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의 사명에 관한 이 구절은 이 부분의 적절한 대단원이 되어 준다. 사본들의 폭넓은 지지도 받고 있다.³⁸⁾

18:12-13 이 소자들은 인자하신 목자의 구원 사역의 대상이기도 하다. 1백 마리의 양 가운데서 하나가 길을 잃더라도 목자는 아흔아홉 마리를 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찾아다닌다. 길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목자의 기쁨은 그분의 소자들을 귀히 여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18:14 그들은 천사들과 목자에게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중요하다. 그 중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만일 그들이 천사들과 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관여시킬 정도로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비천하고 불품없어 보일지라도 그들을 결코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3) 범죄자의 징계에 관해(18:15-20)

본장의 나머지 부분은 교회 지체간의 불화를 해결하는 문제와, 무제한적인 용서를 베풀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38) (18:11) NU 본문에는 생략되었으나 대부분 맞소리 사본(M)에는 포함되었다.

18:15 다른 신자가 자기에게 죄를 범할 경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주어져 있다. 우선 이 문제는 두 당사자 간에 비밀히 다루어져야 한다. 만일 범죄한 사람이 그의 죄를 시인하면 그것으로 화해가 이뤄진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일을 사람들에게 늘어놓는다. 그런 다음 문제가 퍼지고 다툼이 커진다. 우리가 첫 단계로 기억할 것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것이다.

18:16 만일 범죄한 형제가 듣지 않으면, 해를 당한 형제는 두 세 증인과 함께 가서 그의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이것은 범죄한 형제가 계속 완고한 태도를 취할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강조해 준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것은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신 19:15)라고 한 성경의 유력한 증거를 제공해 준다. 다른 사람에 대한 고소는 반드시 두 세 증인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원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문제가 얼마나 교회를 오염시키는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세상 법정이 종종 교회보다 훨씬 옳게 행한다.

18:17 만일 고소를 당한 자가 여전히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거절하면 지역 교회 앞에 문제를 가져가야 한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지역 교회는 일반 법정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을 책임이 있는 몸이라는 점이다. 그리스도인은 신자간의 문제로 인해 법정에 나가는 것이 금해졌다(고전 6:1-8).

만일 피고가 교회 앞에서 그의 잘못을 시인하기를 거절하면 그는 이방인과 세리 같이 여겨져야 한다. 이 표현에 담긴 가장 분명한 의

미는, 교회의 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그는 참 신자일지 모르나 참 신자답게 살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렇게 취급받아야 한다. 그는 비록 여전히 우주적인 교회 안에는 있지만 지역교회의 특권으로부터는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징계는 심각한 조치이다. 그것은 신자를 일시적으로 사단의 세력 하에 내어줘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얻게 하는” 것이다(고전 5:5). 그러한 조치의 목적은 그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의 죄를 자백케 하는데 있다. 그 지점에 이를 때까지 신자들은 그를 정중히 대하는 한편 그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며 그와 동료 신자로서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태도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경건한 회개의 증거가 보이면 교회는 즉시 그를 다시 영접해야 한다.

18:18 18절은 앞 내용과 연결된다. 교회가 기도하는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징계조치에 매이게 하면 그 조치는 하늘에서도 존중된다. 징계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여 교회가 그를 교제권으로 회복시키면 그러한 푸는 조치 또한 하나님에 의해 인준된다(요 20:23).

18:19 “그러면 위에 묘사된 그러한 매고 푸는 조치를 행하려면 교회가 얼마나 커야 하는가?”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답은 “두” 신자가 응답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그러한 문제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구절은 기도 응답에 대한 일반적인 약속으로 인용될 수도 있지만 문맥상으로는 교회 징계에 관한 기도를 가리킨다. 공중 기도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그것은 기도에 관한 다른 모든 가르침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일치해야 한다(요일 5:14-15).
- (2) 믿음으로 드러져야 한다(약 1:6-8).
- (3) 진실한 마음으로 드러져야 한다(히 10:22) 등등.

18:20 20절은 문맥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선적으로는 단순한 형태의 신약교회의 구성을 가리키거나 일반적인 기도 집회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죄를 인해 분리된 두 그리스도인 사이의 화해를 도모하는 모임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신자들의 모든 모임에 적법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여기에 관계된 모임은 특별한 형태의 모임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로, 그분의 모든 속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라는 뜻이다. 어떤 무리도 그들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유일한 무리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만일 그런 주장대로라면 그분의 임재는 이 땅에 있는 그분의 몸의 작은 조각에 제한될 것이다. 두 세 사람이 그분을 주님과 구주로 인정하는 가운데 모인 그곳에 그분께서 그들 중에 계신 것이다.

(4) 무한한 용서에 관해(18:21-35)

18:21-22 이 때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제기했다. 그 한계로 그가 일곱 번을 제시한 것은 아마 그 자신이 남다른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예수께서는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고 대답하셨다. 이것은 문자적인 490번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비유법을 통해 “무한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왜 위에 언급된 단계를 밟아야 하는가? 왜 범죄자에게 혼자 간 다음, 두 세 사람과 함께 가고, 그런 다음 그를 교회에 데려가야 하는가? 그냥 용서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 답은, 용서를 실행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이다.

(1) 어떤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죄를 범할 때 나는 “마음으로” 즉시 그를 용서해야 한다(엡 4:32). 그것은 나를 원함과 용서치 않는 마음에서 해방시키고 문제를 그 사람에게 짐지운다.

(2) 그를 마음으로 용서하는 한편 그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직 그에게 알리지 않는다. 그가 회개하기 전에 용서를 공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나는 그가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도록 도우려는 마음에서 그에게 가서 사랑으로 그를 꾸짖을 의무가 있다(눅 17:3).

(3) 그가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즉시 그가 용서받았음을 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눅 17:4).

18:23 이어서 예수께서는 값없이 용서받은 종들이 용서치 않는 마음을 품음으로 받게 될 결과를 경고하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다.

18:24-27 이 이야기는 회계장부에서 엄청난 채무 내용을 청산하려는 어떤 왕에 관한 것이다. 일만 달란트나 빛진 한 종이 값은 능력이 없기에 주인이 명하여 그와 그의 가족을 노예로 팔아 빚을

값으라고 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종은 기회가 주어지면 다 값을
으니 시간을 달라고 간청했다.

“많은 채무자들이 그렇듯이 그는 시간만 있으면 다 값을 수 있다
는데 대해 믿을 수 없을 만치 낙관적이었다(26절). 그가 진 빛은 무
려 1만 달란트(수백만 달러)나 되었다! 이처럼 채무액을 엄청나게 정한
것은 의도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청중에게 충격을 주고 그들의 관심
을 사로잡고 또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채무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
이다. 마틴 루터는 우리는 모두 그분 앞에서 거지라고 말했다. 우리
는 값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

주인은 종의 뉘우치는 자세를 보고 1만 달란트 전액을 탕감해 주
었다. 그것은 공의가 아닌 은혜가 전형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18:28-30 그 종에게는 일백 데나리온(수백 달러) 빚진 동료 종이
하나 있었다. 그는 그 동료를 용서해주는 대신 그의 목을 잡고 다
값으라고 다그쳤다. 그 가없는 채무자는 좀 기다려달라고 간청했으
나 아무 소용없었다. 그는 그 빛을 값을 때까지 옥에 갇혔다. 사실
이제 옥에 갇혀 돈을 벌 기회도 상실했기에 빛을 값을 길이 없었다.

18:31-34 이 모순된 행동을 보고 노한 다른 종들이 주인에게 이
일을 고했다. 주인은 그 자비를 모르는 채무자에게 대노했다. 크나
큰 빛을 탕감 받았거늘 그 자신은 조그만 빛도 탕감해 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빛을 값을 때까지 옥졸들의 감시에 맡겨졌다.

18:35 이 교훈의 적용은 분명하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의
모든 종들은 값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빛을 그분께 졌다.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주님께서 그 빛을 지불하시고 완전하고 값없는 용서를 허락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간에 잘못을 범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가해자가 책망을 듣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거절한다. 그 자신은 수백만 달러를 탕감 받았으면서 수백 달러를 탕감해 주려 하지 않는다. 왕께서 그러한 행동을 그냥 놔두시겠는가? 그는 이생에서 징계를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손실을 당할 것이다.

(5) 결혼, 이혼 및 독신에 관해(19:1-12)

19:1-2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주님은 남쪽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그분의 정확한 여정은 알 수 없지만 요단 동편에 위치한 베뢰아를 지나셨음이 분명해 보인다. 마태는 그 지역을 “요단 강 건너 유대 지경”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베뢰아 사역은 19장 1절에서 20장 16절 혹은 20장 18절까지 펼쳐 있는데 그분이 요단을 건너 유대로 가신 시기는 분명한 언급이 없다.

19:3 아마 병 고침을 받기 위해 그분을 좇아 다닌 무리 까닭에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행방을 알아챘던 것 같다. 한 떼의 들개들처럼 그들은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을 옹아매려고 그분께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혼이 어떤 이유로든 합법적인지 여부를 물었다. 그분이 어떻게 대답하시든 유대인의 어느 한 분파를 자극시킬 참이었다. 어떤 파는 이혼에 대해 매우 자유로운 입장이었으나 어떤 파는 매우 엄격한 입장이었다.

19:4-6 우리 주님은 사람이 오직 한 아내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 의 본래 의도였다고 설명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결혼관계는 부모 관계를 초월해야 한다고 선언하셨다. 또한 결혼은 두 사람의 연합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이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러한 연합이 인간의 행위나 신조에 의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9:7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구약과 명백히 상충되는 말씀을 하셨기에 이제 그분을 책잡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지 않았는가? 남자는 단순히 아내에게 이혼증서만 건네준 뒤에 그녀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다(신 24:1-4).

19:8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최선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퇴보한 상태 때문이라고 말씀 하셨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이상은 이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그분의 직접적인 뜻이 아닌 상황을 허용하신다.

19:9 이어서 주님은 그 후로는 이혼에 대한 과거의 관용이 계속 되지 않았다고 절대권위로 말씀하셨다. 이후로는 이혼의 적법한 사유는 단 하나뿐인데 그것은 음행이었다. 만일 그 외에 다른 사유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면 그는 간음을 범한 것이었다.

비록 직접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보아, 간음을 근거로 이혼을 했을 경우 무죄한 편은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이혼은 둘 사이를 갈라놓은 것 외에 아무 목적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성적인 부도덕, 혹은 음행은 일반적으로 간음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많은 유능한 성경학자들은 음행이 결혼 후에 발견된 혼전관계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신 22:13-21 참조).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유대인의 결혼관습에만 적용되며 그런 까닭에 이 “예외 구절”이 유대인의 복음인 이 마태복음에만 나온다고 믿는다.

이혼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5장 31-32절 주해를 참조하라.

19:10 이혼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듣자 제자들은 이혼이 그와 같이 단 한 가지 근거로만 허용될진대 그렇다면 결혼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불합리한 질문을 함으로 극단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상태에 머물지라도 그러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19:11 그러므로 구주께서는 독신에 머무르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셨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결혼하지 않은 채 지낼 수 있는 것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는 선언은 다음 말씀을 모두가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특별한 부름이 없으면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다.

19:12 주 예수님은 세 부류의 고자가 있다고 설명하셨다. 어떤 이들은 생산 능력이 결여된 채 태어난 까닭에 고자이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에 의해 성기를 제거당한 까닭에 고자이다. 동양의 군주들은 종종 궁궐의 시종드는 자들을 고자가 되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특히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를 염두에 두셨다. 이들은 결혼을 할 수 있고 또 아무 신체적인 장애도 없다. 그러나 왕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 그들은 아무 장애 없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에 바치기 위해 자원함으로 결혼을 사양한다. 바울이 후에 기록했듯이 주님의 일을 위해 결혼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염려하는 것이다(고전 7:32). 그들의 독신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을 절제하는 문제이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 수는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만 가능하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고전 7:7).

(6) 어린 아이들에 관해(19:13-15)

19:13-15 이혼에 관한 강화 바로 뒤에 아이들을 대하는 문제가 소개된다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막 10:1-16 참조). 이는 종종 파괴된 가정에서 가장 혹심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바로 아이들이기 때문인 듯하다.

부모들이 선생-목자이신 분께 축복을 받으려고 예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제자들은 이것을 성가신 무단침입으로 보고 부모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후로 모든 아이들로 그분을 사랑하게 만든 그러한 말씀으로 개입하셨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에는 여러 중요한 교훈이 나타나 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주님의 종에게, 마음이 극히 순전한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둘째로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어린 아이들은 격려를 받아야지 위축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무도 아이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알지 못한다. 만일 어떤 어린 아이가 진실로 구원받기 원한다면 그에게 너무 어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어린 아이들은 거짓 신앙고백을 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감정적인 호소에 약하기 때문에 고압적인 전도방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어린 아이들은 구원받기 위해 어른이 될 필요는 없지만 어른들은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18:3-4; 막 10:15).

셋째로, 우리 주님의 이러한 말씀은 “책임연령에 이르기 전에 죽은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답해 준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린 아이를 잃는 슬픔을 당한 부모들에게 충분한 확신을 줄만 하다.

때때로 이 구절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이자 왕국의 후사로 삼기 위해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지지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본문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지 세례 장소로 데려오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이들이 이미 천국을 소유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문에는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는다.

(7) 부(富)에 관해(19:16-26)

19:16 이 사건은 앞의 내용과 대조되는 교훈을 준다. 방금 전에

는 천국이 어린 아이들에게 속했음을 보았으나 이제는 어른이 그곳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게 된다.

한 부자가 외관상 진지해 보이는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왔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면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참 신분과 구원의 방법에 대한 그의 무지를 드러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름으로써 그분을 다른 위대한 인간과 동일한 선상에 놓았다.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얻는 것이 아닌 빛을 갚는 것으로 말했다.

19:17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사실을 들어 그를 시험하셨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제가 당신을 선하다고 부른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다.

구원의 방법에 대해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는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죄에 대한 자각을 일으키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신 것이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행함의 원리로 왕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착각 아래 있었다. 그러므로 그에게 행함을 말해주는 율법을 순종하라고 촉구하신 것이다.

19:18-20 우리 주님은 동료 인간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다루는 다섯 계명을 인용한 다음 끝으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이기심을 깨닫지 못한 채 자

신은 그 계명들을 항상 지켰노라고 자랑했다.

19:21-22 그러자 우리 주님은 그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하심으로써 그가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드러내셨다. 그는 그렇게 한 후에 예수께로 나와 그분을 좇아야 했다.

주님은 이 사람이 소유를 팔아 구제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데 그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시인해야 한다. 이 부자가 그의 소유를 나눠주기를 꺼려한 것은 그가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했다. “주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그렇다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고로 주님의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가 구주의 가르침에 순응했다면 그는 구원의 길을 부여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그는 “근심하며 갔다.”

19:23-24 이 부자의 반응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도록 자극했다. 부(富)는 우상이 되기가 쉽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소유만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우리 주님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선언하셨다. 그분은 과장법으로 알려진 수사법을 사용하셨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다! “바늘귀”는 종종 성읍의 작은 문을 가리킨다고 설명된다. 약대는 무릎을 구부려야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병행구절에서 “바늘”을 가리키는 단어는 외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바늘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와 똑같다. 문맥으로 보아 주님은 어려움이 아닌 불가능함을 말씀하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부자는 실로 구원받을 수 없다.

19:25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놀랐다. 그분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변영을 약속하는 모세 율법 아래 사는 유대인들은 부(富)를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옳게 간주했다. 만일 그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19:26 주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대답하셨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사람이 구원받는데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나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그리스도께 그 의지를 굴복시키기가 더 어려운데 이는 부자가 구원받는 예가 극히 드문 사실로 입증된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부양수단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주를 의지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발견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이다.

주석가와 설교가들은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주 정당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여기에 삽입해 넣는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지상의 보물을 쌓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를 인간

의 영원한 복락에 대한 장애물로 지적하시는 구절을 인용한다! 그리고 전 세계의 엄청난 빈곤상황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함, 그리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분명한 금령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부(富)를 붙들고 있을 수 있겠는가! 축적된 부(富)는 우리가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지적해 준다.

(8) 희생적인 삶에 대한 보상에 관해(19:27-30)

19:27 베드로가 구주의 가르침의 흐름을 포착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그와 다른 제자들은 정말로 그렇게 했노라고 자부한 다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베드로의 자아와 옛 본성이 노출된 상태였다. 그것은 우리 각인이 경계해야 할 마음이었다. 그는 주님과 흥정을 벌이고 있었다.

19:28-29 주님은 그분을 위해 행해진 모든 것이 넉넉히 보상받을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확약하셨다. 특히 열두 제자들의 경우에는 천년왕국에서 권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미래 지상통치를 가리킨다. 그것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라는 표현에 의해 설명된다. 우리는 앞서 이 단계의 왕국이 전시된 왕국을 말한다고 설명한바 있다. 그 때에 열두 제자는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은 천년왕국에서의 다스리는 위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눅 19:17,19).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대에서 상급을 받지만 주님께서 다스리기 위해 지상에 다시 오실 때 “모습을 나타낸다.”

신자들 전체에 대해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덧붙이셨다. 이생에서 그들은 끊어진 지상적인 결속을 넉넉히 보상해주는 신자들의 전 세계적인 교제를 누린다. 그들은 한 집을 떠날 경우 그 대가로 그들을 따듯이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1백 가정을 얻는다. 그들이 버린 전토나 그밖에 여러 재산에 대해서는 계산을 초월한 영적인 부요를 받는다.

모든 신자들이 받게 될 미래의 상급은 영생이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영생은 선물이며 값을 주고 사거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모든 것을 버리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한 보다 큰 자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모든 신자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모두가 같은 정도로 그것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19:30 주님은 흥정하는 정신에 대한 경고로 말씀을 마치셨다. 그분은 사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 하는 모든 것이 보상될 것이다. 그러나 이기적인 생각에 끌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하나의 비유로 설명된다. 이 말씀은 제자도에 있어서 시작을 잘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경고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마치느냐이다.

이 단락을 마치기 전에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란 표현이 23절과 24절에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그 두 용어는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다.

(9) 포도원 일에 대한 보상에 관해(20:1-16)

20:1-2 19장 후반의 보상에 대한 강화의 연속인 이 비유는 모든 참 제자들이 보상을 받되 그 순서는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섬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진리를 예시해 준다.

이 비유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을 묘사한다. 이 품꾼들은 당시의 적정 임금인 하루 한 데나리온의 조건으로 일하기로 계약했다. 그들은 오전 6시에 일을 시작한 것 같다.

20:3-4 오전 9시에 주인은 시장에서 일손이 없는 다른 일꾼들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아무런 근로계약도 없었다. 그들은 상당하게 주겠다고 하는 주인의 말만 듣고 일터로 갔다.

20:5-7 정오와 오후 3시에도 주인은 상당한 임금을 주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다. 오후 5시에 보니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게으른 자들이 아니라 일하고 싶었으나 할 일을 찾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되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임금 문제를 포도원 주인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20:8 날이 저물자 주인은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샅을 주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하여 먼저 온 자들은 다른 이들이 임금을 받는 것을 보았다.)

20:9-12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리온씩 지불되었다. 오전 6시에 온 자들은 자기들이 더 받을 줄로 생각했으나 마찬가지로 한 데나리온뿐이었다. 그들은 몹시 분개했다. 어쨌든 그들은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위를 견디며 일했다.

20:13-14 그 중 한 사람에게 말한 주인의 대답에서 우리는 한 영구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첫 번째로 온 사람들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계약하고 그 합의된 임금을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인의 은혜에 맡기기로 하고 그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공의보다 낫다. 주님과 계약을 맺는 것보다 주님께 우리의 보상 문제를 맡기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20:15 이어서 주인이 말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물론 여기에 암시된 교훈은 하나님은 주관자이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행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옳고 정당하고 공정하다. 주인은 덧붙였다.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질문은 인간 본성 속의 이기적인 성향을 드러내 준다.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은 그들이 받을 몫

을 받았으나 다른 이들이 더 적게 일하고도 똑같은 값을 받은 까닭에 시기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불공평해 보인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것은, 천국에서는 전혀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는 우리의 탐욕적이고 경쟁적인 마음을 버리고 주님처럼 생각해야 한다.

주인은 그 모든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에 그들의 욕심이 아닌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지불했다. 아무도 받을 만큼보다 적게 받지 않았으며 모두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필요한 만큼 받았다.

제임스 스튜어트에 의하면, 본문은 “최후의 상급에 대해 흥정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그릇될 것이며,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는 항상 도전할 수 없는 마지막 말씀을 가질 것이다”는 교훈을 전해 준다.³⁹⁾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이 비유를 상고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매우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오전 6시에 고용된 사람들은 그러한 놀라운 주인을 온 종일 섬긴 것을 마땅히 추가적인 보상으로 생각했어야 했다.

20:16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셨다(19:30 참조). 훗날 상급이 주어질 때 의외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먼저 될 줄로 생각한 어떤 이들은 그들의 봉사가 교만과 이기적인 야망으로 고무된 것인 까닭에 나중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랑과 감사한 마음으로 섬긴 이들은 크게 존귀를 입게 될 것이다.

39) (20:15) James S. Stewart, *A Man in Christ*, p. 252.

“우리의 공로라고 생각한 것은
죄에 지나지 않았고
하찮은 행동으로 잊어버린 것은
주님을 섬긴 귀한 봉사였네.” (아논).

(10)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20:17-19)

20:17-19 주님은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베
뢰아를 떠나시는 길이었음이 분명하다(29절 참조). 다시금 그분은
그 거룩한 성에 이르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설명하기 위해 열
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분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울 것인데 이는 분명 가롯 유다의 배신을 가리킨 말씀이다. 그
분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로 결안 될 것이
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사형집행권이 없는 까닭에 그분을 이방인들
(로마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분은 능욕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
에 못 박히실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그 희생자를 가둬두지 못할 것
이다. 그분은 제 삼일에 살아나실 것이다.

(11) 왕국에서의 지위에 관해(20:20-28)

그분의 수난에 대한 세 번째 예고가 언급된 직후에 그분의 제자
들이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보다는 자신들의 영광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슬픈 기록이 아닐 수 없
다.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예고는 베드로의 항변을 불러

일으켰으며(16:22), 두 번째 예고는 ‘누가 가장 크니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이 바로 뒤에 이어졌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야심찬 요구로 인해 그 모습이 가려진 세 번째 예고를 대한다. 그들은 닥쳐올 환란에 대한 경계에는 철저히 눈을 감았고 오직 영광의 약속에만 눈을 열었다. 그리하여 왕국에 대한 그릇된 물질주의적인 견해를 취하였다”(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

20:20-21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 주님께 와서 자기 아들들을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의 양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가 아들들이 예수님 가까이 있기를 원한 것과 또 그분의 장차 올 통치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높이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녀는 왕국에서 영예가 수여되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마가는 두 아들이 직접 요청했다고 말하는데(막 10:35) 아마 모친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 세 사람이 함께 주님께 다가갔을 것이다. 여기에는 아무 모순도 없다.

20:22 예수님은 그들이 구하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고 솔직히 대답하셨다. 그들은 십자가 없는 면류관과, 희생제단 없는 보좌와,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하였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예리하게 물으셨다.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18-19절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했다.

야고보와 요한은 비록 그 확신이 지식보다는 열심에 근거했겠지만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20:23 예수님은 그들이 과연 그분의 잔을 마실 것이라고 확약하셨다. 야고보는 순교를 당할 것이고 요한은 박해를 당하여 밧모섬에 유배될 것이다. 이에 대해 로버트 리틀은 “야고보는 순교자의 죽음을 죽었고 요한은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고 했다.

이어서 예수님은 왕국의 높은 자리는 자신이 임의로 줄 수 없고 아버지께서 그러한 지위가 수여되는 특별한 기준을 이미 정하셨다고 설명하셨다. 그들은 그것을 정치적인 후원의 문제로, 즉 그들이 그리스도와 아주 친근하기에 총애받는 위치를 차지할 특별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총애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지혜에 따르면 그분의 우편과 좌편 자리는 그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근거로 주어질 것이다. 이것은 왕국의 으뜸 되는 영예는 초대 그리스도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 살고 있는 이들도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24 다른 열 제자는 세베대의 아들이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을 보고 심히 불쾌해 했다. 그들이 그렇게 분개한 것은 아마도 그들 자신도 큰 자가 되고 싶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5-27 이것은 그분의 왕국에서의 큰 자에 관한 혁명적인 선언을 할 기회를 우리 주님께 제공했다. 이방인들은 큰 자를 군림과 지배의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큰 자는 섬김으로 나타난다. 무릇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무릇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20:28 인자는 겸손한 섬김의 완전한 본이시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성육신의 전체 목적은 섬김과 줌(give)의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말 구유와 십자가에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분의 위대함은 그분의 겸손의 깊이를 통해 나타났다. 이는 우리에게도 역시 적용된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 그분의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켰다. 그것은 온 세상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을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유효하다. 당신은 그분을 영접했는가?

(12) 두 소경의 치료(20:29-34)

20:29-30 이즈음 예수님은 베뢰아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상황이었다. 여리고성을 떠나 갈 때에 소경 둘이 “주여, 우리를 붙잡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분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란 칭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소경이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할 만큼 그들의 영적인 시각이 예리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소경된 이스라엘 중 그분이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믿는 잔존자를 상징할 수 있다(사 35:5; 42:7; 롬 11:25,26; 고후 3:16; 계 1:7).

20:31-34 우리가 그들을 잠잠케 하려 했으나 그들은 더욱 집요

하게 그분께 부르짖었다.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자 그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그렇듯이 막연하게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곧바로 핵심을 아뢰었다. “주여 우리 눈이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의 구체적인 요청은 구체적인 응답을 받았다.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며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그리고 곧 그들은 시력을 회복하고 그분을 좇았다.

그분이 그들을 만지신 것과 관련하여 게벨라인은 다음과 같은 유익한 설명을 해 준다.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손으로 만지면서 하시는 치료의 상징적인 의미를 앞서 살펴본바 있다. 주님께서 만지면서 고치실 때마다 그것은 세대적으로 그분의 인격적인 지상 재림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인자한 치리를 가리킨다. 그분이 병자가 없는 중에 말씀으로 치료하실 때, 혹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분을 만지실 때, 그것은 그분이 지상에서 사라지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이방인들이 그분에 의해 고침을 받는 때를 가리킨다.”⁴⁰⁾

이 사건에 대한 마태의 기록과 마가복음 10장 46-52절 및 누가복음 18장 35-43절; 19장 1절을 조화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는 두 소경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명만 언급되었다. 혹자의 주장에 의하면 마가와 누가는 바디메오라는 잘 알려진 사람만 언급했으나, 특히 유대인을 위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유효한 증거의 최소한의 숫자로써(고후 13:1) 둘을 언급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예수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때 일어난 것으로 언급되었으나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40) (20:31-34) Gaebelein, *Matthew*, p. 420.

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일어난 것으로 언급되었다. 실은 옛 여리고와 새 여리고의 두 여리고가 있었으며, 소경을 고친 사건은 예수께서 옛 여리고를 떠나 새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12.

왕의 나타남과 거절됨(21-23장)

(1) 승리의 입성(21:1-11)

21:1-3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은 베다니와 벳바게가 위치한 감람산 동편에 이르셨다. 거기서부터 길이 감람산 남단을 타고 돌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 기드론 시내를 가로질러 위로 예루살렘으로 나 있었다.

그분은 그들이 매인 나귀와 나귀새끼를 발견할 것을 내다보시고 두 제자를 베다니로 보내셨다. 그들은 그 짐승들을 매인테서 풀어 예수께로 가져와야 했다. 만일 누가 제지하면 주님이 그 짐승들을 필요로 하신다고 설명해야 했다. 그러면 주인이 승락할 것이다. 아마 주인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분을 돕겠다고 전에 자청한바 있었을 것이다. 또는 이 사건은 주님의 전능하심과 절대주권을 드러낸다. 모든 일이 예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 일어났다.

21:4-5 이 짐승들이 준비된 것은 이사야와 스가라의 예언을 성취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21:6 제자들이 그들의 겹옷을 나귀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고(막 11:7)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로버트 엔더슨 경에 의하면 다니엘의 예언의 69이레가 이제 다 지났다. 이어서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단 9:26).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써 주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되심을 의도적으로, 밝히 드러내셨다. J. P. 랑게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분은 그분 당시에 한가지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해석된 예언을 의도적으로 성취하신다. 만일 그분이 전에는 자신의 위엄을 선언하는 것을 위협하다고 간주하셨다면 이제는 도리어 침묵을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신다. …그 후로는 그분이 아주 명료한 방법으로 자신을 선포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가 불가능해졌다. 예루살렘이 후에 메시아의 살인자로 고소당했을 때 메시아가 모두가 공히 알 수 있는 증표를 빠뜨리셨다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⁴¹⁾

21:7-8 주님은 백성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며 겹옷과 종려나무 가지가 깔린 길로 입성하셨다. 적어도 잠시 동안 그분은 왕으로 인정받으셨다.

21:9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무리가 소리쳤다. 이 시편 118편 25-26절 인용문은 분명 메시아의 출현을 가리킨다. “호산나”는 원래 “지금 구원하라”는 뜻인데 아마 백성들은 “지금 우리를

41) (21:6) J. P. Lange, *A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25 Vols., pagination unknown.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라”고 외친 듯하다. 후에 이 표현은 찬양의 환호가 되었다. “다윗의 자손이여”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란 문구는 모두 예수께서 메시아로 인정받고 계심을 분명히 말해준다. 그분은 여호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여호와의 권위로 오시는 찬송 받으실 분이시다.

마가의 기록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란 문구를 무리의 외침의 일부로 포함한다(막 11:10). 이것은 백성들이 이제 곧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위에 앉으실 줄로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침으로써 무리는 하늘을 불러 메시아를 찬양하는 일에 땅과 연합하도록 요청하고, 그리고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구원을 베풀도록 그분께 요청하고 있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은 예루살렘에 계실 때 예수께서 성전(성전 안이 아닌 성전 뜰 안)에 들어가셨다고 기록한다. 그곳은 하나님의 전이었으나 그분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그분께 합당한 위치를 드리기를 거절한 까닭에 그 전에서 마음이 편치 않으셨다. 잠시 주위를 둘러보신 후에 구주께서는 열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물러가셨다. 그 때는 일요일 저녁이었다.

21:10-11 그 사이에 성 안에는 그분의 정체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묻는 사람들은 그분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는 대답만 들었다. 이로 보아 그분이 메시아임을 이해한 사람은 극소수였던 것 같다. 일주일이 채 못 되어 그 쉬 변하는 군중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칠 것이다.

(2) 성전을 깨끗케 하심(21:12-13)

21:12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께서 성전 주변에서 상업주의를 쫓아내신바 있다(요 2:13-16). 그러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한 매매가 다시금 성전 바깥뜰에서 시작되었다. 제사용 짐승과 새가 비싼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었다. “돈 바꾸는 자들”은 비싼 요금을 받고 다른 화폐들을, 유대 백성이 성전세로 지불해야 할 반 세겔로 바꿔 주었다. 이제 그분의 사역이 끝나갈 즈음 예수님은 성스런 활동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들을 다시금 쫓아내셨다.

21:13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인용문을 결합하여 사용하면서 그분은 신성모독과 상업주의 및 배타주의를 꾸짖으셨다.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면서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셨다. 그들은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렘 7:11). 이러한 성전 정화가 예루살렘 입성 후에 하신 그분의 첫 번째 공적인 행동이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은 성전에 대한 그분의 주재권을 명백히 드러내셨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 준다. 오늘날 교회생활에서 우리는 바자회, 일일식당, 그밖에 돈벌이를 위한 여러 계획들을 쫓아낼 그분의 정화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성령의 전인 우리 몸 안에서 이뤄져야 할 주님의 정화사역을 끊임없이 필요로 한다.

(3)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분개(21:14-17)

21:14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 뜰에서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발견케 된다. 그분은 가시는 곳마다 곤핍한 자들의 주목을 끌었으며 반드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후 그들을 돌려보내셨다.

21:15-16 그러나 대적하는 눈길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칭송하는 것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했다.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하고 그들이 물었는데 그들은 그분께서 아이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칭하지 못하게 할 줄로 기대한 것 같다! 만일 예수께서 메시아가 아니었다면 이것은 단호히 그렇게 말할 적절한 때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대답은 아이들이 옳았음을 암시해 주었다. 그분은 70인역의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셨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만일 지혜 있는 자들로 알려진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찬송하지 않을진대 그렇다면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아이들은 종종 나이를 뛰어넘는 영적인 통찰을 지니며,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말은 주님의 이름에 비범한 영광을 가져다준다.

21:17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 진리를 생각해보도록 촉구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돌아가 거기서 밤을 보내셨다.

(4)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21:18-22)

21:18-19 아침에 예루살렘에 돌아오신 주님은 허기를 채울 열매를 얻고자 어느 무화과나무에 다가가셨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그분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즉시로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다.

마가복음에 의하면(11:12-14)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한다. 따라서 여기서 그것이 열매가 없으므로 꾸짖으신 것은 구주께서 불합리하고 쉬 짜증내는 분임을 나타내 주는 듯하다. 분명 그럴 리 없음을 감안할 때,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성지(聖地)에 있는 무화과나무는 잎사귀가 없어지기 전에 먹을 수 있는 이른 열매를 맺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결실의 전조였다. 만일 이 무화과나무의 경우처럼 아무런 이른 무화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후에 아무 정상적인 무화과도 없을 것을 암시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축복이 아닌 저주를 하신(생명을 소생시키는 대신 파괴시킨) 유일한 기적이다. 이것은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러한 비난은 그리스도의 위(位)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그분은 하나님, 곧 우주의 주재자이시다. 그분의 어떤 섭리들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항상 옳다는 전제로 시작해야 한다. 이 경우에 주님은 무화과나무가 결코 무화과를 맺지 못할 것을 아셨으며, 그분은 마치 농부가 과수원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제거할 때처럼 행동하셨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데 대해 우리 주님을 비난하는 자들도 그것이 상징적인 행위였음은 인정한다. 이 사건은 방금 예루살렘에서 받으신 떠들썩한 환영에 대한 구주의 해석을 보여준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 예수께서 그 민족에게 오셨을 때 신앙고백을 말하는 잎사귀만 있었고 하나님

을 위한 아무 열매가 없었다. 예수님은 그 민족에서 나오는 열매를 몹시 원하셨다.

아무런 지상적인 열매가 없었기에 그분은 이후로 그 믿지 않는 백성들로부터 아무 열매가 없을 것을 아셨으며 그런 까닭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것은 A.D 70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심판을 예표해주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영원히 결실치 못할 것이나 이스라엘 잔존자는 휴거 후에 메시아계로 돌아올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대환란과 그분의 천년통치 동안 그분을 위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구절에 대한 우선적인 해석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가 있지만 그것은 입술로만 고백할 뿐 아무 행함이 없는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21:20-21 제자들이 무화과나무가 갑자기 마른 것을 보고 놀라움을 표현하자 주님은 그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보다 더 큰 기적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예를 들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다시금 우리는 이 외양상 무조건적으로 보이는 기도에 관한 약속들은 그 주제에 관한 성경의 다른 모든 가르침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2절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기 원하는 것을 구하면 그대로 다 얻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제시된 조건들에 부합되게 기도해야 한다.

(5) 예수님의 권위가 의문시됨(21:23-27)

21:23 예수께서 성전 밖의 뜰로 들어가시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제지하며 누가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권세를 주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그분이 어떻게 대답하든 그분을 책잡기를 기대했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자신에게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분을 신성모독으로 고소하고자 했고, 만일 그분이 사람들에게서 권세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그분을 불신하고자 했다. 또 만일 하나님께서 권세를 받았다고 하면 그분께 도전하고자 했다.

그들은 스스로 신앙의 수호자요, 정식 교육과정과 인위적인 임명을 통해 백성들의 종교생활을 지도할 권위를 부여받은 전문가로 생각했다. 예수님은 아무 정식 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확실히 이스라엘 지도자들로부터 아무런 신임장도 받지 못했다. 그들의 도전은 하나님의 기쁨부음의 권세를 지닌 사람들에게 대해 직업적인 종교가들이 느낀 오래 된 분개감을 반영해 주었다.

21:24-25 주님은 그들이 만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는 질문에 답하면 자신의 권위에 대해 답하겠다고 제안하셨다.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질문은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 “누가 요한에게 그 사역을 수행하도록 권위를 부여했는가? 그의 임명은 인간에 의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인가?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서 어떤 신임장을 받았는가?” 그 대답은 명백했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다. 그의 권세는 하

나눔이 부여하신 것이지 인간이 부여한 것이 아니었다.

제사장과 장로들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만일 요한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 함정에 빠진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한바 있었다. 만일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서 왔다면 왜 그들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가?

21:26 반면에 만일 요한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다고 말하면 요한을 하나님께로서 온 선지자로 믿는 대부분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만일 요한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정확하게 대답했다면 그들은 그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예수님은 요한이 그 선구자로 온 메시아셨다)을 스스로 한 셈이 될 것이다.

21:27 그러나 그들은 사실을 직면하기를 거절하고 모른다고 답변했다. 그들은 요한의 권세의 근원을 말할 수 없었다. 이에 예수께서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으나 인정하기를 꺼리는 것을 굳이 말해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다.

(6) 두 아들의 비유(21:28-32)

21:28-30 이 비유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회개하고 믿으라는 요한의 촉구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날카롭게 책망한 것이다. 그것은 두 아들을 포도원에 일하러 보낸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 아들은 가겠다고 대답하고는 가지 않았다. 또 한 아들은 가지 않

졌다고 했다가 후에 마음이 변하여 갔다.

21:31-32 예수께서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고 물으시자 종교 지도자들은 “둘째니이다”라고 대답함으로써 부지중에 그들 자신을 정죄했다.

주님께서 그 비유를 해석하셨다. 세리와 창기들은 둘째 아들과 같았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결국 그 중 많은 이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종교 지도자들은 첫째 아들과 같았다. 그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인정하는 체 했으나 결코 그들의 죄를 자백하거나 구주를 믿지 않았다. 따라서 공공연한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반면 스스로 만족한 종교 지도자들은 밖에 남게 되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릇된 경건으로 위장한 자들보다 공공연한 죄인들이 복음을 보다 쉽게 받아들인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는 표현은 요한이 와서 회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義)의 필요성을 전파했다는 의미이다.

(7) 악한 농부들의 비유(21:33-46)

21:33-39 권세에 대한 질문에 계속 답하면서 예수님은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좁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간 한 집 주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실과 때가 가까워오자 주인은 그의 몫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으나 농부들이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다른 종들을 보냈으나 똑같이 다루었다. 다음번에는 그를 공경하리라는 기

대를 가지고 그의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그가 상속자임을 알고 그들은 그의 유업을 가로채려는 생각에서 그를 죽였다.

21:40-41 주님은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실과를 바칠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이다”라고 대답했다.

이 비유는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다. 하나님은 집 주인이고 이스라엘은 포도원이다(시 80:8; 사 5:1-7; 렘 2:21). 산울은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분리시키고 또 그들을 여호와를 위한 구별된 백성으로 보전한 모세 율법을 상징한다. 즈 짜는 구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맺었어야 할 과실을 상징한다. 망대는 그분의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세심한 보호를 말해주고 농부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포도원에서 교제와 거룩과 사랑의 열매를 찾고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종 선지자들을 거듭해서 보내셨다. 그러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 중 일부를 죽였다. 끝으로 하나님은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37절)고 말하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는 상속자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은밀히 생각했으며(공적으로는 부인했으나) 이에 그분의 권세에 대한 그들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답변했다. 그분의 권세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로부터 말미암았다.

이 비유에서 그들은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38절), 실제 상황에서는 “만

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고 말했다(요 11:48).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분을 거절하고 내쫓고 십자가에 못박았던 것이다.

21:42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구주의 물음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42-43절에 나타난 대로 그들 스스로를 정죄했다. 그분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셨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 돌 되신 그리스도께서 건축자들(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셨을 때 그들의 건축 계획에 그분을 위한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들은 그분을 쓸모없는 것으로 제쳐두었다. 그러나 그분은 죽으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사 하나님에 의해 으뜸 되는 위치를 부여받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건물에서 머릿돌이 되셨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빌 2:9).

21:43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서 취해져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냉엄하게 선언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제쳐졌으며 법적으로 소경되었다.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한 민족들의 심령에 경화(硬化)현상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예언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1)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벧전 2:9),

(2)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살아있을 이스라엘의 믿는 잔존자. 구속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을 것이다.

21:44 전반부에 나오는 돌은 땅위에 있고 후반부에 나오는 돌은 위에서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가리킨다.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그분에게 걸려 넘어져 산산조각났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심판을 위해 내려와 그분의 대적을 먼지처럼 흠으실 것이다.

21:45-46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들이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직접 그들을 가리켜 한 애기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 즉시 그분을 체포하고 싶었으나 여전히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무리를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못했다.

(8) 혼인잔치의 비유(22:1-14)

22:1-6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권면을 아직 마치지 않으셨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그분은 다시 한 번 은총 받은 이스라엘을 제쳐진 자들로, 이방인을 잔치의 손님으로 묘사했다. 그분은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에 비유했다. 초청은 두 단계로 이뤄졌다. 먼저 종들을 통해 개별적으로 초칭했으나 거절당하고 말았다. 두 번째 초청은 잔치가 배설

되었음을 알렸는데, 어떤 이들은 농사일로, 사업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무시해버렸으며, 어떤 이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22:7-10 임금은 심히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성읍을 불살랐다. 그는 이전의 초청명부를 삭제해버리고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초청을 선포했다. 이번에는 예식장에 빈자리가 없었다.

22:11-13 그러나 손님 가운데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예식에 참석할 자격이 없음을 지적받고 유구무언이었다. 임금은 그를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고 명했다. 13절의 사환들은 3절의 종들과 다르다.

22:14 우리 주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결론지으셨다.

이 비유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임금은 하나님이고 그의 아들은 주 예수님이시다. 혼인잔치는 천국을 특징지우는 축제의 기쁨을 적절히 묘사해 준다. 이 비유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소개하는 것은 상징에 대한 해석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든다. 여기서의 주된 사상은 이스라엘의 제켜짐이지 교회의 구별된 소명과 운명이 아니다.

초청의 첫 단계는 세례 요한과 열 두 제자들이 은혜롭게 이스라엘을 혼인잔치에 초청한 예를 묘사해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절했다. “오기를 싫어한” 그들의 태도는(3절)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으로 점차 극화되었다.

초청의 둘째 단계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유대인에 대한 복음 선포를 암시해 준다. 어떤 이들은 메시지를 무시해버렸으며 어떤 이들은 전파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그리하여 대부분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였다.

임금은 이스라엘에 대해 공분하여 “그의 군대”를 보냈다. 즉 A.D 70년에 예루살렘과 그곳의 대부분 백성을 멸하기 위해 디도와 그의 로마 군대를 보냈다. 그들은 그분이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의미에서 “그의 군대”였다.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공적으로는 그분의 소유였다.

이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제쳐졌으며 복음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부류의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고 있다(행 13:45-46; 28:28). 그러나 각 개인의 신앙이 점검을 받는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왕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고백은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 옷입은 적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고후 5:21). 사실 예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 변명할 말이 없었다. 라이리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에는 예복이 없는 손님에게는 예복을 제공하는 것이 상례였다고 한다. 이 사람은 분명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기회를 저버렸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왕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 지적받을 때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다(롬 3:19). 그의 종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값이 있는 바깥 어두움에 처하는 것이다. 슬피 운다는 것은 지옥의 고통을 암시한다. 혹자는 이를 값이 하나님에 대한 계속된 증오와 저항을 암시한다고 설명한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지옥의 불이 정화의 효력이 있다는 견해를 반증하는 셈이 된다.

14절은 예복이 없는 사람만이 아닌 비유 전체를 가리킨다. 칭함

을 받은 자는 많다. 즉 복음의 초청은 많은 사람에게 전해진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어떤 이들은 초청을 거절하고,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이들 중에도 거짓 고백자들로 드러나는 이들이 있다. 복음에 순응하는 모든 자는 택함을 입는다. 자신이 택함을 입었는지 여부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 보이는 반응이다. 제닝스(Jennings)의 표현대로, “모든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청함을 받지만 모든 사람이 초청자께서 잔치에 적합한 예복을 주실 것을 믿으려 하지는 않는다.”

(9)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22:15-22)

22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책잡기 위해 보냄을 받은 각기 다른 세 부류의 변론자와 논쟁을 벌이는 변론 장이다.

22:15-16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 의한 시도를 볼 수 있다. 이 두 부류는 원래 적대관계로서 구주에 대한 공통적인 증오심으로 인해 힘을 합친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위험한 의미를 지닌 정치적인 발언을 하도록 그리스도를 유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가이사에 대한 충성을 놓고 유대인 사이에 분파를 이룬 상황을 이용했다. 어떤 이들은 이방인 군주에게 복종하기를 완강히 거절했다. 그러나 헤롯 당원 같은 사람들은 보다 온건한 견해를 취하였다.

22:17 먼저 그들은 그분의 순결함과 진실함과 담대함을 진실되

지 않게 높이 칭찬했다. 그런 다음 준비한 질문을 던졌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만일 예수께서 “불가하다”고 대답하면 그분은 헤롯 당원들을 격분시킬 뿐 아니라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죄로 고소당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다면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붙잡고 법정으로 끌고 갔을 것이다. 만일 “가하다”고 대답하면 그것은 유대인의 강렬한 민족주의적인 정신을 거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분은 일반 백성들의 지지(이제까지 그분을 제거하려는 지도자들의 시도를 제지해온 지지)를 대부분 잃게 될 것이다.

22:18-19 예수님은 그들을 예수님 자신을 책잡으려 하는 위선자라고 꾸짖으셨다. 그런 다음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칠 때 사용하는 동전인 데나리온을 보이라고 지시하셨다. 유대인들이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과 글을 볼 때마다 그것은 그들이 이방 권세와 조세권 아래 있음을 괴롭게 상기시켰다. 이 데나리온은 그들의 로마 속박이 그들의 죄의 결과임을 상기시켜 주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여호와께 신실했다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문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22:20-21 예수님은 “이 형상과 이 글이 뭐 것이냐?”고 물으셨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주님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의문은 그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책잡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그분은 그들이

하나님께 세를 바치지 않은 점을 드러내셨다. 그들은 내키지 않았으나 가이사에게 그의 몫을 바쳤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무시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히 1:3)이 그들 앞에 서셨는데도 그들은 그분께 합당한 자리를 내드리지 못했다.

예수님의 답변은 신자가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자는 인간 정부에게 순복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할 책임이 있다. 신자는 자신의 통치자들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정부를 뒤엎으려 해서는 안 된다. 신자는 권세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또한 천국의 시민으로서 신자는 하나님께 순종할 책임이 있다. 만일 그 둘 사이에 충돌이 있다면 신자의 우선적인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어야 한다(행 5:29).

21절을 인용할 때 우리들 대부분은 가이사에 대한 부분은 강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가볍게 건너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그 과오이다!

22:22 바리새인들은 그분의 대답을 듣고 그들이 졌음을 알았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놀라고 그런 다음 자리를 떠나는 것뿐이었다.

(10) 사두개인들과 그들의 부활 논쟁(22:23-33)

22:23-24 앞서 언급했듯이 사두개인들은 당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로서 몸의 부활과 천사의 존재와 기적을 부인했다. 사실 그들은 시인하는 것보다 부인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

사두개인들의 무리가 부활사상을 터무니없어 보이게 하려는 의도에서 만든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께로 나왔다. 그들은 형사취수제에 관한 법(신 25:5)을 그분께 상기시켰다. 그 법에 따르면 만일 어떤 이스라엘인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가족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존하고 가족의 유업을 잇도록 되어 있었다.

22:25-28 그들이 지어낸 문제는 남편을 잃고 남편의 동생 중 하나와 결혼한 여자에 대한 것이었다. 그 동생도 죽어 그녀는 다음 동생과 결혼하였으며, 그렇게 하여 일곱째까지 내려갔다.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다. 이어서 부활이신 분(요 11:25)을 욕되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질문이 던져졌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 아내가 되리이까?”

22:29-30 근본적으로, 그들은 부활사상은 불가해한 문제들을 내포하기에 불합리하며, 따라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예수님은 문제는 교리가 아닌 그들의 마음에 있다고 대답하셨다. 즉 그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무지했다.

우선 그들은 성경에 대해 무지했다. 성경은 부부관계가 천국에서도 유지된다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남자는 여전히 남자로, 여자는 여전히 여자로 인식되지만 그들은 결혼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모두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무지했다. 만일 그분이 흠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수 있었다면 죽은 자들의 흠을 일으켜 다시 영광의 몸으로 빛으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22:31-32 이어서 주 예수님은 부활이 절대 필요한 것임을 보여 주기 위해 성경의 논증을 설명하셨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밝히셨다. 하나님은 저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나 저들은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기 전에 죽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몸이 무덤에 있는 그 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일컬으실 수 있겠는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할 리 없으신 분이 어떻게 이미 죽은 자들과 맺은 약속을 이루실 수 있겠는가? 그 답은 오직 하나, 부활을 통해서다.

22:33 무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놀란 것은 전혀 이상할게 없다. 우리 역시 그러하다!

(11) 큰 계명(22:34-40)

22:34-36 예수께서 그들의 대적인 사두개인들을 침묵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들의 대변인인 한 율법사가 율법에서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께 물었다.

22:37-38 주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요약해 보이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은 “힘을 다하여”란 표현을 덧붙인다(막 12:30). 이것은 인간의 첫째가는 의무가 그의 전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앞서 설명한바

있듯이 마음은 감정적인 요소를, 목숨은 의지적인 요소를, 뜻은 지성적인 요소를, 그리고 힘은 육체적인 요소를 가리킨다.

22:39-40 이어서 인간의 두 번째 책임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덧붙이셨다. 반즈(Bares)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종교의 전체를 포함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맺는 것이 모세와 선지자와 구주와 사도들의 목적이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주 자주 묵상해야 한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얼마나 자신을 돌보기 위한 활동에 몰입되고 있는지! 그러한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쏟아진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는지 상상해 보라. 그리고 그렇게 행하도록 하라. 그러한 행동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이다.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도록 허락함으로써만이 할 수 있다.

(12)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주(主)(22:41-46)

22:41-42 바리새인들이 율법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여전히 기이히 여기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도전적인 질문을 그들 앞에 던지셨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뉘 자손이냐?”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너희는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신 것이다(물론 그런 뜻이 내포되었지만). 그분은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나타날 것이

냐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물으셨다.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일 것이라고 정확하게 답변했다.

22:43-44 그러자 주 예수님은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 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돌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라고 말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셨다. 앞에 사용된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뒤에 사용된 “주”는 메시아를 가리킨다. 즉 다윗은 메시아를 가리켜 그의 주라고 표현한 것이다.

22:45 그리고 예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물으셨다. 그 답은 메시아는 다윗의 주이자 다윗의 자손(하나님이자 인간)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다윗의 주며, 인간으로서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만일 바리새인들이 가르침을 받을 만한 상태였다면, 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 즉 마리아의 혈통을 통한 다윗의 자손이자, 그분의 말씀과 행사와 삶의 방식에 의해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을 것이다.

22:46 그러나 그들은 알기를 거절했다. 그분의 지혜에 완전히 압도당하여 그들은 질문으로 그분을 책잡으려는 시도를 포기했다. 그후로 그들은 다른 방법, 즉 폭력을 사용할 것이다.

(13) 말만 하고 행치 않는 것에 대한 경계(23:1-12)

23:1-4 본장의 서두에서 구주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

과 바리새인에 대해 경계를 하신다. 이들 지도자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혹은 모세 율법을 가르쳤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가르침은 믿을 만 했으나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의 행동보다 그들의 신조가 나왔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함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요구만 하고(아마 율법의 문자에 대한 극단적인 해석일 것임) 그러한 견디기 어려운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않았다.

23:5 그들은 종교의식을 내적인 진실함에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준수했다. 그들이 사용하는 경문(經文)이 한 예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팔목과 미간에 그분의 말씀을 보이도록 표시를 하라고 명하신 것은 율법이 항상 그들 앞에 있어 그들의 행동을 인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이 영적인 명령을 문자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로 전락시켰다. 그들은 성경말씀을 가죽 주머니에 넣어 이마와 팔에 매고 다녔다. 그들은 우스꽝스럽게 큰 경문을 차고 대단히 신령한 체 행세했으나 정작 율법을 순종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율법은 또한 유대인들에게 외투 가장자리에 푸른 실로 술을 만들어 입으라고 명령했다(민 15:37-41; 신 22:12). 이 특별한 장식은 그들이 특별한 백성이며, 따라서 열방과 분리되어 행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영적인 교훈은 간과하고 옷술을 크게 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해했다.

23:6-8 그들은 연회와 회당에서 상석을 차지하여 그들의 중요성을 과시했다.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 받음으로 그들의 자아를 키웠으며 특히 랍비(“나의 위대한 분” 혹은 “선생”)라 불리우기를 좋아했다.

23:9-10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할 구별된 칭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계하셨다. 우리는 구별된 칭호인 랍비라 칭함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이는 선생은 한분,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아버지라 칭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웨스톤(Weston)은 통찰력 있게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관계에 대한 선언이다. 그리스도인을 이루는 세 요소는 그의 인격과 그가 믿는 것과 그의 행동, 즉 교리와 경험과 실천이다. 인간은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생명과 가르침과 인도란 세 요소를 필요로 한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대로 말이다. 어떤 인간도 아버지로 인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거나 지탱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인간도 무오한 선생으로 칭하지 말라. 어떤 인간에게도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부여하지 말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관계는 다른 어떤 사람의 관계보다도 친밀하다.”⁴²⁾

구주의 말씀의 분명한 뜻은, 천국에서는 모든 신자가 서로를 구별하는 아무 특별한 지위의 여지가 없는 동등한 형제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발견되는 성스런 호칭들

42) (23:9-10) H. G. Weston, *Matthew, the Genesis of the New Testament*, p. 110.

을 보라. 아무 흠도 없어 보이는 “박사”도 라틴어로 선생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고는 분명히 자연적이고 직업적인 혹은 학적인 관계가 아닌 영적인 관계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그것은 어린 아이가 부모를 “아버지”로 부르거나 환자가 의사를 “박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 지상적인 관계에 관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하겠다(롬 13:7).

23:11-12 진정한 위대함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된다. 사실에서 다시 한 번 천국의 혁명적인 성격이 나타난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다. 진정한 위대함은 섬기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들은 낮아질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참 제자들은 때가 되면 높아질 것이다.

(14)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23:13-36)

주 예수님은 당대의 오만한 종교적인 위선자들에게 여덟 가지 화를 선포하신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들의 운명에 대한 슬픔을 표현한 것으로 “오, 가엾은 자들이여!”란 뜻으로 볼 수 있다.

23:13 첫 번째 화는 그들의 완고함과 방해에 대해 선포된다. 그들은 스스로도 왕국에 들어가기를 거절할뿐더러 다른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집요하게 훼방했다. 이상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종종 은혜의 복음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반대자가 된다. 그들은 구원의

복된 소식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부드럽게 받아들인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며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원치 않는다.

23:14 두 번째 화는⁴³⁾ 과부의 가산을 빼앗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을 엄히 꾸짖는다. 일부 현대 이단종파들은 늙은 과부들과 때로는 분별없는 신도들의 재산을 교회에 바치게 하는데 있어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다. 경건을 가장하는 그러한 위선자들은 엄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23:15 그들에 대한 세 번째 책망은 오도된 열심이다. 그들은 한 명의 회심자를 얻으려고 상상할 수 없는 먼 길을 다니다가 하나를 얻으면 그를 그들보다 배나 악하게 만들었다.

오늘날 이단종파들의 열심도 이에 비유할 수 있다. 그들의 경우 한 그룹이 한 명의 신도를 얻기 위해 기꺼이 700가구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 최종 결과는 악(惡)이다. 어떤 이가 말한 대로 “가장 멋진 회심자는 종종 가장 잘못 인도된 자가 된다.”

23:16-21 네 번째로, 주님은 그들의 교묘한 꾀변을 꾸짖으셨다. 그들은 맹세의 대가를 회피하기 위해 그릇된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만일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을 의무가 없으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그들은 가르쳤다. 또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구속력이 있으나 빈 제단으로 맹세하면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금을 하나님보다 더 중시

43) (23:14) 비평 본문(NU)은 두번째 화를 생략한다.

했으며(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므로), 제단의 예물(모종의 부[富])을 제단 자체보다 중시했다. 그들은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들은 주는 것(제단은 주는 장소이다)보다 받는 것(예물)에 더 관심이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소경된 인도자로 부르면서 그들의 허황된 궤변을 폭로하셨다. 성전의 금은 하나님의 거처와 연관이 있을 때만 특별한 가치를 지녔다. 그 위의 예물에 가치를 부여한 것은 제단이었다. 금이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눈이 먼 것이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만 가치가 있다. 육신적인 동기를 위해 바쳐진 금은 무가치하다. 주님께 혹은 주님의 이름으로 바쳐진 것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

요컨대, 이들 바리새인들이 무엇으로 맹세하든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었고 그들은 맹세를 실행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인간은 특별한 사유로 자신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맹세는 구속력이 있으며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의무를 회피하려고 편법에 호소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23:22-23 다섯 번째 화는 실재가 결여된 의식주의에 대한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얻은 일체의 사소한 식물의 십일조를 여호와께 드리는데 철두철미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같이 세세한 부분에까지 순종을 적용하는 모습은 책망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공의와 인자와 신뢰를 베푸는 데는 전혀 세심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신랄히 꾸짖으셨다. 예수님은 탁월한 비유를 사용하여 그들이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약대는 삼킨다고 묘사했다. 종종 달콤한 포도주 잔에 빠지는 조그만 벌레는 걸러내면

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부정한 짐승은 삼킨다니 얼마나 우스꽝스런 일인가! 바리새인들은 세세한 데는 관심이 지대했으나 위선, 부정, 잔인, 탐욕 등과 같은 엄청난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이 멀었다. 그들은 죄의 경중을 헤아리는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다.

23:25-26 여섯 번째 화는 외형주의에 관한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성과 도덕성의 겉모양을 유지하는 데는 유의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⁴⁴⁾ 그들은 먼저 잔과 대접의 안을 깨끗이 해야 했다. 다시 말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정하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만 그들의 외적인 행동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우리의 인격과 외양은 차이가 있다. 우리는 외양(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자신의 이미지)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강조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속사람의 진실을 원하신다(시 51:6).

23:27-28 일곱 번째 화도 외형주의에 대한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여섯째 화는 탐욕을 숨긴 것을 꾸짖는 반면 일곱째 화는 외식과 불법을 숨긴 것을 꾸짖는다는 것이다.

무덤에 회칠을 한 것은 유대 백성이 무심결에 그것을 만져 의식적으로 불결해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안에는 부패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들 종교 지도자들과 접촉하면 거룩하게 될 것 같았지만 실은 그들의 마음이 외식과 불

44) (23:25,26) 다수 본문은 “자기 탐닉”(아크라시아)을 “불의”(아디키아)로 옮기고 있다.

법으로 가득했으므로 오히려 그것은 더럽혀지는 경험이었다.

23:29-30 마지막 화는 외적인 존경, 내적인 살해로 칭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거나 보수하고 비석을 만듬으로써 저들을 존경하는 체했다. 그리고 저들을 기념하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했다.

23:31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라도”고 지적하셨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증거했는가? 앞절로 보아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그들의 조상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들은 그들이 육체적인 자손인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손”이란 말을 같은 특징을 지닌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장식하는 중에 그분을 죽일 것을 모의하고 있음을 아셨다. 둘째로, 죽은 선지자들에게 그러한 경의를 보임으로써 그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선지자는 죽은 자들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자손이었다.

23:32 그런 다음 우리 주님은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고 덧붙이셨다.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임으로써 살해의 잔을 이미 채웠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곧 주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죽이고 그로써 그들의 조상이 시작한 일의 끔찍한 절정을 가져

을 것이다.

23:33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는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신다. 육신을 입으신 사랑께서 그러한 무서운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렇다. 진정한 사랑은 또한 의롭고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사랑 외에 아무 감정도 발할 수 없는 무해한 개 혀자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사랑은 견고해질 수 있으며 항상 정의로워야 한다.

이러한 정죄의 말이 술주정뱅이나 버림받은 자들에게가 아닌 종교 지도자들에게 퍼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 일부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공연한 원수와 힘을 합치고 있는 이 에큐메니칼(교회연합을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한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라는 말을 기억하는 것이 합당하다(대하 19:2).

23:34-35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만을 예견하셨을 뿐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이 보내실 사자들(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죽일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순교를 피한 자들은 회당에서 채찍질당하고 이 동리에서 저 동리로 뺨박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누적된 순교 역사의 죄 위에 그들의 범죄를 더하게 될 것이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라(히브리 원본의 순서에 의하면 구약의 마지막 책인 역대하 24장 20-21절에 그 살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그

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 나오는 사가랴 혹은 스가라는 구약의 기자가 아니다).

23:36 지난 모든 범죄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신 세대 혹은 민족에게 돌아갈 것인데, 이는 지난 모든 무죄한 피의 흘림이 합쳐져 죄 없으신 구주의 죽음으로 절정에 이르게 된 듯했다. 까닭 없이 그들의 메시아를 증오하고 그분을 죄인의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에게 무서운 형벌이 퍼부어질 것이다.

(15)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심(23:37-39)

23:37 다른 어떤 장보다 주 예수님의 화를 많이 담고 있는 본장이 그분의 눈물로 끝난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는 반복된 부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돌로 쳤으나 주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였으며, 종종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그 자녀를 보호와 사랑의 손길로 자기에게로 모으고자 하셨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원치 않았다.

23:38 눈물을 거두시면서 주 예수님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집은 우선적으로 성전을 가리키지만 예루살렘 성읍과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포함한다. 그분의 죽음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 그분을 보지 못할(부활 후에 그분은 신자들에게만 보이셨다) 그분의 재림 사이에는 간격이 있을 것이다.

23:39 39절은 이스라엘의 믿는 잔존자가 그분을 그들의 메시아-왕으로 영접할 재림을 바라본다. 이러한 영접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말씀 속에 암시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질 것이란 암시는 일절 없다. 그분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그리고 은유를 통해 그 거민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루살렘이 그분의 죽음 후에 그분을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이 찢른 자를 보고 독자를 위해 애곡함같이 애곡할 그 때이다(슥 12:10). 독자를 위해 애곡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런 경험을 의미한다.

13. 감람산 강화(24-25)

(1)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심(24:1-2)

24:1-2 이 강화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이동(移動)은 그분이 방금 하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23:38)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성전에서 떠나는 영광에 대한 에스겔의 묘사를 상기시킨다(겔 9:3; 10:4; 11:23).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성전의 건축미를 감상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영원한 것보다는 일시적인 것에 사로잡혔으며, 실체보다는 그림자에 관심이 있었다. 예수님은 그 건물은 완전히 파괴되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디도 장군이 성전을 구하려 했으나 그의 군사들이 불을 놓아 그리스도의 예언을 성취시켰다. 불이 금형 틀을 녹이자 녹은 금물이 돌 사이로 흘러들어갔다. 군사들은 그것을 취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돌을 하나하나 치워야 했다. 이 심판은 A.D 70년 디도 지휘하의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집행되었다.

(2) 대환란의 전반부(24:3-14)

24:3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세 가지 질문을 했다.

(1)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즉 언제 성전이 파괴될 것인가?

(2) 그분의 임하심의 징조는 어떠한가? 즉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그분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이 있게 되는가?

(3) 세상 끝의 징조는 어떠한가? 즉 그분의 영광스런 통치 직전에 무엇이 세상 끝을 알려주겠는가?(둘째 질문과 셋째 질문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우리는 유대인 제자들의 생각이 영광스런 메시아의 지상시대 주위를 맴돌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강림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혹 있었을지 모르나 그분의 강림의 이 국면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바가 없었다. 그들이 고대하는 바는 그분의 대적을 멸하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그분이 권능과 영광중에 강림하시는 사건이었다.

아울러 우리는 그들이 “세상”(world) 끝이 아닌 “시대”(age, *아이온*) 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우리말 성경에는 “세상 끝”으로 되어 있음-역주).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은 직접적으로 응답되지 않았다. 그보다 구주께서는 A.D 70년의 예루살렘 포위 사건(눅 21:20-24)을 말일에 일어날 유사한 포위 사건과 합치시키는 듯 보인다. 예언을 연구해 보면 주님께서 거의 알아차릴 수 없게, 초기의, 부분적인 성취에서 이후의, 최종적인 성취로 나아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둘째와 셋째 질문은 24장 4-44절에 응답되어 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 앞에 올 7년 대환란을 묘사한다. 전 3년 반은

4-14절에 묘사되어 있다. 대환란 및 야곱의 환란의 때(렘 30:7)로 알려진 후 3년 반은 지상에 있는 자들에게 유례없는 고통의 때가 될 것이다.

환란의 전반부를 특징지우는 여러 조건들은 인류 역사를 통해 어느 정도 상존해 왔으나 특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극히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교회에 포함된 자들은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되었으나(요 16:33)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세상에 퍼부어질 그 환란과 판이하게 다르다.

우리가 믿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시작되기 전에(살전 1:10; 5:9; 살후 2:1-12; 계 3:10) 세상에서 취함을 입을 것이다(살전 4:13-18).

24:4-5 환란 전반부 동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무리를 미혹할 것이다. 오늘날 나타난 많은 이단들은 그에 대한 전조일지는 모르나 그 성취는 아니다. 그러한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은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유대인들일 것이다.

24:6-7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현재 성취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미래 상황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상 다음 사건은 교회의 휴거이다(요 14:1-6; 고전 15:51-57). 그 이전에는 성취되어야 할 예언이 일절 없다. 교회가 사라진 후에 하나님의 예언 시계가 작동되어 이러한 상황들이 신속히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도 세계 지도자들은 인구폭발로 인한 기

근의 위협에 조바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이 초래한 식량 부족에 의해 심화될 것이다.

지진은 현재 발생 중인 것들뿐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것들까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짐이지 우리 구주의 말씀의 실제 성취가 아니다.

24:8 8절은 이 기간을 재난의 시작, 곧 이스라엘의 메시아-왕의 지도를 받는 새로운 질서를 낳을 진통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24:9-10 신실한 신자들은 환란 동안 큰 개인적인 시험을 당할 것이다. 열방이 그분께 충성된 모든 자들을 극렬히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종교 및 일반 법정에서 심문을 당할 뿐 아니라(막 13:9) 많은 이들이 믿음을 부인하기를 거절하는 까닭에 순교를 당할 것이다. 그러한 시험은 기독교를 증거해온 모든 시대 동안 발생해 왔으나 여기서는 특히 이 환란 기간에 특별한 사역을 감당할 14만 4천의 유대인 신자들을 언급하는 듯 보인다.

많은 이들이 고난과 죽음보다는 배교를 택할 것이다. 가족들 간에도 서로 고발하고 잔인한 핍박자의 손에 친지들을 넘겨줄 것이다.

24:11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들을 5절의 거짓 메시아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칭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들의 예언이 늘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들의 가르침이 항상 사람들을 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은 환란이 우선적으로 성격상 유대적이라는 우리의 진술에 확증을 더해 준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가 있는 반면, 교회에 서는 위험이 거짓 교사들에게서 온다(벧후 2:1).

24:12 죄악이 관영하므로 인간의 애정이 점점 희미해지고 무정한 행동이 만연할 것이다.

24:13 이것은 분명히, 그 때에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항상 성경에 제시된다. 또한 본문은 모든 견디는 자들이 육체적인 해를 면할 것이라는 뜻일 리도 없다. 우리는 이미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당한다는 사실을 살펴 보았다(9절). 이것은 배교함 없이 핍박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진술이다. 배교가 도피나 안전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치 못할 것이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쇠약해질 수 있으나 항상 지속성이란 특질을 소유한다.

24:14 이 기간 동안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될 것이다. 4:23 주해에서 설명했듯이 왕국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실 것이며 환란 동안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분의 천년통치의 축

복을 누릴 것이라는 좋은 소식이다.

14절은, 아직 많은 부족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언제라도 재림하실 리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종종 그릇 인 용된다. 이 문제는 이것이 그분의 성도들을 위한 강림이 아니라 성도들을 동반한 강림을 가리킨다는 것을 발견할 때 해결된다. 아울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을 가리킨다 (4:23 주해 참조).

3-14절에 열거된 사건들과 계시록 6장 1-1절1의 사건들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점이 있다.

흰 말을 탄 자- 거짓 메시아.

붉은 말을 탄 자- 전쟁.

검은 말을 탄 자- 기근.

청황색 말을 탄 자- 온역 혹은 죽음.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은 순교자들이다. 계시록 6장 12-17에 묘사된 사건들은 마태복음 24장 19-31절의 사건들과 연결된다.

(3) 큰 환란(24:15-28)

24:15 이 시점에서 우리는 환란의 중간에 이르렀다. 이것은 15절을 다니엘 9장 27절과 비교해 봄으로 알 수 있다. 다니엘은, 70이레 중간에, 즉 3년 반 끝에 거룩한 곳, 즉 예루살렘 성전에 한 우상이 세워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모든 사람이 이 가증한 우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거절하는 자들은 죽음에 처해질 것이다(계 13: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우상의 설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모든 자들에게 큰 환란이 시작되었다는 표증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예언을 읽는 자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목하라.

24:16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으면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하는 그들의 처신이 쉽게 발견될 것이다.

24:17-19 긴박한 대처가 필요하다. 만일 어떤 이가 지붕 위에 있으면 그는 그의 모든 소유를 뒤에 남겨둬야 한다. 소유물을 취하느라 시간을 소요하는 것은 곧 목숨을 버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둔 곳이 어디든 간에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아이 밴 여자와 젖먹이는 어미들은 신속히 피신할 수 없으므로 한결 위험할 것이다.

24:20 신자들은 이동하기 더 어려운 겨울이나, 율법에 의해 이동거리가 제한되는 안식일에(출 16:29)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안식일의 여행거리는 그들이 위험지역을 벗어나는데 충분치 않을 것이다.

24:21 이것은 탄압과 학살, 추방, 살륙, 멸종 등 모든 기독교 박해사로부터 이 기간을 분리시킨다. 이 예언은 이전의 어떤 박해사건에 의해 성취되었을 리가 없는데, 이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 마감될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24:22 이 환란은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할 것이다. 이것은 남은 3년 반으로 그토록 자주 언급된 대환란 기간이 감해진다는 뜻일 리가 없다.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부분 싸움과 살육이 발생하는 낮 시간을 기적적으로 감하신다는 뜻일 것이다. 택한 자들(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밤이 일찍 오게 하실 것이다.

24:23-26 23-24절은 거짓 메시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새로운 경고를 담는다. 그 위기상황에서 메시아가 어떤 은밀한 곳에 계시다는 소식이 퍼질 것이다. 그러한 소식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확고고대하는 자들을 미혹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역적이고, 은밀한 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리는 소문을 믿지 말라고 모든 제자들에게 경계하신다. 기적을 행한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 자들은 아니다. 기적은 그 근원이 사단일 수도 있다. 불법의 사람은 기적을 행하도록 사단적인 권세를 부여받을 것이다 (살후 2:9-10).

24:27 그리스도의 출현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것은 갑작스럽고, 공개적이고, 우주적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것은 번개처럼 즉각적이고, 또 모든 이들의 눈에 분명히 보일 것이다.

24:28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부패도 그 맹렬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주검은 배도한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동맹한 온 세상 조직을 묘사한다. 독수리는 메시아의 출현과

더불어 쏟아 부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4) 두 번째 출현(24:29-31)

24:29 대환란 끝에 하늘에 무서운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질 것이며, 달도 해의 반사체인 까닭에 빛을 잃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며 행성들이 그 궤도에서 벗어날 것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그러한 엄청난 우주의 격변은 지구의 기온과 조수와 계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천체가 지구 가까이에 이르러 지축의 경사에 변화를 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벨리코프스키(I. Velikovsky)의 다음과 같은 묘사에서 그 실상을 희미하게나마 연상해볼 수 있다.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나 지구를 뒤흔들 것이다. 공기와 물이 관성에 의해 계속 움직일 것이며 그 결과 해일이 육지를 뒤엎고 바다가 대륙을 휩쓸어 자갈과 모래와 해저생물들을 땅에 토해낼 것이다. 열기가 생성 심화되고, 암반이 녹고, 화산이 폭발하고, 갈라진 땅 사이로 용암이 흘러들어 광활한 지역을 덮을 것이다. 평지에서 산이 솟아올라 다른 산들을 타고 올라가 단층과 융기를 일으킨다. 호수는 기울고 비워질 것이며 강은 그 바닥이 바뀔 것이다. 광대한 육지가 그 모든 거민들과 함께 바다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것이다. 숲이 불탈 것이고 해일과 거친 풍랑이 그 숲을 뿌리 채 뽑아 던져 거대한 짚더미를 이루게 할 것이다. 바다는 물이 사라져 사막으로 변할 것이다.”⁴⁵⁾

45) (24:29) I. Velikovsky, *Earth in Upheaval*, p. 136.

24: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징조가 무엇인지는 아무 언급이 없다. 그분의 초림은 하늘의 징조(별)를 동반했다. 아마 한 기이한 별이 또 나타나 그분의 재림을 알릴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인자 자신이 그 징조라고 믿는다. 그 뜻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나타날 때 그 징조는 모든 이에게 분명할 것이다.

분명 그분을 거절한 까닭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그 나라⁴⁶⁾의 족속들(이스라엘 열두 지파)이 통곡할 것이다.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슥 12:10).

그 때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인가! 침 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이 생명과 영광의 주로 증명되실 것이다.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께서 여호와 자신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희생당한 양께서 싸움에 능한 사자로 임하실 것이다. 멸시받은 나사렛 목수께서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이다. 하늘 구름이 그분의 수레가 될 것이다. 그분은 왕적인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인바 이는 피조물이 수천 년간 신음하며 고대하던 순간이다.

24:31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분은 천사들을 온 땅에 보내어 그분의 택한 백성인 믿는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땅에 모으실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맞이하고 그분의 영광스런 통치를 누리기 위해 온 땅에서 모여들 것이다.

46) (24:30) 동일한 헬라어 단어(“계”[*ge*], 영어의 접두사 “geo”와 비교해 보라)는 “땅”(land)과 “세상”(earth) 모두를 의미한다.

(5) 무화과나무의 비유(24:32-35)

24:32 다시금 우리 주님은 자연에서 영적인 교훈을 끌어내신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푸르고 연해지면 사람들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앞서 우리는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21:18-22).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아무 정부도, 나라도, 성전도, 제사직도, 아무 민족적인 삶의 표징도 없이 깊은 동면(冬眠)에 빠져있었고, 백성들은 온 세상에 흩어졌다.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와 자기 정부와 자기 화폐와 자기 우표를 가진 한 국가가 되었다. 영적으로 말해서 그 민족은 여전히 황량하고 냉랭하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전혀 없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그 가지가 푸르고 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24:33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출현은 환란의 시작이 임박했음은 물론 주님 자신이 가까이, 곧 “문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한 강림이 그토록 임박했다면 교회의 휴거는 얼마나 더욱 임박했겠는가! 만일 우리가 그분의 영광중의 출현에 선행되어야 할 사건들의 그림자를 이미 보고 있다면, 그분의 “파루시아”, 혹은 강림하심의 첫 번째 국면(살전 4:13-18)은 얼마나 더욱 가까웠겠는가!

24:34 무화과나무에 대한 언급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리라”고 덧붙이셨다. “이 세대”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시던

때 살던 사람들을 의미할리 없다. 그들은 모두 사라졌으나 여전히 24장의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F. W. 그랜트와 그밖에 여러 사람들은 “그 일들의 시작을 보는 바로 그 세대가 그 끝을 볼 것이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⁴⁷⁾ 이스라엘의 한 민족(국가)으로서의 발흥을 보는(혹은 환란의 시작을 보는) 그 사람들이 주 예수님이 다스리기 위해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그들은 이해한다.

또 다른 설명은 “세대”를 인종(race)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같은 종족, 혈족, 혹은 가족을 의미 마 12:45; 23:35-36)를 적절히 옮긴 것이다. 그럴 경우 예수님은 유대 인종이 보존되어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예언하신 셈이 된다. 극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보존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기적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에는 한 가지 견해를 추가할 수 있다고 본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대”는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집요하게 거절한 인종이었다. 필자의 생각에는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그분의 재림시까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상태 중에 계속 머물 것을 예언하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때 모든 반역이 분쇄될 것이며, 그분의 통치에 기꺼이 순복하는 자들만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24:35 그분의 예언의 무오한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은 천

47) (24:34) F. W. Grant, “Matthew,” *Numerical Bible, The Gospels*, p. 230.

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이셨다. 하늘이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고후 12:2-4)이 아니라 별과 대기가 존재하는 푸른 창공을 가리킨 말씀이다. 하늘과 땅의 해체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 3장 10-13절에 묘사되어 있으며, 계시록 20장 11절에 재차 언급되어 있다.

(6)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24:36-44)

24:36 그분의 재림의 정확한 날과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
되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⁴⁸⁾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우리말 성경에는
“아들도 모르고”가 첨가되어 있다-역주). 이것은 날짜를 정하려 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는 자들을 믿고자 하는 유혹에 대해 경고를 준다. 천사들
이 모른다는데 대해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은 천사들은 제한된 지식
을 지닌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사는 자들은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는 반
면, 예언에 친숙한 자들은 그 해는 알 수 있을 듯하다. 예를 들어
그들은 성전에 우상이 세워진 후 약 3년 반이 지나서 그 날이 이를
것을 알 것이다(단 9:27; 7:25; 12:7,11; 계 11:2,3; 12:14; 13:5).

24:37-39 그러나 그 날에 대부분 사람들은 노아의 때같이 무관
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는 매우 사악했으나 여기에 강조된 특
징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갔
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인 양 일상생활을 만끽했
다. 홍수가 임한다는 경고를 듣고도 그들은 아무 염려 없다는 듯 살
아갔다. 홍수가 임하자 유일한 피난처 밖에 있던 그들은 속수무책

48) (4:36) NU본문은 “아들도 모르고”란 문구를 추가시켰다.

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상황도 그러할 것이다. 안전한 방주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24:40-41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하나는 심판을 받아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하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매를 갈다가 순간적으로 분리되어 하나는 심판의 홍수에 휘말릴 것이며 하나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남겨질 것이다. (40-41절은, 그분이 모든 신자들은 하늘로 데려가고 모든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도록 뒤에 남겨두시는 그리스도의 강림의 첫 번째 국면인 휴거에 대한 말씀으로 종종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경고로 사용된다. 그것은 비록 본문에 대한 적절한 “적용”은 될 수 있겠으나 문맥상 본문의 “해석”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한 강림과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24:42-44 그 날과 그 시가 불확실하므로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집에 도적이 들어온다는 것을 안다면 비록 그 정확한 시간은 몰라도 그 일을 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인자는 사람들이 가장 예기치 못할 때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들은 마땅히 바짝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7)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24:45-51)

24:45-47 본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 예수님은, 종은 주인이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취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참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모든 종은 때를 따라 집 사람들에게 먹일 것

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참 종은 아니다.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자로 발견되는 자이다. 그러한 사람은 왕국에서 큰 책임을 맡는 영예를 얻게 된다.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자로 삼을 것이다.

24:48-51 악한 종은 주인이 곧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임의로 행동하는 이름뿐인 신자를 말해준다. 그는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러한 행동은 그가 왕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드러내 준다. 왕이 임하여 그를 징벌하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할 것이니 거기서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 비유는 메시아-왕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지적으로 지상에 재림하시는 사건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 원리는 휴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적의와 불경건한 자들과의 친밀한 사귀를 보임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축복이 아닌 심판을 의미할 것이다.

(8) 열 처녀의 비유(25:1-13)

25:1-5 “그 때에”란 첫 단어는 24장을 가리키며, 이 비유를 왕의 지상재림 이전 및 그 동안의 시간에 위치시킨다. 예수님은 그 때의 천국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유하신다. 그 중 다섯은 지혜로워서 등에 넣을 기름을 가졌으나 나머지 다섯은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기다리는 동안 모두 잠들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환란 때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을 말해 준다. 등은 신앙고백을 말해주며, 기름은 일반적으로 성령의 상징물로 알려져 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고백은 하나 회심한 적이 없는, 따라서 성령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말해준다. 신랑은 그리스도, 즉 그 왕이시다. 그분의 지체함은 그분의 두 차례 강림 사이의 기간을 나타내 준다. 열 처녀 모두 잠들었다는 사실은 외형상으로는 그들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5:6 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앞장에서 우리는 그분의 도래가 두려운 징조들을 통해 알려진다는 것을 알았다.

25:7-9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했다. 즉 모두 준비를 갖추고 나타나기를 원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하여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부탁했으나 결국 그것을 사러 나가야 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이 거절한 것은 이기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아무도 성령을 다른 이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성령은 돈 주고 살 수 없다. 하지만 성경은 돈 없이 값 없이 구원을 사라는 문학적인 수사법을 사용한다.

25:10-12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나간 사이 신랑이 왔다. 수리아역과 라틴역 성경은 신랑이 “신부와 함께” 왔다고 말한다. 이것은 예언상의 그림과 완전히 일치한다. 주 예수님은 혼인예식을 치른 후 신부인 교회와 함께 재림하실 것이다(살전 3:13). (그 혼인예식

은 휴거 후에 하늘에서[엡 5:27] 거행된다.) 환란 성도 중 신실한 잔존자는 그분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의 지상왕국의 기쁨과 축복을 가리키는 적절한 표현이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이제 아무라도 왕국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자 신랑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거절했는데 이는 그들이 거듭난 적이 없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25:13 그분의 오심의 날과 시를 알 수 없으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신자들은 주님께서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우리의 등은 준비되고 기름이 채워졌는가?

(9) 달란트의 비유(25:14-30)

25:14-18 이 비유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참 종과 거짓 종이 있을 것을 가르쳐 준다. 이 이야기는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의 종들을 모으고 그들의 능력대로 다양한 액수의 돈을 맡긴 어떤 사람에게 관한 것이다. 하나는 다섯 달란트를, 하나는 두 달란트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한 달란트를 받았다. 그들은 그 돈을 사용하여 주인에게 수입을 건네주어야 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벌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두 달란트를 벌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다.

그리스도께서 그 주인이시며 먼 여행은 그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킨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세 종들은 부

재중인 주님의 관심사를 나타낼 책임이 있는, 환란 동안에 사는 이스라엘인을 가리킨다. 그들은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책임을 부여받는다.

25:19-23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회계를 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해준다. 처음 두 종은 똑같은 칭찬을 들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 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그들의 봉사에 대한 시험은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였다. 각자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일백 퍼센트의 이윤을 남겼다. 이들은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상으로 받을 참 신자들을 상징한다.

25:24-25 세 번째 종은 주인에 대한 모욕과 변명뿐이었다. 그는 주인을 가리켜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 않은데서 모으는 엄하고 불합리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려움에 위축되어 그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다고 자신을 변명했다. 이 종은 의문의 여지없이 불신자였다. 참된 종이려면 주인에 대해 그러한 생각을 품지 않을 것이다.

25:26-27 그의 주인이 그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꾸짖었다. 주인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왜 그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적립해두었다가 이자를 얻게 하지 않았는가? 26절에서 주인은 자기에 대한 지적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일 그것이 네가 나에 대해 가진 모든 생각이라면 그 달란

트를 더욱 더 잘 사용했어야 하지 않는가? 네 말이 너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하는구나.”

25:28-29 만일 이 사람이 그의 달란트로 한 달란트를 벌었다면 그는 다른 이들과 같은 칭찬을 받았을 것이다. 그 대신 그가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준 것이라곤 땅에 구덩이를 판 것이 전부였다! 그의 달란트는 빼앗기고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의 한 가지 확고한 원칙이 선언된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 일에 필요한 수단이 주어진다. 그들은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그분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반면에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잃게 된다. 발육부진은 게으름으로 인한 대가이다.

27절에서 “취리하는 자들”을 언급한 것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이 경우에 취리하는 자들은 선교사나 성경협회, 기독교 출판기관, 방송선교 등이 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돈을 그냥 놔둔다는 것은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피어슨은 다음과 같은 유익한 조언을 하고 있다.

“천국을 위한 담대하고 독자적인 봉사에 적합하지 않은 겁약한 사람들은 그들의 무능을, 그들의 재능과 소유를 주인과 그분의 교회에 유용하게 사용할 다른 이들의 능력과 총명과 결부지어 생각할 수 있다. …청지기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돈이나 재능을 소유할 수 있으나 그러나 믿음과 안목과 힘과 지혜가 부족하다. 주님의

“취리하는 자들”이 그에게 주인을 위해 이득을 얻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교회가 존재하는 부분적인 이유는 한 지체의 능력이 다른 지체의 연약을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모두가 협력함으로 가장 작고 미약한 지체도 힘을 얻도록 하는데 있다.”⁴⁹⁾

25:30 이 무익한 종은 밖으로 내어쫓겼다. 왕국에서 축출된 것이다. 그는 악인들이 받는 고통스런 운명에 처했다. 그가 정죄를 당한 것은 달란트를 투자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선행이 결여된 것은 그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주었다.

(10) 민족들에 대한 왕의 심판(25:31-46)

25:31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및 백보좌 심판과 구별되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묘사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신자들만을 위한 회계와 보상의 자리로서 휴거 이후에 행해진다(롬 14:10; 고전 3:11-15; 고후 5:9-10). 백보좌 심판은 천년왕국 후에 영원 상태에서 행해진다. 이때에 죽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계 20:11~15).

민족들 혹은 이방인들(원어상 둘 다 의미할 수 있다)의 심판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고 31절에 분명히 언급하듯이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후에 지상에서 행해진다. 만일 이 구절을 요엘 3장과 동일시하는分別이 옳다면 그 장소는 예루살렘성 밖 여호사밧 골짜기가 될 것이다(율

49) (25:28,29) *Our Lord's Teaching About Money* (tract), pp. 3,4.

3:2). 민족들은 환란 동안 그리스도의 유대인 형제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골 3:1-2,12-14; 마 25:31-46).

25:32 여기에는 세 부류(양, 염소, 그리스도의 형제들)가 언급되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앞의 두 부류는 그리스도께서 심판 때에 그들을 대하여 앉아 계시는 자들로서 환란 동안 살아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세 번째 부류는 극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환란 동안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유대인 형제들이다.

25:33-40 왕께서는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신다. 그리고 양을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 된 그분의 영광스런 나라에 들어가도록 초청하신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분이 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의로운 양들은 언제 자신들이 임금께 그러한 친절을 베풀었는지 알 수 없다고 고백한다. 그들의 세대에 왕은 지상에 계시지도 않았었다. 이에 왕은 그분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그분에게 한 것이라고 설명하신다. 그분의 제자 중 하나에게 행한 모든 일이 그분 자신에게 행한 일로 보상되는 것이다.

25:41-45 불의한 염소들은 야곱의 환란이란 두려운 때에 그분을 돌보지 않은 까닭에 그분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명을 받았다. 그분을 뵈는 적조차 없다

고 그들이 변명하자 그분은 그분의 제자를 소홀히 대한 것이 곧 그분 자신을 소홀히 대한 것이라고 상기시키셨다.

25:46 그와 같이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양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로 이 구절은 민족들이 한꺼번에 구원받거나 잃어진다고 가르치는 듯 보인다. 둘째로 문맥으로 볼 때 양들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염소들은 선을 행하지 못함으로 정죄를 당한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민족들로 다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구약의 역사는 그들의 죄 때문에 징벌을 당한 민족들의 예로 가득하다(사 10:12-19; 47:5-15; 겔 25:6,7; 암 1:3,6,9,11, 13; 2:1,4,6; 읍 10절; 슥 14:1-5). 민족들이 하나님의 보응을 당하기 위해 존속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 이것은 민족 중 모든 개개인이 그러한 결과에 포함될 것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들이 개인적인 토대에서뿐 아니라 민족적인 토대에서도 적용될 것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민족들”로 옮겨진 “에트네”란 단어는 “이방인들”로 옮겨져도 여전히 적절하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이 개개의 이방인들의 심판을 묘사한다고 믿는다. 민족들이든 개개인이든 어떻게 그러한 엄청난 무리가 팔레스타인에서 주님 앞에 모아질 수 있느냐는 문제가 존재한다. 아마 민족들 혹은 개개인의 무리의 대표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모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본절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는데 인용될 수 없다. 성경의 한결같은 증거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다(엡 2:8-9).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믿음은 선행을 낳는다는 점도 똑같이 강조해서 가르친다. 만일 아무 선행이 없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유대인 잔존자들을 선대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친절이 주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반영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이밖에 세 가지 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 왕국은 창세전부터 의인을 위해 예비되었으며(34절)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되었다(41절)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이 축복을 받는 것이다. 지옥은 본래 인간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생명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불가불 죽음을 택해야 한다.

둘째는 주 예수님이 영영한 불(41절)과 영벌(46절) 및 영생(46절)을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영생을 가르치신 그분께서 영벌을 가르치셨다. “영원한”이란 동일한 낱말이 그 둘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둘 중 어느 하나만 받아들이는 것은 모순된 처사이다. 만일 “영원한”으로 옮겨진 단어가 문자 그대로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라면 헬라어로서는 그 뜻을 전할 다른 단어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영원성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까닭에(딤후전 1:17) 문자 그대로 영원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끝으로 이방인들의 심판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킨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곧 그분께 영향을 준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절을 베풀으로써 그분께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14.

왕의 수난과 죽음(26-27장)

(1) 예수님에 대한 살해 음모(26:1-5)

26:1-2 이 복음서에서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다(16:21; 17:23; 20:18). 그분의 선언은 유월절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힘 사이에 시간상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 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이 해에 유월절은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유월절 어린양께서 마침내 도래하셨으며 이제 곧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26:3-5 그분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衙門)에 모여 그분을 죽일 전략을 모의했다. 그들은 비밀히 그분을 체포하여 죽이기를 원했으나 명절 동안에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이는 백성들이 그분의 처형에 거센 반발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죽이려는 모의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들이 앞장섰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다. 그들은 마땅히 그분을 인정하고 왕위에 세우는데 앞장서야 했으나 오히려 그분의 대적들의 선봉으로 자처했다.

(2) 베다니에서 기름부음을 받으심(26:6-13)

26:6-7 이 사건은 제사장들의 음모, 제자들의 근심, 그리고 유다의 배신의 와중에 찾아온 반가운 위안이 되어준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녀의 값진 희생은 주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헌신의 깊이를, 다시 말해서 그분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귀하지 않다는 사실을 표현해 주었다.

26:8-9 그분의 제자들, 특히 유다는(요 12:4-5) 그 행동을 엄청난 낭비로 간주했다. 그들은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나았다고 생각했다.

26:10-12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시정해 주셨다. 그녀의 행동은 낭비가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었다. 아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주 시기적절했다. 가난한 자들은 어느 때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주께서 장사를 위해 기름부음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는 세계 역사상 단 한번 뿐이었다. 그 순간이 다가왔으며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한 외로운 여자가 그 순간을 포착했다. 그녀는 그분의 죽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을 믿고, 이제 지금이 아니면 그분께

기름을 부을 기회가 없다고 간파했다. 그 결과 그녀가 옳았음이 판명되었다. 그분의 몸에 기름을 붓고자 계획한 여자들은 부활로 인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막 16:1-6).

26:13 주 예수님은 그녀의 단순한 사랑의 행동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모든 참 예배의 행동은 하늘 궁전을 향기로 채우며 주님의 마음에 영원토록 기억된다.

(3) 유다의 배반(26:14-16)

26:14-15 그 때에 열둘 중에 하나(주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함께 다니고 그분의 기적을 목격하고, 그분의 비할 데 없는 가르침을 듣고 그 죄 없는 삶의 기적을 목도한 제자들 중 하나, 예수께서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라고 말씀하신 자(시 41:9),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은 그 사람)인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의 주인을 은 30에 팔기로 동의했다. 제사장들은 즉시 그 돈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고작 15달러에 불과한 소액이었다.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여자와 유다는 얼마나 대조를 이루는지. 그녀는 구주를 높이 평가했으나 유다는 그분을 하찮게 평가했다.

26:16 그리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만 받던 자가 그 무서운 흥

정을 이행할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4) 마지막 유월절(26:17-25)

26:17 무교절의 첫 날, 즉 유대인들의 집마다 모든 누룩이 제거되던 때였다.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실 때 필경 주님의 마음에는 어떤 상념들이 넘쳤을 것이다.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있게 될 모든 일들마다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26:18-20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이름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면서 그가 그들을 정한 집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이르셨다. 아마 이렇게 막연하게 지시하신 것은 음모자들의 계략을 좌절시키기 위한 것인 듯하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께서 개개인과 그들의 행방과 그들의 도울 의사를 완전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는 그분의 말씀을 보라. 그분은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차분히 직면하셨다. 온전한 은혜로 그분은 음식을 준비하셨다. 이 익명의 사람이 이 마지막 유월절을 위해 그의 집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26:21-24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은 열 둘 중 하나가 그분을 팔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 제자들은 슬픔과 유감과 자기 불신으로 가득했다. 하나씩 하나씩 “주여 내니이까?”라고 물었다.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가 물은 후 예수님은 그분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주님은 떡을

한 조각 떼어 줘에 찍은 다음 그것을 유다에게 건네주셨다(요 13:26). 이것은 특별한 사랑과 우정의 표시였다. 그분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는 어떤 불가항력이 있음을 상기시키셨다. 그러나 그것이 배신자의 책임을 면케 해주지는 못했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 했다. 유다는 의도적으로 구주를 팔기로 작정했으며 따라서 개인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26:25 유다가 마침내 단도직입적으로 자기가 그냐고 묻자 예수께서는 “그렇다”고 대답하셨다.

(5) 최초의 주의 만찬(26:26-29)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우리는 유다가 떡 조각을 받자마자 밖으로 나갔으며 때는 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주의 만찬이 제정될 때 그는 자리에 없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비록 이 점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차가 있긴 하지만).

26:26 그분의 마지막 유월절을 준수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우리가 주의 만찬으로 알고 있는 예식을 제정하셨다. 기본 재료(떡과 포도주)는 이미 유월절 음식의 일부로 이미 식탁에 준비되어 있었으며 예수께서 그것들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셨다. 먼저 그분은 떡을 가지고 축복하고 그것을 떼셨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분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몸이 아직 십자가에 내어준바 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이것은 떡을 그분의 몸으로 상징화해서 말씀하신 것임이 분명하다.

26:27-28 잔도 역시 마찬가지로여서 그 용기(容器)가 사용된 것은 그 속에 담긴 내용물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잔에는 포도 열매가 담겼으며 그 포도 열매는 새 언약의 피를 상징했다. 새롭고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려진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서 인준될 것이다. 그분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을 베풀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오직 믿는 자들의 죄를 없이 하는 데만 유효하다는 점에서 그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려졌다”고 했다.

26:29 이어서 구주께서는 이제 다스리기 위해 세상에 다시 오시기까지 다시는 그들과 함께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마시지 않겠다고 제자들에게 환기시키셨다. 그 때 포도주는 새로운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아버지의 나라의 기쁨과 축복을 말해줄 것이다.

여기서 주의 만찬을 지킬 때에 꼭 누룩 없는 떡과 발효된 포도주를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종종 제기된다. 주님께서 누룩 없는 떡과 발효된 포도주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다(당시 모든 포도주는 발효된 것이었다). 누룩 있는 떡은 상징의 의미를 손상시킨다(누룩은 죄를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발효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재료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 주님 자신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극이다. 바울은 중요한 것은 떡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영적인 의미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

자”(고전 5:7-8). 중요한 것은 떡 속의 누룩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누룩이다!

(6) 제자들의 자만(26:30-35)

26:30 주의 만찬을 마친 후에 그 적은 무리는 찬미(아마도 “대할렐시”라 일컫는 시편 113-118편)를 했다. 그런 다음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 서편을 올라 겿세마네 동산에 이르렀다.

26:31 그분의 지상 사역 동안 내내 주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 제자들에게 꾸준히 경계해 오셨다. 이제 그분은 그들이 그 밤에 모두 그분을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고 이르셨다. 노도한 폭풍을 보고 그들은 두려움에 압도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그들의 주인을 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여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한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슥 13:7).

26:32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소망 없는 중에 버려두지 않으셨다. 비록 그들은 그분과의 유대를 부끄러워할 것이나 그분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실 것이다. 결코 변치 않으신 놀라운 친구가 아닌가!

26:33-34 베드로는 다른 이들은 그분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경솔하게 끼어들었다. 예수님은 “결

코…하지 않겠다”는 말을 “오늘 밤에 세 번 하리라”는 말로 고쳐주셨다. 닭이 울기 전에 그 충동적인 제자는 그의 주인을 세 번 부인할 것이다.

26:35 여전히 자신의 충성을 내세우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분을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주장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다. 그들은 진실했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하고자 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들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7) 겿세마네에서의 고민(26:36-46)

자신이 거룩한 땅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이 겿세마네 동산에 대한 기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기사에 대해 주석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깊은 두려움과 침묵을 느낀다. 가이 킹(Guy King)의 표현대로, “이 사건의 천상적인 성격은 우리로 그것을 건드림으로 어떤 면으로든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두려워하게 만든다.”

26:36-38 겿세마네(‘올리브 통’ 혹은 ‘올리브 압착기’란 뜻)에 들어가신 후 예수님은 열 한 제자 중 여덟은 앉아서 기다리게 하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동산 깊이 들어가셨다. 이것은 제자들 간에 구주의 고민에 마음으로 함께 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음을 암시하지 않을까?

그분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분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게 그분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솔직히 고백하였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필경 그 거룩한 영혼이 말할 수 없이 격동하셨음을 보여준다. 죄인된 우리는 그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을 수 없다(고후 5:21).

26:39 그분이 그 세 제자를 떠나 동산으로 조금 더 나아가신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아무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거나 그분의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없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주저함이나 혹은 돌아가고픈 마음을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7-28절의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요컨대 그 잔이 그분에게서 지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실 때 그분은 십자가로 나가는데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였다!

이 기도는 수사적인 것, 다시 말해서 응답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버지여, 불경건한 죄인들이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길을 제시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 나는 당신의 뜻에 배치되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나이다.”

그 응답은 어떠했는가? 아무 응답도 없었다. 하늘은 침묵했다. 이 분명한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죄 없으신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시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음을 알게 된다.

26:40-41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원함이 있었지만 그들의 육체가 약했다. 우리 자신의 기도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 잠을 더 잘 자며,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곤 한다. 주님께서 얼마나 자주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여야 하는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26:42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분의 순복을 표현하셨다. 그분은 고난과 죽음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고자 했다.

그분은 기도의 삶에 있어 늘 홀로이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으며 그들 앞에서 기도하셨지만 결코 그들과 함께 기도하지는 않으셨다. 그분의 위(位)와 사역의 독특성으로 인해 다른 이들이 그분의 기도의 삶에 동참할 수 없었다.

26:43-45 다시 제자들에게 와보니 그들은 또 잠든 상태였다. 그분은 다시 나아가 기도하셨다. 그런 연후에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26:46 그분과 함께 깨어 있을 기회가 가버렸다. 배신자의 발자국이 이미 들리고 있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퇴각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적을 맞기 위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겻세마네 동산을 떠나기 전에 잠시 멈추어 그분의 간곡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슬픔을 묵상하고 온 마음으로 그분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8) 예수께서 체포되심(26:47-56)

죄 없으신 구주께서 그분의 피조물 중 하나에게 배신을 당하셨다는 것은 역사상 가장 기이한 일 중 하나이다. 인간의 타락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유다의 그 저열하고 변명의 여지없는 배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할 뿐이다.

26:47 예수께서 열 한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에 유다가 검과 몽치로 무장한 무리와 함께 이르렀다. 아마 무기는 유다가 제안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구주께서 저항하거나 맞서 싸우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었다. 아마 무기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일말의 도피 가능성 없이 그분을 체포하려고 단단히 결심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으리라.

26:48-49 유다는 주님에게 다가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라고 인사하며 입을 맞추었다. 여기에는 입맞춤을 가리키는 두 상이

한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48절에 나오는 단어는 입맞춤을 가리키는 일상적인 단어인데 반해 49절에서는 반복되거나 전시적(展示的)인 입맞춤을 표현하는 보다 강한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다.

26:50 예수님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조용히, 그러면서도 확고한 통찰력으로 말씀하셨다. 분명 이 말씀은 유다에게 강한 책망으로 들렸을 것이나 이제 상황이 신속히 진행되었다. 무리가 나아와 지체 없이 주 예수님을 체포했다.

26:51 제자 중 하나가(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그가 베드로임을 알 수 있다) 그의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베드로는 원래 귀를 겨냥하지 않고 치명상을 입히려 했을 것이다. 그렇게 겨우 귀만 떨어뜨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돌려져야 한다.

26:52 여기서 주 예수님의 도덕적인 영광이 찬란히 빛을 발한다. 먼저 그분은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승리는 육신적인 수단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영적인 전쟁에서 무력에 호소하는 것은 재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왕국의 대적들로 무기를 사용하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마침내 패배를 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하여금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삶의 능력에 호소하도록 하라.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께서 이 때 희생자인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눅 22:51; 요 18:10).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전시(展示)가 아닌가? 그분은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

하셨으며 그분의 생명을 쫓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26:53-54 만일 예수께서 무리를 물리치기를 원하셨다면 그분은 베드로의 보잘것없는 검에 의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분은 아버지께 구하여 순식간에 열두 영(3만6천명에서 7만2천명) 이상의 천사들을 보내시도록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뿐이었다. 그분의 배반당함과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에 관해 예언한 성경말씀들이 성취되어야 했다.

26:55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이 무기를 들고 그분을 잡으러 온 것이 얼마나 부조리한 처사였는지를 상기시키셨다. 그들은 그분 이 폭력에 호소하거나 약탈을 일삼는 것을 본적이 없었다. 그 대신 그분은 조용한 선생으로서 날마다 성전에 앉아있었다. 그들은 그 때 그분을 쉽게 잡을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지금 검과 몽치를 들고 나왔는가? 인간적으로 말해서 그들의 행동은 불합리했다.

26:56 그러나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성취하는 데만 성공할 뿐임을 구주께서는 알고 계셨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들의 선생을 구할 아무 방도가 없음을 간파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 그들의 비겁함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 우리의 비겁함은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았던데 비해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이다.

(9) 가야바 앞에 서심(26:57-68)

주 예수님을 심문한 두 주요 재판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행해진 종교적인 재판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 당국자들 앞에서 행해진 정치적인 재판이었다. 4복음서를 모두 종합해 보면 세 단계에 걸쳐 재판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유대인의 재판에 대한 요한의 기록은 예수께서 먼저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앞에 끌려 갔음을 보여준다. 마태의 기록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행해진 둘째 단계로부터 시작된다. 산헤드린 공회가 거기서 소집되었다. 일반적으로 피고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소명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흥분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철저히 빼앗아 버렸다(사 53:8).

26:57 이 특별한 밤에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및 장로들은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보통 밤에나 유대인의 절기 중에는 모이지 않았다. 그들은 거짓 증거를 할 증인들을 돈 주고 매수해서는 안 되었다. 사형선고는 하룻밤이 지나서야 집행될 수 있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성전 지경 내의 ‘Hall of Hewn Stone’에서 모이지 않으면 그들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열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법을 범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26:58 가야바가 그 재판장이었다. 산헤드린은 판사와 검사 역할을 다 도맡았는데 이는 상식을 벗어난 위치였다. 베드로는 안전거

리를 유지하며 멀찍이 뒤따라가다 그 결국을 보려고 하속들과 함께 앉았다.

26:59-61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느라 애를 썼다. 만일 그들이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우선적인 의무를 이행하고 그분의 무죄에 대한 증거를 찾았다면 한결 성공적이었을 것이다. 결국 두 거짓 증인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21)는 예수님의 말씀을 임의로 고쳐서 고소했다. 그 증인들의 말에 의하면 그분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 그분 자신의 죽음과 그 후의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이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 예언을 그분을 죽일 구실로 이용했다.

26:62-63 고소가 계속되는 동안 주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사 53:7). 대제사장이 그분의 침묵에 화가 나서 말을 하라고 재촉했으나 여전히 구주께서는 대답하시지 않았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모세 율법은 대제사장이 맹세로 요구할 때는 증인이 증거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레 5:1).

26:64 율법 아래 있는 순종하는 유대인이시기에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느니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메시아 되심과 신성을 강하게 주장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나의 영광은 현재 인간의 몸 안에 감추어져 있다. 나는 단순히 한 인간처럼 보인다. 너희는 나의 겸비의 날에 나를 보고 있다. 그러나 너희 유대인들은 내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화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64절의 첫 번째 2인칭 대명사는 단수로서 가야바를 가리킨다.⁵⁰⁾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2인칭 대명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재림시에 살아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로서의 유대인을 가리킨다.

“예수님이 결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적이 없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는데 여기 64절에서 그분은 자신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맹세하신다”라고 렌스키는 적고 있다.⁵¹⁾

26:65-66 가야바는 때를 놓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다니엘의 메시아 예언을 언급하신 것이다. “내가 또 밤에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단 7:13). 대제사장의 반응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주장하고 계심을 그가 이해했음을 증명해 준다(요 5:18). 그는 그의 제사장 의복을 찢었는데 이는 그가 들은 증거가 신성 모독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그가 격양된 어조로 산헤드린

50) (26:64) 헬리어 단수 대명사 “수”가 강조를 위해 분명히 언급되었다. 두 번째 대명사는 “후민”(복수)이며 세 번째 대명사는 “오프세스테”란 동사에 복수형 어미가 붙어 있다.

51) (26:64) R. C. 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St. Matthew's Gospel*, P. 1064.

공회에 말한 것은 예수님이 유죄임을 말해 주었다. 평결을 요청받자 공회는 “사형에 해당하니라”고 대답했다.

26:67-68 둘째 단계의 재판은 판사들이 피고를 때리고 침 뱉고 그런 다음 그리스도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를 때린 자를 맞춰보라고 조롱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전체 재판과정은 불공정할 뿐 아니라 수치스러웠다.

(10)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26:69-75)

26:69-72 베드로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이제 이르렀다. 그가 바깥뜰에 앉아 있는데 한 소녀가 다가와 그가 예수의 일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고 즉시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아마 더 이상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앞문까지 나갔다. 그러나 거기서도 또 한 소녀가 그를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로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이번에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맹세했다. “그 사람”은 그의 주님이었다.

26:73-74 잠시 후에 여러 구경꾼들이 다가와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못했다. 베드로는 이번에는 맹세와 저주로 확인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때 불안하게도 땀이 흘렀다.

26:75 그 친근한 울음소리는 새벽의 고요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도 꺾였었다. 이 의기소침해진 제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 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횃수에 대해서 복음서 간에 외견상의 불 일치를 볼 수 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답이 올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마 26:34; 눅 22:34; 요 13:38)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마가복음에는 “답이 두 번 올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막 14:30)고 기록되었다.

아마 밤에 한 번, 새벽에 한 번, 그렇게 답이 올었던 것 같다. 그렇 지 않으면 각 복음서들이 적어도 여섯 번에 걸친 베드로의 부인을 기록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는 다음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 인했다.

- (1) 한 소녀(마 26:69-70; 막 14:66-68);
- (2) 또 한 소녀(마 26:71-72; 막 14:69-70);
- (3) 곁에 선 무리(마 26:73-74; 막 14:70-71);
- (4) 한 사람(눅 22:58);
- (5) 또 한 사람(눅 22:59-60);
- (6) 대제사장의 종(요 18:26-27).

이 마지막 사람은 다른 이들과 구별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그 가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은 그렇게 말한 것으로 묘사 되지 않았다.

(12) 산헤드린 앞에서 열린 아침 재판(27:1-2)

27:1-2 셋째 단계의 종교 재판은 아침에 산헤드린 앞에서 열렸

다. 피고가 사면되지 않는 한 어떤 재판도 시작한 그 날 끝날 수 없었다. “동정의 마음이 생길 시간을 주기 위해” 평결이 선언되기 전에 하룻밤이 경과되어야 했다. 이번 경우에 종교 지도자들은 일체의 동정의 마음을 무시하기로 결심한 듯 보인다. 그러나 심야 재판은 규정을 벗어난 것이므로 그들은 그들의 평결에 법적인 유효성을 부여하기 위해 아침 법정을 소집했다.

로마치하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형을 구형할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들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서둘러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비록 로마에 속한 모든 것을 증오했지만 더 큰 증옴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꺼이 이 로마 권력을 이용하고자 했다. 예수님에 대한 반대는 어떤 원수 사이도 힘을 합치게 한다.

(13) 유다의 후회와 죽음(27:3-10)

27:3-4 그 때에 유다는 무죄한 피를 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돈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도로 가져갔다. 불과 수 시간 전만 해도 열렬히 협력하던 이들 주모자들이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아무 역할도 떠맡으려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배신이 받는 보상 중 하나이다. 유다는 뉘우쳤으나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경건한 회개가 아니었다. 자신의 잘못이 자신에게 가져온 결과를 슬퍼하긴 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인정하고자 하지 않았다.

27:5 절망 중에 유다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은전

을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기록을 사도행전 1장 18절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가 스스로 목을 매어 나무에 달렸으나 줄이 끊어져 몸이 아래로 곤두박질쳐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27:6 대제사장들은 너무 “신령해서” 그 돈을 성전고에 넣어둘 수 없었는데 이는 그것이 핏값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메시아를 그들에게 넘겨주도록 그 돈을 지불한 장본인들이었다. 그들은 그 일이 마음에 걸리지 않은 듯 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잔의 겉은 깨끗케 하되 그 안은 속임과 배반과 살인으로 가득했다.

27:7-10 그들은 장차 무수한 이방인 군대가 그들의 땅에 침략하여 그들의 거리를 피로 가득하게 할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부정한 이방인 나그네들의 시신을 묻는데 사용하도록 했다. 그 후로 그것은 범죄한 민족을 위한 피 밭으로 불리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매장비가 토기장의 밭 값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스가랴의 예언을 자신도 모르게 성취했다(슥 11:12-13). 매우 기이하게도 위의 스가랴 본문의 “토기장이”란 단어는 “금고”로도 옮겨질 수 있다(RSV 참조).

“제사장들은 그 돈을 금고에 넣기를 꺼리고 토기장에게 밭 값으로 줌으로써 다른 성경의 예언을 성취했다”(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

마태는 이 예언을 예레미야의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그것은 분명

히 스가랴서에서 나온 것이다. 마태가 그 인용구를 예레미야의 것으로 밝힌 것은 아마도, 수많은 히브리어 사본 속에 보존되고 탈무드 전승 속에 자주 밝혀진 고대의 서열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선지자 반열의 우두머리에 위치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유사한 용례가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는 시편이 히브리어 정경의 세 번째 부분의 이름으로 밝혀져 있다.

(14) 빌라도 앞에 첫 번째로 서심(27:11-14)

27:11-14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은 사실 종교적이었으며 그들은 그러한 배경에서 그분을 심문했다. 그러나 종교적인 고소는 로마법정에서 아무 구속력도 지니지 못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그들은 빌라도 앞에 그분을 끌고 갔을 때 그분에 대해 세 가지 정치적인 죄목을 고소했다(눅 23:2).

(1)그는 제국에 위협을 가하는 혁명가였다.

(2)그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하여 제국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했다.

(3)그는 자칭 왕이라 하여 황제의 권세와 위치를 위협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빌라도가 그 중 세 번째 죄목에 대해 그분을 심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셨다. 이것은 유대인 지도자들로 엄청난 욕설과 비방을 퍼붓게 했다. 빌라도는 피고의 침묵을 보고 심히 기이히 여겼다. 그분은 그들의 고소 중 하나에도 답변하고자 하지 않으셨다. 아마 총독은 그러한 공격을 당하고도 일체 침묵을 지키는 사람을 결코 본적이 없었던 것 같다.

(15) 예수냐 바라바냐?(27:15-26)

27:15-18 유월절이 되면 로마당국이 유대인 죄수 하나를 놓아줌으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관례였다. 한 책임자가 있었는데 그는 민란을 꾸미고 살인을 범한 바라바라는 죄수였다(막 15:7). 그는 로마에 대해 반역을 꾀한 사람으로서 아마 동족에게 잘 알려졌을 것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와 바라바 중 하나를 택하라고 제안하자 그들은 일제히 바라바를 환호했다. 총독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대중의 여론이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시기하는 대제사장들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27:19 재판은 빌라도의 아내가 보낸 사신에 의해 일시 중단되었다. 그녀는 남편 빌라도에게 예수란 사람에 대해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전언했다. 그 사람에 관해 아주 혼란한 꿈을 꾸 까닭이었다.

27:20-23 무리 뒤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죽이도록 무리를 부추기고 있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어느 쪽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다시 한 번 묻자 그들은 살인자를 원한다고 부르짖었다. 어떻게 결정할 바를 몰라 난감한 중에 빌라도는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고 물었다. 그들은 한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는데 이는 총독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었다. 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가? 그가 무슨 죄를 범했는가?

그러나 십사숙고를 촉구하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다. 군중의 흥분이 상황을 압도했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라는 외침이 주변을 진동시켰다.

27:24 빌라도가 보기에 무리는 도저히 진정이 불가능했고 오히려 소동이 곧 일어날 듯 했다. 그래서 그는 군중이 보는데서 손을 씻으며 피고의 피에 대해 자기는 무죄하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물은 역사상 정의를 가장 잘못 실천한 빌라도의 죄를 결코 없이 하지 못할 것이다.

27:25 무리는 너무 격양한 나머지 그들의 잘못을 돌아볼 겨를없이 그 책임을 기꺼이 담당하고자 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계토(ghetto, 유대인 강제 거주 구역)에서 학살로, 강제수용소에서 개스실로 이리저리 끌려 다니면서 그들의 거절당한 메시아의 피에 대한 끔찍한 대가를 치러왔다. 그들은 여전히 그 두려운 야곱의 환란의 때(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6~19장에 묘사된 7년간의 환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들에 대한 저주는 그들이 거절당한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왕으로 인정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27:26 빌라도는 바라바를 무리에게 놓아 주었으며, 그 후로 바라바의 영이 온 세상을 지배해 왔다. 살인자가 여전히 왕위에 있고 의로운 왕께서 거절당하고 계신다. 이어서 관례대로 유죄선고를 당한 분께서 채찍질을 당하셨다. 날카로운 쇠붙이가 군데군데 박힌 긴 가죽채찍이 그분의 등에 내려쳐질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흘러내렸다. 이제 소신 없는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군병들에게 내어주는 것 외에 달리 아무 손도 쓸 수 없었다.

(16) 군병들의 모욕(27:27-31)

27:27-28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총독 궁정 안으로 끌고 들어가 온 군대(아마 수백 명이었을 것임)를 그분 주위에 모이게 했다. 그 다음 일은 차마 상상할 수 없다! 우주의 창조주요 지탱자되신 분께서 잔인하고 야만스런 군병들(무가치하고 죄악된 피조물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다. 그들은 그분의 옷을 벗기고 왕복을 연상케 하는 흥포를 입혔다. 그러나 그 옷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준다. 흥색은 죄와 관련이 있으므로(사 1:18) 필자의 생각에는 그 옷이, 하나님의 의의 옷이 내게 입혀지도록 내 죄가 예수님께 옮겨진 것을 묘사해 준다고 여겨진다(고후 5:21).

27:29-30 그들은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웠다. 그러나 그들의 모진 조롱을 뛰어넘어 우리는 그분이 우리로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들은 그분을 죄의 왕으로 조롱했으나 우리는 그분을 죄인의 구주로 경배드린다.

그들은 또한 가짜 홀대로 그분에게 갈대를 쥐어 주었다. 그들은 그 갈대를 잡은 손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손임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이 지금은 우주적인 지배의 홀을 쥐고 계신다.

그들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유대인의 왕이라 칭했다. 그것으로 만족치 않고 그들은 역사상 유일한 완전한 인간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쳤다.

예수님은 그 모든 수모를 묵묵히 견디셨다. 그분은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히 12:3).

27:31 마침내 그들은 그분의 옷을 도로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17)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27:32-44)

27:32 우리 주님은 얼마간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요 19:17). 그런 다음 군병들이 시몬이란 사람(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출신)을 불러 강제로 그것을 지고 가게 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유대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흑인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가 십자가를 지는 놀라운 특권을 누렸다는 점이다.

27:33 골고다는 “해골”이란 뜻의 아랍어이다. 갈보리는 헬라어 “크라니온”을 영어화된 라틴어로 옮긴 것이다. 아마 그 지역이 해골 모양이었거나 그곳이 처형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운 것 같다. 그 위치는 확실치 않다.

27:34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군병들은 처형을 앞둔 죄수에게 일종의 마취제로 주는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건네주었다. 예수님은 그것을 먹기를 거절했다. 그분으로서는 아무 생각의 손상함 없이, 아무 고통의 경감 없이 인간의 죄의 전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있었다.

27:35 마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단순하게, 아무 감정표현 없이 묘사한다. 그는 극적인 감정에 빠지거나 감각적인 필력을 의지하거나 세부사항을 묘사하느라 궁색한 사색에 몰두하지 않는다. 그는 단순히 사실만을 기술한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러나 이 표현의 깊이를 헤아리려면 영원 자체도 부족할 것이다.

시편 22편 18절에 예언된 대로 군병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고 그 이음새 없는 옷감을 가지고자 제비를 뽑았다. 이것이 그분이 지상에서 소유한 전부였다. 데니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산 하나의 완전한 삶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고, 입은 옷 외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분의 삶이다.”

27:36 이 군병들은 이 세상 범인(凡人)들을 대표했다. 그들은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대해 아무 의식도 없었다. 만일 그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거기 앉아서 지키지 않고 무릎 꿇고 경배드렸을 것이다.

27:37 군병들은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달았다. 그 죄패의 정확한 표현은 복음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⁵²⁾ “유대인의 왕이라”(막 15:26);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눅 23:38);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요 19:19).

대제사장들은 그 칭호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들의 항의를 묵살했다. 그리하여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모든 사람이 보도록 진리가 거기에 부착되었다(요 19:19-22).

27:38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두 강도 사이에 서셨다. 이

⁵²⁾ (27:37) 만일 모든 인용 부분을 한데 모은다면 “이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가 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각 복음서 기자들이 달리 표현될 수 있는 여러 언어들 인용했다는 것이다.

사야가 7백여 년 전에 그분이 불법자와 동류로 헤아림 받을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였다(사 53:12 참조). 처음에는 두 강도가 그분께 모욕과 욕설을 퍼부었다(44절). 그러나 후에 한 강도는 회개를 하고 지옥의 문턱에서 구원을 받았다. 불과 수 시간이 지나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었다(눅 23:42,43).

27:39-40 만일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면, 또한 그것은 인간의 타락성도 드러낸다. 지나가는 자들이 양들을 위해 죽어가고 있는 목자를 구경하며 조롱을 퍼부었다. “성전을 헐며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것은 합리주의적인 불신앙의 표현이다. “우리에게 보여 달라, 그리하면 믿겠노라.” 또한 그것은 해방주의의 표현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짐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들은 만일 그분이 내려오면 믿겠다고 주장했으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이 위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윌리엄 부쓰는 말했다.

27:41-44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및 장로들도 합세했다. 우연한 통찰로써 그들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외쳤다. 그들은 조롱의 뜻으로 그렇게 말했으나 우리는 그것을 찬양할 제목으로 삼을 수 있다.

“그분은 자신은 구원할 수 없었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네.

그렇지 않으면 파산한 죄인들에게

자비가 가까이 올 수 없네.

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셔야 했으니

이는 죄인들로 죄에서 해방 받게 하기 위함이네.”

(알버트 미들레인)

그것은 주님의 삶에서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려 할 때는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없다.

종교 지도자들은 구주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주장을 조롱했다. 강도들도 그들의 저주에 합세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에 죄수들과 하나가 되었다.

(18) 어두움의 3시간(27:45-50)

27:45 그분이 사람들의 손에서 받으신 모든 고난과 수욕은 이제 직면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6시(정오)에서 9시(오후 3시)까지 팔레스타인 온 땅과 그분의 거룩한 영혼에 어두움이 임했다. 그분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저주를 받으신 것이 이 시간 동안이었다. 그 세 시간 동안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 곧 우리의 모든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집중적으로 퍼부어졌다. 우리는 그것을 겨우 희미하게 볼 뿐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것이 그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세 시간에 그분이 값을 지불하고 빛을 갚으시고 그리고 인간의 구속에 필요한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것뿐이다.

27:46 오후 3시경에 그분은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다. 그 답변은 시편 22편 3절에서 발견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지나칠 수 없으시다. 그분은 죄를 징벌하셔야만 한다. 주 예수님은 그 자신 아무 죄가 없었으나 친히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대속주에게 우리의 죄가 옮겨진 것을 하감하시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떠나셨다.

브라우닝 여사가 “임마누엘의 아버지 잃은 부르짖음”이라고 아름답게 묘사한 그러한 고통을 예수님의 마음에 가져온 것이 바로 이러한 분리였다.

“버림받으셨네!

하나님이 자신의 본체에서 분리되셨네.

그리고 의로운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아담의 죄가 말끔히 치워졌네.

오, 임마누엘의 아버지 잃은 부르짖음이여!

그분의 우주가 슬픔으로 떨어졌네.

그리고 메아리 없는 외마디가 하늘로 울려 퍼졌으니

나의 하나님, 나는 죄사함 받았나이다!”

(엘리자베스 베렛트 브라우닝).

27:47-48 예수께서 “엘리, 엘리...”하고 부르짖자 곁에 섰던 어

편 이들은 그분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했다. 그들이 그 이름을 혼동했는지 아니면 조롱하려고 그렇게 말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해용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그분의 입술에 갖다 대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으로 보아 이것은 자비를 베풀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려는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27:49 대부분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유대 전승이 그에게 부과한 역할(의인을 돕기 위해 오는 것)을 이행하는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 때는 엘리야가 올 때가 아니라(말 4:5) 예수께서 죽으시는 때였다.

27: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신 후에 영혼이 떠나셨다. 이 큰 부르짖음은 그분이 약한 중이 아닌 강한 중에 죽으셨음을 나타내 준다. “영혼을 보내셨다”(우리말 성경에는 “영혼이 떠나시다”로 되어 있음 -역주)는 사실은 그분의 죽음을 다른 모든 죽음과 구분지었다. 우리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지만 그분은 스스로 택한 까닭에 죽으셨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요 10:17-18)라고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우주의 창조주께서
인간을 위한 인간으로서 저주가 되사
친히 만드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네.

그분의 거룩한 손가락이 그분의 머리에 씌운 가시들을
 자라게 한 나뭇가지를 만드셨네.
 그분의 손에 박힌 못은 그분이 설계하여 만드신
 깊고 비밀한 곳에서 캐낸 것들로 만든 것이네.
 그분은 그 몸이 달리신 나무를 생산해낸 숲을 만드셨네.
 그분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그 나무가 서 있던 산을 친히 만드셨네.
 그분의 머리 위를 덮은 어두운 하늘은
 그분에 의해 땅 위에 널리 펼쳐진 것이며
 그분에게서 그 얼굴을 숨긴 태양은
 그분의 명령에 의해 궁창에 존재케 된 것이며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쏟게 한 창은
 하나님의 불꽃으로 단련된 것이네.
 그분의 몸이 놓인 무덤은 그분의 손이 친히 지으신
 바위를 깎아 만든 것이며
 그분이 이제 그 위에 앉은 채로 나타나시는 그 보좌는
 영원 전부터 그분의 것이었네.
 그러나 새로운 영광이 그분의 이마에 씌워졌고
 모든 무릎이 그분 발아래 꿇게 될 것이네.” (F. W. 피트)

(19) 찢어진 휘장(27:51-54)

27:51 그분이 숨을 거두자 성전의 두 주요한 방을 나누는 천으로
 된 무거운 휘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졌다. 그 때까지 그 휘장은 대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이 거하시는 지성소로부터 격리시켰다. 오직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한번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켰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이 찢어진 것은 죽음을 통해 그분의 육체를 내어준 것을 상징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피를 헝겍에 성소(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다”(히 10:19-20). 이제 아무리 미약한 신자라도 기도와 찬양을 통해 어느 때든 하나님 존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특권은 예수님의 피라는 엄청난 대가를 통해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또한 자연상의 엄청난 격동을 초래했다. 마치 생명 없는 피조물과 그 창조주 사이에 감정이입이라도 있었듯 말이다. 지진이 일어나 큰 바위들이 갈라지고 많은 무덤이 열렸다.

27:52-53 그러나 그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몸을 보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였음을 주목하라. 이 부활한 성도들이 다시 죽었는지 아니면 주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는다.

27:54 그러한 기이한 자연의 변화는 로마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에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헬라이어 원문에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 정관사가 없으나 어순상 정관사가 붙어야 한다)⁵³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백부장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

53) (27:54) 헬라이어에서 동사 앞에 오는 한정 술어명사들은 보통 관사가 없다(“코엘의 법칙”의 일부).

백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을 인간을 초월한 존재로 인정
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그것은 두려움의 감정
과, 자연의 격동이 어쨌든 예수님의 죽음(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자
들의 죽음이 아니라)과 연관이 있었다는데 대한 자각을 보여준다.

(20) 신실한 여자들(27:55-56)

27:55-56 여기에는 주님을 신실히 섬기고 갈릴리에서 예루살
렘까지 줄곧 그분을 좇아온 여자들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다. 그 중
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
내 살로메 등도 있었다. 이 여자들의 두려움을 모르는 헌신은 특별
한 빛을 발하며 서 있다. 그들은 남성 제자들이 목숨을 위해 달아났
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었다!

(21)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심(27:57-61)

27:57-58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요 산헤드린 회원으로서 전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기로 한 공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었
다(눅 23:51). 비록 이제까지는 숨은 제자였지만 이제 그는 그러한
신중함을 벗어 버렸다. 담대히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그의 주님을
장사지내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헤드린 회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편에 공개적으로 선다는
것은 얼마나 빌라도에게는 놀라운 일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었겠는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몸을
묻었을 때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신을 묻은 것이었다. 이 행

위는 주 예수님을 죽인 기존 사회로부터 그를 영원히 분리시켰다.

27:59-60 빌라도가 수락하자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정한 세 마포로 싸고 사이사이에 향료를 넣어 정성스레 방부처리를 했다. 그런 다음 그는 견고한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시신을 안치했다. 그리고 무덤 입구는 큰 돌을 굴러 막아 두었다.

수백 년 전에 이사야는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라고 예언한바 있었다(사 53:9). 분명 그분의 대적들은 그분의 시신을 힌놈 골짜기에 던져 넣어 소각시키거나 여우들의 밥이 되게 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요셉을 사용하여 그분이 부자와 함께 장사 되게 하셨다.

27:61 요셉이 떠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 반대편에서 무덤을 지켰다.

(22) 파수꾼이 무덤을 지킴(27:62-66)

27:62-64 예비일로 불리는 유월절 첫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날이었다. 그 이튿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불안했다.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무덤을 특별히 경계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것은 그분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상황을 꾸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다시 말해서 그분의 부활에 대한 소문

이 메시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분의 주장보다 한층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까 염려했던 것이다.

27:65-66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고 했다. 이것은 로마 파수꾼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뜻일 수도 있고 “너희 요청을 수락한다. 자 파수꾼을 붙여주겠다”란 뜻일 수도 있다. “힘대로 굳게 하라”는 빌라도의 말에는 비꼬는 뜻이 엿보인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돌을 인봉하고 파수꾼을 세웠으나 그러나 그들의 최선의 방비조치는 전혀 충분치 못했다. 영거는 이렇게 말한다.

“무덤을 인봉하고 파수꾼을 세우는 등 그분의 대적들이 취한 철저한 조치는 오히려 하나님께 악인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왕의 부활에 대한 논박의 여지없는 증거를 제시할 기회만을 제공해 주었을 뿐이다.”⁵⁴⁾

54) (27:65,66) Merrill F. Unger, *Unger's Bible Handbook*, p. 491.

15. 왕의 승리(28장)

(1) 빈 무덤과 부활하신 주님(28:1-10)

28:1-4 일요일 아침 동이 트기 전에 두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자 큰 지진이 일어났다. 곧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무덤 입구에서 옮겨놓고 그 위에 앉았다. 로마 파수꾼들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흰 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며 혼절했다.

28:5-6 천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여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들이 찾는 분은 약속하신대로 이미 부활하셨다.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돌이 굴러진 것은 주님을 내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자들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였다.

28:7-10 또 천사는 여자들에게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 영광스런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했다.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실 것이다. 여자들이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는 중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 “평안하노!”란 한마디 말로 인사했다.⁵⁵⁾ 그들은 그분 발아래 엎드려 경배를 드렸

다. 이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 가면 그분을 뵈을 것이라고 전하라고 친히 분부하셨다.

(2) 군병들이 매수를 당함(28:11-15)

28:11 정신이 들자 군병 중 일부가 의기소침한 가운데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했다. 그들은 임무를 실패했다! 무덤이 비고 말았다!

28:12-13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놀랐겠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제사장들은 대책을 세우느라 장로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가졌다. 급기야 그들은 군병들에게 돈을 주어, 그들이 자는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기막힌 거짓말을 퍼뜨리게 했다.

그러한 설명은 해답보다는 문제를 더욱 야기시킨다. 왜 군병들이 경계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잤는가? 어떻게 제자들이 군병들 몰래 큰 돌을 굴릴 수 있었는가? 어떻게 모든 군병들이 일시에 잠에 빠질 수 있었는가? 만일 그들이 잠들었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시신을 훔친 것을 알았겠는가? 만일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왜 군병들은 그것을 말하도록 뇌물을 받아야 했는가? 만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왜 굳이 시간을 들여 수의를 없애고 세마포를 개놓는 수고를 했겠는가?(눅 24:12; 요 20:6-7).

28:14 사실 군병들은 자신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얘기를 전하라고 뇌물을 받은 셈이었다. 요컨대 경계 중에 잠을 잔다는 것은 로

55) (28:8) “평안하뇨”는 표준 헬라어 인사이다. 여기 부활의 아침에는 NKJV의 문자적인 번역이 매우 적절해 보인다.

마법에 의하면 사형감이었다. 그러기에 유대 지도자들은 그 얘기가 총독의 귀에 들어갈 경우 자신들이 중재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해야 했다.

산헤드린 회원들은, 진실은 스스로를 입증하지만 거짓은 다른 무수한 거짓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잘 알고 있었다.

28:15 그러나 그 거짓 소문은 오늘날까지 많은 유대인 및 이방인 사이에 전해오고 있다. 그밖에 다른 신화들도 있는데 월버 스미스는 그 중 둘을 이렇게 요약해 보인다.

(1) 첫째는 여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주장이다. 잠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 금요일 오후와 일요일 아침 사이의 짧은 시간에 몹시 사랑하는 이의 무덤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능한가? 게다가 그것은 아리마대 요셉의 묘지가 아니라 그의 개인 동산이어서 다른 무덤이 없었다.

설령 다른 무덤이 있었고 여자들이 눈물 때문에 앞을 잘 못보고 가다가 무덤을 잘못 찾았다고 가정해 보자. 물론 여자들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건장한 신체를 가진 두 어부인 시몬 베드로와 요한도 그 무덤에 가서 비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은 상태였다. 그들도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고 생각하는가? 게다가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그것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했다. 이 천사도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이 주장은 뜻밖에도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내었다. 이 얼토당토 않는 억지 주장을 말이다!

(2)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죽지 않으셨다고 주장했다. 잠시 기절했다가 그 축축한 무덤에서 기운을 회복하여 살아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무덤 입구에는 큰 돌이 굴러진 다음 로마 정부의 인으로 봉인되었었다. 그 돌은 홈을 타고 아래로 굴러져 있어서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은 도저히 굴러 올릴 수 없었다. 예수님은 무기력한 병자의 몸으로 그 무덤을 나오지 않으셨다.

요컨대, 주 예수님의 부활은 주목할 만한 역사의 사실이다. 그분은 자신이 수난을 당한 뒤에 친히 살아난 것을 많은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제시하셨다. 그분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라.

- (1) 막달라 마리아에게(막 16:9-11)
- (2) 여자들에게(마 28:8-10)
- (3) 베드로에게(눅 24:34)
- (4)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눅 24:13-32)
- (5)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요 20:19-25)
- (6)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요 20:26-31)
- (7) 갈릴리 해변에서 일곱 제자들에게(요 21장)
- (8) 5백여 신자들에게(고전 15:7)
- (9)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행 1:3-12)

기독교 신앙의 요지부동한 중요한 기초석 중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이다. 여러분과 제가 굳게 서서 그 신앙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순될 수 없는 상황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부인될 수는 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될 수는 없다.⁵⁶⁾

(3) 지상 명령(28:16-20)

28:16-17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한 이름 모를 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15-18절과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기록된 나타남을 가리킨다. 얼마나 놀라운 재결합인지! 그분의 고난은 영원히 지나갔다. 그분이 살아나셨으므로 그들 역시 살아날 것이다. 그분은 영광스런 몸으로 그들 앞에 서셨다. 그들은 살아계신, 사랑하는 주님께 경배드렸다(어떤 이는 여전히 마음에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28:18 그 때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셨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항상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러나 여기서는 새로운 창조의 머리로서 권세를 말씀하신 것이다. 죽음과 부활 후로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는 권세를 가지셨다(요 17:2). 그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처음 난 자로서 항상 권세를 가지셨다. 그러나 이제 구속 사역을 이루신 까닭에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난 자로서 권세를 가지셨으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골 1:15, 18).

28:19-20 새로운 창조의 머리로서 그분은 이제, 왕국의 현재 국면, 즉 왕의 거절과 재림 사이의 기간 동안 모든 신자에게 유효한 명령을 담은 지상명령을 선언하셨다.

56) (28:15) Wilbur Smith, "In the Study," *Moody Monthly*, April, 1969.

이 위임은 세 가지 제안이 아닌 명령을 담고 있다.

(1)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은 온 세상이 구원 받는다는 것을 전제한 말씀이 아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제자들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를 망라해서 사람들이 구주를 배우거나 좇는 자들이 되는 것을 목도해야 했다.

(2)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스도의 사자들에게는 세례를 가르치고 그것을 순종해야 할 명령으로 강조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 신자의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삼위 하나님과 그들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주와 구주시며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능력을 주시며 가르치시는 분이심을 인정한다. 19절의 “이름”은 단수이다. 한 이름 혹은 본체이지만 세 위(位)(아버지, 아들, 성령)이시다.

(3)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명령은 전도를 뛰어넘는다. 구원을 얻고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도록 해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들은 신약성경에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순종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제자도의 요체는 주님처럼 되는 것이며, 그것은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가르침과 순종을 통해 이뤄진다.

이어서 구주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덧붙이셨다. 그들은 홀로, 혹은 아무 도움 없이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 모든 봉사과 여정에 있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지상명령에는 “모든”이란 표현이 네번 나타나 있다. 모든 권세, 모든 족속, 모든 것, 항상.

이와 같이 마태복음은 우리의 영광스런 주님이 주시는 위임과 위로로 끝을 맺는다. 그 후로 약 2천년이 흘렀지만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한 설득력과 동일한 유효성과 동일한 적응력을 지닌다. 그 과제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분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고 문헌

- Gaebelein, A. C. *The Gospel of Matthew*. New York: Loizeaux Bros., 1910.
- Kelly, William. *Lectures on Matthew*. New York: Loizeaux Bros., 1911.
- Lenski, R. C. H. *The Interpretation of Saint Matthew's Gospel*.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33.
- Macaulay, J.C. *Behold Your King*. Chicago: The Moody Bible Institute, 1982.
- Morgan, G. Campbell.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29.
- Pettingill, W. L. *Simple Studies in Matthew*. Harrisburg: Fred Kelker, 1910.
- Tasker, R. V. G.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TBC*.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1.
- Thomas, W. H. Griffith. *Outline Studies in Matthew*.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1.
- Weston, H. G. *Matthew, the Genesis of the New Testament*. Philadelphia: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n. d.

간행물 및 미간행물

Smith, Wilbur. "In the Study," *Moody Monthly*, April, 1969.

Woodring, H. Chester. Class Notes on Matthew, 1961, Emmaus Bible School, Oak Park, IL(now Emmaus Bible College).